

프 로 그 램

시 간		내 용
14:00~14:15	15분	개회식 - 국민의례 - 인사말 정몽준 ·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 축 사 양승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4:15~14:40	25분	기조연설 한국인의 마음, 복지, 행복 한 준 ·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4:40~14:50	10분	휴 식
14:50~15:50	60분	주제발표 및 토론: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복지와 지방정부의 역할 좌 장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제1주제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복지의 기능 발 표 송인한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조상미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2주제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불균형과 시민의 삶의 질 발 표 김희성 ·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토 론 김석호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15:50~16:00	10분	휴 식
16:00~17:00	60분	주제발표 및 토론: 가족과 일, 그리고 행복 좌 장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제3주제 가족시간과 삶의 질 발 표 이윤석 ·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토 론 차승은 ·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제4주제 일-여가의 변화와 행복 발 표 신인철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토 론 김기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7:00~17:10	10분	휴 식
17:10~18:00	50분	종합토론 좌 장 최재성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자 및 토론자
18:10~		리셉션

차 례

기조연설

한국인의 마음, 복지, 행복	한 준	7
-----------------------	-----	---

주제발표 및 토론

제1주제

발 표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복지의 기능	송인한	27
토 론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복지의 기능”에 관한 토론	조상미	69

제2주제

발 표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불균형과 시민의 삶의 질	김희성	77
토 론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불균형과 시민의 삶의 질”에 관한 토론	김석호	99

제3주제

발 표	가족시간과 삶의 질	이윤석	105
토 론	“가족시간과 삶의 질”에 관한 토론	차승은	131

제4주제

발 표	일 - 여가의 변화와 행복	신인철	137
토 론	“일 - 여가의 변화와 행복”에 관한 토론	김기현	159

기조연설

한국인의 마음, 복지, 행복

한 준*

1. 머리말

저는 아산재단의 4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한국인의 마음과 복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근 들어 학계, 언론계, 정부에서 행복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역설적으로 행복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1인당 GDP가 1970년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하고 민주화와 정치발전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나 행복 수준은 그만큼 높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높은 자살률 등 사회 전반의 활력이 줄고, 이념과 세대 갈등,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 노사갈등 등 사회문제는 늘어만 갑니다. 이제 성장위주 정책으로부터 국민 행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복과 복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과학에서 행복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GDP를 넘어서(beyond GDP)’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이정전, 2002). 20세기 서구를 선두로 한 근대화의 산물인 물질적 풍요가 그에 상응하는 인간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GDP가 아니라면 무엇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가에 대해 의견은 다양합니다. 인간의 타고난 유전적 속성과 상황에 대한 적응 메커니즘이 상이한 행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복의 정도를 설명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고(서은국, 2014; Gilbert, 2006), 인간이 자신의 삶에 관련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Sen, 1985; 1993). 저는 오늘 한국인의 행복에 대해 마음과 복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마음과 행복

1) 철학적 논의

행복(happiness)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동양에서 행복(幸福)이라는 용어는 서구에서 도입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나중에 만들어진 단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용어 자체가 없었다고 해서 그와 비슷한 생각마저 없었다고 하기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서양이건 동양이건 행복과 관련된 사상적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행복이 주관적이라고 한결같이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서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쾌락적 행복관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에피큐로스의 “아타락시아(ἀταραξία)”라는 말은 혼란, 고통, 괴로움, 근심, 걱정 등으로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체의 질병에 시달렸던 에피큐로스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정신 수양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그는 좋은 것은 기쁜 것이고 나쁜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나 혼란으로부터 자유롭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좋은 삶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가치적 행복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데모니아(εὐδαιμονία)”라는 말은 좋은 정신, 훌륭한 삶 등으로 반영되며 부끄러움 없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 가치를 추구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Gilbert, 2006). 이 관점에서는 사람이 부나 명예, 건강 혹은 친구를 추구하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지만 행복은 그 자체로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성과 일치하는 정신의 가치 있는 활동,” 즉 가치의 실천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은 인간의 주관적 감정도 객관적 상태도 아닌 가치로운 주체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동양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에 딱 들어맞는 용어는 없었지만, 고대 유교 경전인 『서경(書經)』 「주서(周書)」 홍범(洪範)편에는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의 다섯 가지가 오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 육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과 아울러 도를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것, 그리고 후회롭지 않은 삶을 가족이 있는 집에서 마감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앞의 세 가지가 객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에 해당한다면 뒤의 두 가지는 가치와 보람을 추구하는 삶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상호, 2009).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에서도 행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이상적 삶으로 그리는 것은 “낙도(樂道)”라는 말에 집약된 것처럼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김형중, 2016).

2) 과학적 측정

행복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서만 행복의 주관성이 강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을 측정하려는 과학적 연구 작업에서도 행복의 주관성은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저는 행복을 “학생 스스로 채점하는 주관식 시험 답안”에 비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관식 시험에서는 객관식 시험과 달리 선택지가 미리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행복을 느끼는가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마다 서로 다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기준 역시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채점하면서 이만하면 잘 썼다고 점수를 후하게 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스스로에게 박한 점수를 주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OECD에서는 2013년 3월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권고에 따르면 주관적 웰빙은 “마음이 편한 상태(good mental state)로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내리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다양한 평가(evaluations)와 함께 이러한 경험들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들(affective reactions)을 포함한다”고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첫째는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서(affect)”입니다. 그것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의 감정과 느낌을 측정합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과거의 삶에 대한 회고적 만족과 지금 당장 느끼는 정서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셋째는 “유데모니아(eudaimonia)”입니다. 도덕적이고 보람 있는 삶에 대한 동경을 담은 이 개념은 자신의 삶이나 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행복이 주관적이라는 사실은 행복을 측정하려는 학자들에게 매우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과학적 측정이란 것은 누가 측정하더라도 큰 오차를 보이지 않는 객관성을 요구하기 때문입

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객관적 조건에 집중해서 측정하자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채점하는 객관식 시험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행복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조건들이 무엇인지 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람들이 느낄 행복의 수준을 대신 측정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전문가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하자는 주장은 주로 스웨덴 중심 북구에서의 접근이며, 각 주체의 관점에서 주관적 만족을 중시하는 것은 미국과 서구에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구에서의 접근이 자원 및 객관적 생활조건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반면¹⁾, 미국의 접근법은 조건과 과정의 최종 결과물로서 개인의 주관적 웰빙을 강조합니다(Noll, 2004).

어찌 보면 이 둘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상반된 입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지표는 사람의 주관적 평가와 독립적인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는 통계인 반면, 주관적 지표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인식 및 평가의 측정값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지표의 옹호자들은 사회지표는 사회정책을 이끌어야 하고, 정책 결정자에게 사회문제의 실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관적 지표는 정책과정에 왜곡을 가져오고, 과학적 관리를 방해하는 비합리성을 야기한다고 봅니다(Veenhoven, 2002). 반면 주관적 만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행복을 ‘주관적 웰빙’으로 규정합니다. 행복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사회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개별 시민의 주관적 웰빙의 제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 개개인은 자신의 행복을 평가하는 최적의 전문가인 셈입니다. 만약 주관적 웰빙의 측정 결과가 객관적 지표와 어긋난다면 그것은 측정의 오류가 아닌 그 자체로서 공중의 선호(preferences)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두 입장은 언제나 비타협적으로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행복을 측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관적 접근과 객관적 접근을 혼용하고 있으며, 이 두 접근을 통해 행복을 측정한 결과는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저는 행복에 대한 주관적 측정과 객관적 측정이 근접해가는 배경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마음의 습관”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경험과 소통하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움직임이나 반응들이 비슷해지면서 마음의 일정한 유형을 갖추게 되고,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정하게 비슷한 틀을 갖춘 마음의 습관을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의 또한 다른

1) 이 경우 well-being은 복지의 의미를 갖는 welfare와 거의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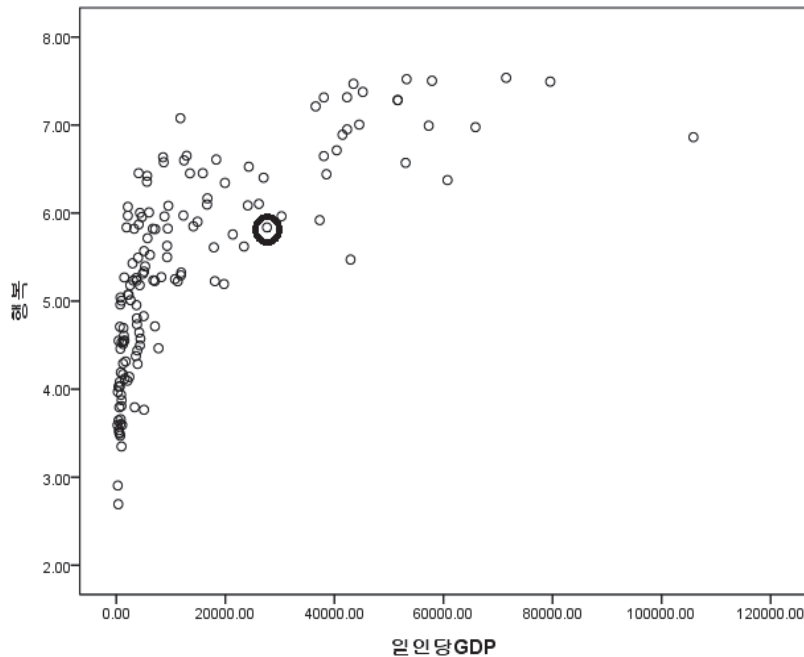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생각하고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인식론적으로 말하자면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성은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상호주관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3) 이스털린의 역설

행복이 주관적인 것이라면 객관적 조건은 얼마나 행복에 영향을 미칠까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들 중에서 특히 물질적 조건의 영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공리주의에서는 행복이 물질적 효용의 총합과 같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만, 그에 반대하는 주장들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1930~40년대 공황과 전쟁의 와중에서 러시아 출신 미국의 경제학자 쿠즈네츠와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가 나라의 경제적 총생산을 GDP라는 수치로 계산하기 시작한 뒤로 GDP는 국력의 척도이자 더 나아가 국민의 행복의 척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GDP 개념을 처음 시작했던 쿠즈네츠는 행복이 물질적 조건에 일방적으로 의존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물질적 조건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974년 경제학자 이스털린(Easterlin, 1974)은 경험적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각 나라의 사람들이 느끼는 평균적 행복의 정도가 절대적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정한 수준까지는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스털린은 나라별로 일인당 GDP 수준과 설문조사에서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물질적 조건의 진보는 행복의 증진에 대해 직선적이 아닌 곡선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일인당 GDP의 증가는 일정 수준까지는 평균적 행복을 높이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평균적 행복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이정전, 2002; 김균, 2013).

저는 올해 봄 UN에서 발간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17년에 보고된 나라별 행복의 평균 점수와 지난해 보고된 나라별 일인당 GDP를 교차하여 보았습니다. 다음 <그림 1>은 일인당 GDP와 평균 행복 수준의 산점도(scatterplot) 그래프입니다. 이스털린이 주장한 대로 일인당 GDP는 10,000달러 수준까지는 빠른 속도로 평균 행복을 높이고 20,000달러까지는 완만하게 행복을 높이지만 이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한국은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GDP는 30,000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고 평균적 행복은 10점 만점에서



〈그림 1〉 일인당 GDP와 평균 행복 수준(2016)

출처: World Happiness Report 2017, UN Statistics3.

6점에 조금 못 미칩니다. 주목할 사실은 한국이 비슷한 경제적 조건의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행복의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앞선 나라들 중에서 비슷하거나 더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나라들은 홍콩,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의 나라들입니다.

이스털린의 역설을 확인하고 나니 왜 물질적, 경제적 조건의 개선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평균적 행복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하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이 역설 혹은 난제를 설명하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치토프스키가 비슷한 시기에 출간한 〈재미없는 경제(Joyless Economy)〉(Scitovsky, 1976)입니다. 치토프스키는 전후 장기호황을 경험한 미국의 경제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분위기 속에서 소비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금방 물질적 풍요에 적응해서 익숙해지면서 학문이나 예술처럼 정신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참신성(novelty)을 접하지 못한 채 삶을 지루하고 흥미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전후 호황이 정점에 이르렀던 1960년대에 서구에서 새로운 사회적 운동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대안적 가치와 사회적 목표를 추구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운동을 가져왔던 서구인들의 내면적 변화를 정치학자인 잉글하트는 “탈물질주의”의 부상이라고 표현합니다(Inglehardt, 1990). 개인적 수준에서는 물질적 풍요의 추구가 더 이상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고, 국가적 수준에서는 부국강병이 더 이상 지상 목표가 될 수 없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탈물질주의 가치관에서는 다양한 대안적 삶의 추구하고 환경의 보호,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정 운영 등이 강조된다고 이스털린은 주장했습니다.

이스털린의 역설이나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 물질적 조건이 행복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이지도 못하고 지속적이지도 못합니다. 객관적, 물질적 조건의 영향을 약하게 만들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탈물질주의의 부상이란 다른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물질적 조건의 중요성이 약해지거나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비교성향의 문제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물질적 풍요가 찾아오고 소비성향이 높아지게 되면서 분명 삶을 지루하게 여기는 경향이 등장하고 탈물질주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도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늘어났지만 전후 서구에서만큼 대규모로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물질주의가 탈물질주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인당 GDP의 증가가 평균적 행복의 증가를 가져오는 정도는 분명 낮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단지 치토프스키가 설명한 바와 같이 편안함의 추구 속에서 지루함과 나르시시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경제성장이 행복을 더 높이기 어렵게 된 것은 왜 그럴까 궁금해집니다. 더 나아가 왜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처럼 비슷한 경제적, 물질적 수준의 나라들에 비해 행복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지도 궁금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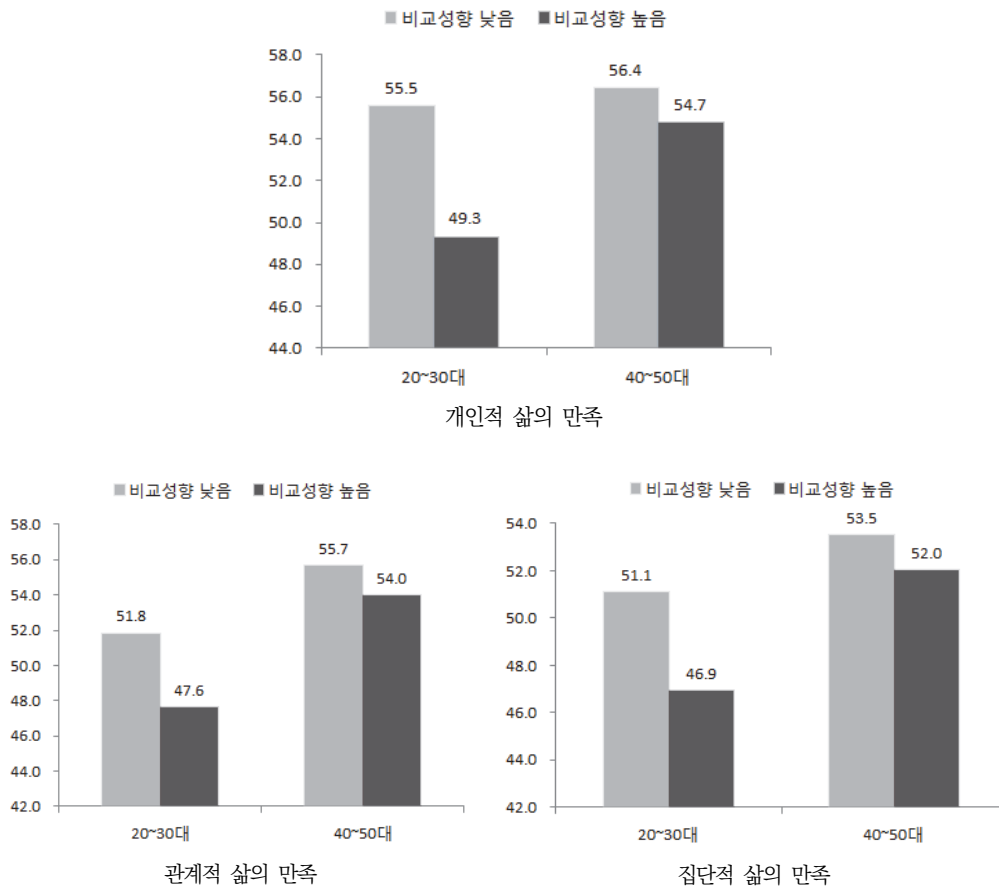
이러한 의문에 대해 다른 방향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비교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웰빙 연구의 권위자인 디너 교수는 한국 사회가 일인당 GDP 수준에 비해 국제적으로 주관적 행복의 수준이 낮은 이유를 한국 사회가 지닌 다음 네 가지 특성에서 찾았습니다(Diener et al., 2010). 그것은 과도한 경쟁, 과도한 비교, 물질주의, 외모와 명품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사회의 과도한 비교성향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회들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서구에서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남들에 비해 기회와 정보도 선점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고 해서 사회적 자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사회적 관계를 증시하는 것은 이런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조밀하고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교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들은 일종의 거울(mirror)처럼 나 자신에게 내 모습을 비추는 역할을 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Frank, 1986)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월한 상대적 지위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간파하고 그것이 경제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비교를 통해서 지위를 높이려는 성향은 결국 어떤 직장에서 일하며, 자신의 소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 등 개인의 판단과 행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프랭크는 주장합니다. 프랭크의 연구에 자극받은 최근의 연구들은 사람들의 비교성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희삼과 오타케(Kim and Ohtake, 2014)는 실험적 서베이를 이용하여 한국인들의 비교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아울러 그 결과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는데, 이들은 한국인들의 비교성향이 교육과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강해지며, 비교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정신적 건강 상태가 나쁘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이타주의 성향도 낮아져서 결국 행복감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또한 소비에서의 지위경쟁(status race)에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의 비교 대상으로 자신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언제나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 결과 과도한 과시적 소비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Frank, 1999; Kim and Ohtake, 2014). 이러한 과시적 소비는 소비하는 사람들의 만족감을 거의 혹은 전혀 높이지 못할 뿐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대중매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타인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볼 기회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비교성향은 더욱 높아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비교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행복을 덜 느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는 편이냐는 질문에 대해 7점 척도로 응답한 것을 중간값인 4점을 넘게 응답한 사람들을 비교성향이 높다고 간주하였고, 세대별로 비교성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를 보일 것이라 생각해서 세대별로 나누어 비교성향이 높고 낮음에 따라 행복의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삶의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집단적 측

면에 걸쳐서 7점 척도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응답한 것을 100점으로 환산하였습니다. <그림 2>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보면 비교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모든 측면에서 삶의 만족이 더 낮았고, 특히 비교성향에 따른 삶의 만족 차이는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추가적으로 주목할 점은 전반적으로 젊은층이 중장년층에 비해 삶의 만족이 낮을 뿐 아니라 젊은층에서는 삶의 개인적 측면에 비해 관계적, 집단적 측면의 만족이 더 낮다는 사실입니다.



〈그림 2〉 세대별 비교성향에 따른 삶의 만족 차이

자료: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동연구 서베이 자료.

3. 복지와 행복

이제 마음과 행복으로부터 복지와 행복으로 주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보다 평등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와 행복이 어떤 관련을 갖는지는 그리 자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복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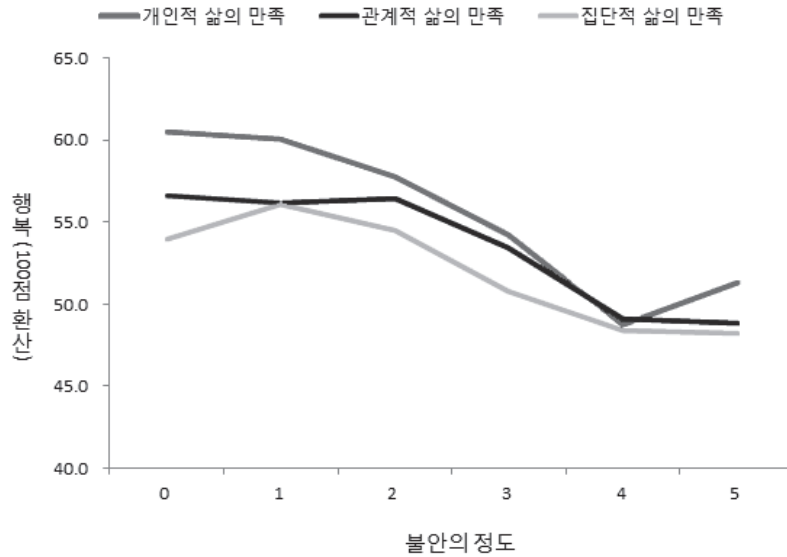
1) 위험사회에서의 복지와 행복

현대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부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위험사회를 과거의 사회와 구분하는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Beck, 2014). 과거의 불평등이 주로 재산 소유와 소득에서의 차이에 기반을 둔 집단적 계급불평등의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서의 차이에 기반을 둔, 보다 개인화된 불평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적 상층이 위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면 하층은 위험에 자주 노출되어 불안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위험은 자연적 위험이나 과학기술적 위험도 있지만 사회적 위험이 더 중요합니다. 초기 근대사회에서 복지는 고아, 장애인처럼 불행한 운명으로 인한 구사회적 위험 때문에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위험은 보다 광범해지고 또한 단지 불행한 운명일 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항구적 속성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실업의 위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닥치고 있고, 금융시장의 격변으로 갑작스런 빈곤에 몰릴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여성 가구주의 문제도 등장하고, 퇴직 이후 노인 빈곤의 가능성도 늘고 있으며,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악화로 빈곤에 빠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 시스템의 항구적 속성이 되었다는 의미는 사회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고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의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져만 가는 불확실성 앞에서 불안한 미래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물질적 조건에서의 결핍이 행복을 저해했다면 지금은 물질적 결핍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이 행복을 저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Hacker, 2006). 이렇게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이제는 정부와 민간의 복지서비스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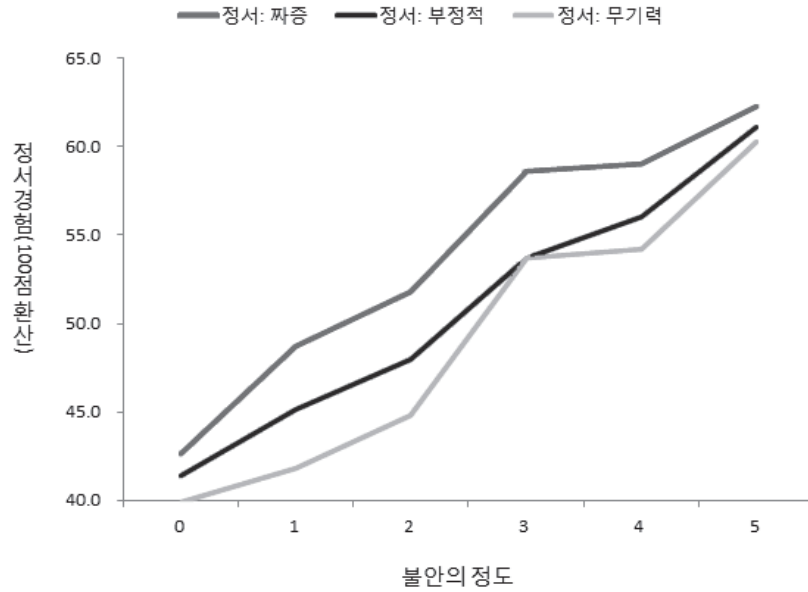
2000년대 후반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기업들은 보다 유연한 고용을 선호하며, 금융 및 부동산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고용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경제까지 저성장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빠르게 늘지 않아서 수출 중심 경제에 위험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과 미래에 대한 걱정도 힘들어 한다면, 중장년층은 자녀에 대한 걱정과 본인의 노후에 대한 걱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한 불안이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공동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노후, 일자리, 경제적 수입, 가족, 인간관계 등 다섯 가지에 대한 불안의 경험이 있는지를 7점 척도로 묻고, 중간값인 4를 넘는 응답을 불안으로 간주해서 다섯 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불안하게 생각하는지를 합쳐서 불안의 정도를 0부터 5까지의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산된 불안의 정도에 따라 행복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기 위해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집단적 측면에서 삶의 만족을 7점 척도로 응답한 것을 100점으로 환산하였고, 또한 정서경험 중에서 부정적 정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짜증, 부정적 느낌, 무기력함에 대해서도 7점 척도로 응답한 것을 100점으로 환산하였습니다. 다섯 가지의 불안 중에서 몇 가지나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삶의 만족과 부정적 정서 경험이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나타낸 것이 <그림 3>과 <그림 4>입니다. <그림 3>을 보면 불안 경험이 늘어날수록 삶의 만족은 모든 측면에서 하락하며 특히 개인적 삶의 만족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불안 경험이 늘어나는 것은 만족도뿐만 아니라 정서 경험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림 4>를 보면 불안 경험이 늘어날수록 모든 부정적 정서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와 소득, 노후와 가족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빈곤과 실업의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어 행복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림 3〉 불안의 정도에 따른 삶의 만족 차이

출처: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동연구 서베이 자료.



〈그림 4〉 불안의 정도에 따른 부정적 정서경험 차이

출처: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동연구 서베이 자료.

2) 행복의 불평등과 복지의 역할

한국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경제적 수준에 비해 행복의 평균값이 낮은 편에 속할 뿐만 아니라 행복의 표준편차는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림 5>는 2016년 UN에서 발간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국가별로 삶의 만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비교한 것입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서구 나라들에 비해 삶의 만족이 낮은 편 뿐만 아니라 표준편차도 큼니다. 이 그래프에서 한국보다 행복의 표준편차가 큰 나라는 그리스, 터키 정도입니다. 행복의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행복의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퍼진 정도가 커서 매우 낮거나 높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매우 높은 사람들보다는 매우 낮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행복의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고 표준편차는 큰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세계행복보고서의 대표 필자인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2017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수준을 낮추는 요인은 사회적 토대(social foundation)의 취약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프리 삭스가 이야기하는 행복의 사회적 기반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법 질서가 지켜지며, 정부를 신뢰할 수 있고, 자원봉사와 기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배려와 관용의 수준이 높은 사회가 행복의 사회적 토대가 튼튼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야말로 행복의 사회적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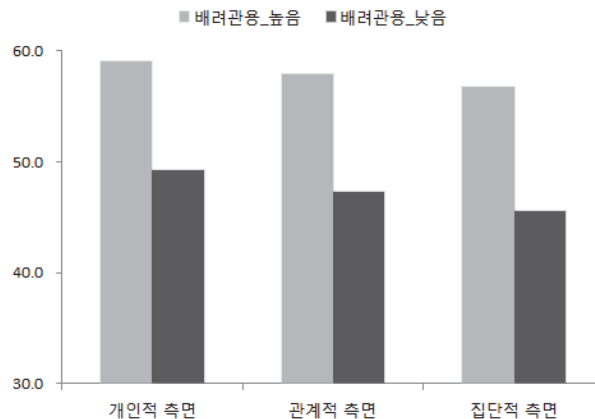


<그림 5>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 평균(왼쪽)과 표준편차(오른쪽)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16.

대를 다지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행복의 사회적 토대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번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배려와 관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7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중간값인 4점을 기준으로 넘는 경우를 배려와 관용이 높다고, 또한 반대의 경우를 낮다고 간주했습니다. 개인적, 관계적, 집단적 측면에서의 삶의 만족을 7점 척도로 응답한 것을 100점으로 환산해서 사회적 배려와 관용의 수준에 대한 평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림 6>을 보면 사회적으로 배려와 관용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모든 측면에서 삶의 만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문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원봉사와 기부가 활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 서비스가 잘 갖춰지고 사회적으로 선의와 관용, 배려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그로부터 수혜를 받는 사람들뿐 아니라 사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림 6〉 사회적 배려와 관용의 평가에 따른 행복의 차이

자료: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동연구 서베이 자료

4. 맺음말: 마음, 복지, 행복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목이 되어주며 복지의 불모지와 같던 한국에서 복지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산재단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제공했던 지난 4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적, 물질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고 국민들의 마음은 40년 전에 비해 더 각박해졌습니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살벌한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가 고민하기를 포기하고 남들보다 앞서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약자와 패자들에 대한 배려와 격려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생존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은 물론 살아남은 사람조차도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것은 행복이 각자의 마음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간의 눈부신 성과를 넘어 앞으로도 아산재단이 맡아야 할 복지 사업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만이 아니라,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불안한 사람에게 안정을 주며,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격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먹기만으로 행복을 얻을 수는 없지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과 긍정의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의 증진을 위해 큰 성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산사회복지재단이 복지사업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건강한 마음을 갖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저의 이야기를 맺고자 합니다.

참고문헌

- 김 군(2013). “이스털린 역설과 관계재,” 『사회경제평론』 42:19-48.
- 김형중(2016). “공맹(孔孟)이 제안하는 행복의 길,” 『유학연구』 제3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 서은국(2014). 『행복의 기원』, 21세기북스.
- 이상호(2009). “五福 개념을 통해 본 유교의 행복론,” 『동양철학연구』, 제60집, 동양철학연구회.
- 이정전(2002).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시장에 관한 6가지 질문』, 한길사.
- Beck, Ulrich(홍성태 역, 2014).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새물결.
- Diener, E., Suh, E. M., Kim-Prieto, C., Biswas-Diener, R., & Tay, L. S.(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Seoul,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asterlin, Richard A(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in Paul A. David and Melvin W.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ur of Moses Abramovitz*, Academic Press.
- Frank, Robert(1986). *Choosing the Right Pond: Human Behavior and the Quest for Status*.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Luxury Fever: Money and Happiness in an Era of Excess* (이한 역, 2011. 『사치 열병: 과잉 시대의 돈과 행복』, 미지북스).
- Gilbert, Daniel(서은국, 최인철, 김미정 역, 2006),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김영사.
- Hacker, Jacob(2006). *The Great Risk Shift*. Oxford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m, Hisam and Fumio Ohtake(2014). *Status Race and Happiness: What Experimental Surveys Tell Us*. KDI Policy Study 2014-01.
- Noll, Heinz-Hervert(2004).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Background, Achievements and Current Trends”, Genov, Nicolai Ed. *Advances in Sociological Knowledge Over Half a Century*. Wiesbaden: VS Verlag fur Sozialwissenschaften.
- Scitovsky, Tibor(1976). *The Joyless Economy: The Psychology of Human Satisf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Veenhoven, Ruut(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 33-45.

주제 발표 및 토론

제 1 주 제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복지의 기능

-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본 역할과 가치, 그리고 유데모니아 -

송인한 *

1. 서론

사회복지가 국민행복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사회복지의 직접적 구성요소로서 서비스 매개자인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경험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한 사회복지의 과정과 결과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가치에 기반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보람과 행복을 어떻게 경험하며 직업적 성장을 성취하고 있을까? 그리고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복지 활동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회복지사의 유데모니아는 무엇이며, 어떤 방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유데모니아를 증진시킬 수 있을까?

사회복지는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서 ‘공유된 선’을 추구하는 역할을 하며(Ignatieff, 1984)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Gray and Webb, 2012). 사회복지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사회복지의 기능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저야 함을 헌법 제34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기능은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적·실천적 시도를 통해 행해져 왔다.

공공 영역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은 2000년 국민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잔여적 기능을 수행했고, 그 이후로 점차 보편적 기능의 범위를 확대하며 수행해왔다(박천익, 2012). 민간 영역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국가 개입 최소화, 시장 기능 강화 등과 관련된 정치적·경제적 변화, 노인인구 증가, 새로운 가족 형태로의 전환 등과 관련된 인구통계적 변화로 인해 공적복지를 축소하고 민간영역을 확대하려는 민영화의 시도가 확대되어 왔으며, 보조금, 바우처 등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이인희, 2004; 최재성, 2005; 지은구, 2008; 지은구, 2009). 특히 한국에서는 민간 영역 중에서도 이윤을 필수로 추구하는 영리조직보다는 사회적 목적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영리부문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지은구, 2008).

사회복지사는 공공 및 민간영역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 영역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사회복지의 핵심적 구성요소이다. 사회복지제도 및 조직과 클라이언트 사이를 연결하며 다차원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중개자의 역할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사정하고 적합한 자원과 서비스 체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왔다(남기철, 2016; 문승연 외, 2013).

사회복지가 국민 행복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려는 기존의 시도가 존재했으나, 사회복지의 국민행복에 대한 효과를 다룬 연구는 대체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복지 효과를 분석하거나, 국가 간 행복지수 측정을 통해 삶의 질을 비교하는 등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으며(윤강재 외, 2010; Frey, 2015), 정작 사회복지의 기능을 실제로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관점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또한 사회복지의 활동은 경제적 투입과 행정적 과정의 관점으로부터 사회복지활동의 산출 결과에 대한 효과성 평가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졌으며, 효과적인 사회복지 체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사 동기의 근원이 되는 가치(value)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왔다. 타 직업군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직은 가치지향적인 직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마인드’라고 불리는 가치(value)는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남기철, 2016) 구체적인 연구의 주제로 다뤄지지 않았으나, 사회복지의 주된 요소인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가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될 필

요성이 있다.

특히, 사회복지가 국민행복을 증진시키는 과정 및 결과를 통해 경험하는 사회복지사의 보람과 행복, 특히 사회복지직을 통해 경험하는 유데모니아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사는 국민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서비스를 개발하며 전달하는 핵심적 역할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정작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행복, 즉 목적과 가치를 위해 헌신하며 느끼는 유데모니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김성동, 2006; 문승연, 2011).

사회복지사는 타인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으로서 사회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암묵적 기대를 종종 받아왔다(이현주, 2004; 문승연 외, 2013). 사회복지제도 및 조직과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사회복지사의 행복은 사회복지실천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일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남기철, 2016; 문승연 외, 2013).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심리정서에 대해서는, 긍정적 가치와 행복을 다룬 연구보다는 대체로 소진(burn-out)이라는 부정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이현주, 2004; 최명민 외, 2006; 이정서 외, 2012; 강제상 외, 2013).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국민행복에 대한 전체 연구의 한 세부 연구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 제공하는 사회복지영역 종사자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복지가 국민행복을 위해 어떠한 기여를 해왔으며 그러한 사회복지의 기능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어떠한 가치 위에서 행해져 왔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러한 사회복지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경험해 온 보람과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유데모니아 척도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직의 가치와 유데모니아에 관한 최초의 연구를 시도하려 한다. 이러한 연구 시도는 가치중심적 직업으로서의 사회복지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와 행복

그동안 행복은 과학적인 측정을 위해 주관적 안녕감, 웰빙(well-being), 심리적 복지감, 만족감, 삶의 질 등 여러 개념으로 혼재되어 사용해 왔다(박용치, 1991; 권세원, 이애현,

송인한, 2012). Diener(1984)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개념을 통해 행복을 설명하였지만, 지금 와서 웰빙(well-being)이라는 개념은 이미 한국의 사회 문화 속에서 행복과는 다른 독립된 신개념으로서 진화되어 가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박복남 외, 2005). 이렇듯 그 명칭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행복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학제 간에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Diener, 2009).

이러한 행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들은 1960년대 초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시도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정책 연구의 맥락에서 행복이 중요한 주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양순미, 2007). 즉,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실제 시민이 선호하는 주관적 정성지표를 통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다(Ho, Coates, 2004). 이러한 지표는 만족도로 대표되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즉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Sirgy, 2001).

물론 사회복지 외에도 실업률, 인플레이션, 성장률 등의 경제학적 요소들,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등 정치학적 요소들과 같이 거시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행복과 연결하는 시도들이 있었다(Frey, 2008; Welsch, 2009). 이러한 타 학문 분야들에 비해 행복을 설명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사회복지는 월등하게 가장 많이 다루어져 왔다(한인섭 외, 2009; Gainer, 2013).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목적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와 행복의 관계를 Sirgy(2001)는 하향확산이론(top-down spillover theory)과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으로 설명한다. 하향확산이론은 국민 개인의 성질에 따라 행복의 수준을 결정하며, 상향확산이론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만족도에 따라 행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이론이다. 하향확산이론은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어떠한 과정으로 국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상향확산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와 국민 행복을 설명해 왔다(Sirgy et al., 2008).

사회복지는 위에서 언급한 공공분야 외에도 민간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제공하는 회상치료, 현실치료, 긍정심리치료 등 다양한 치료에서부터, 생애주기별 대상에 따른 각종 행복 관련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간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증거기반실천(EBP: Evidence Based Practice)을 수행하고 있다(김종희, 2014; 이현주, 엄명용, 2014; 임영진, 2013; 박윤정, 2015). 또한, 비영리부문에서는 보조금, 민간파트너십, 위탁계약을 도구로 활용하면서 기부나 구호로써 국민의 행복을 위한 실천을 해왔다(지은구, 2009).

이렇듯 명백해 보이는 사회복지와 행복의 관계는 사회복지가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사회복지에 대해 행복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내재하고 있다(고명철, 2013). 또한 Brickman과 Campbell (1971)은 '쾌락의 쳇바퀴(hedonic treadmill)'라는 개념을 통해 행복이 갖고 있는 한계효용에 따른 상대성과 가변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렇듯 사회복지와 행복의 관계가 과학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포괄하는 대상의 변화와 행복 자체의 변화로 인한 검증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2) 사회복지의 기능

사회복지의 기능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적 기능이다(권중돈 외, 2016). 먼저 사회적 기능은 자본주의체제를 소외층과 낙오자들로부터 유지, 존속하기 위해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대응하는 사회통제적 기능, 사회복지를 매개로 사회 구성원 간의 결합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구심력을 높이는 사회통합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복지적 기능은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활동과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활동, 그리고 사회복지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정상화와 통합화를 실현하는 기능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의 기능으로 원조(assistance), 사회개혁(social reform), 사회통제(social control)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중 원조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문제해결을 도와주고 물질적인 지원을 할 때 발휘된다. 사회구성원인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원조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욕구충족과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복지의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사회개혁적인 활동의 기능을 보유한다. 또한 사회복지의 사회통제기능은 특히 취약계층이 일탈행위를 보일 때 현존하는 사회규범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통해서 수행된다(최성재, 남기민, 2006).

이러한 사회복지의 기능이 행복에 어떻게 역할하는지는 사회복지적 행복에 대한 고찰을 선행하지 않을 수 없다. 김기덕(2009)은 사회복지적인 행복에 가장 중요한 특질로서 통합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내면적 통합으로서의 행복과 사회적 통합으로서의 행복으로 구분하였다. 내면적 통합에서는 단순히 개인적 감각이나 감정뿐 아니라 인지적(cognitive)이고 심미적(aesthetic)인 판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통합에서는 국민 개인

이 속한 사회의 공동선(common goods)이 발현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국민 개인은 사회복지자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인지하고 즐기며, 이를 국민 전체의 행복으로 확대한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가치와 유데모니아

2001년 국제사회복지교육협의회(IASSW: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Social Work)와 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은 “사회복지전문직은 사회 변화와 인간관계상의 문제해결, 그리고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임파워먼트와 평등을 확대한다. 사회복지자는 인간행동과 사회체계에 관한 이론을 활용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속한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개입을 한다”는 국제적 정의를 채택하였다(최소연, 염태산, 2009).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한 사회복지전문가는 사회복지의 3주체인 정책주체, 운영주체, 실천주체 중 자원봉사자와 더불어 요보호자에게 실시하는 실천주체로서 자리하고 있다(권중돈 외, 2016).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사회복지의 전 현장에서 서비스 대상자의 행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서비스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문승연, 최인숙, 2011). 한편 사회복지전문가의 희생과 봉사를 추구하는 관념이 사회복지전문가 자신과 일반인에게 깊이 인식되어 있다. 이는 사회복지전문가가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국민의 삶을 원조하는 직업으로서 자신의 행복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사회의 암묵적인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권선덕, 2001; 문승연, 김춘희, 박희수, 2013).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전문가가 사회 전체의 행복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요인으로 가치를 꼽고 있다(김기덕, 최소연, 권자연, 2012). Rokeach(1973)는 가치를 개인 또는 사회적으로 더 좋은 행동의 구체적인 방식 또는 더 좋은 존재의 최종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모든 행동의 결정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가치는 사회복지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김용석, 고은정, 2014). 첫째,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제시한다. 둘째,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는 근간이 된다. 셋째, 사회복지실천에서 대립되는 가치들 사이에서 윤리적 딜레마 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된다. 즉, 사회복지직에서의 가치는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사회복지가 기능하는 데 유용한 기준으로서 작동함을 알 수 있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의 윤리강령이 제안한 6가지 핵심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서비스, 사회정의, 인간관계의 중요성, 성실성, 역량 등이다(Hull, Kirst-Ashman, 2003).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자유권, 생존권, 사회정의, 평등, 민주주의 등의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가치들은 당위적으로 받아들였을 뿐 이와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된 바가 없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문가의 핵심 가치들은 외적으로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제시하는 사회복지실천현으로서의 기준일 뿐 아니라,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개인 내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기제가 된다(Vansteenkiste et al., 2004). 이는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복지 조직으로부터의 내적 보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치에서 파생된 사회복지전문직의 개인 내적인 만족감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서의 행복을 언급하였다(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2008). 이 유데모니아(eudaimonia)는 즉각적인 즐거움을 의미하는 헤돈(hedon)과 대비하여 보다 장기적인 목적성을 지닌 전체 삶 속에서의 행복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을 살펴보면, 헤돈이 짧은 시간, 단편적, 육체적 즐거움, 감각적, 무절제한, 지나침 등을 의미하는 것인 것에 대비해, 유데모니아는 오랜 시간, 가능성, 전체적, 탁월함, 정신적(지적), 절제, 목적성 등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전문가가 일을 통해서 얻는 개인 내적인 만족감인 유데모니아에 대한 연구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사회복지사의 행복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 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서가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긍정적 기분을 유지하는 반면 부정적 정서가 높은 사람은 부정적 정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훈구, 1997).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게 되면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며, 부정적 정서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게 됨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6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정신보건

및 보건복지연구실에서 수행한 ‘국민 행복과 사회복지의 기능에 관한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국민의 행복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탐색하였고,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델파이 조사(Delphi survey), 사회복지사 및 일반 인구 대상 양적 설문조사(Survey)를 통해 국민 행복을 분석하였다.

1)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1) 연구참여자 및 조사방법

초점집단면접의 연구참여자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또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하였다.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 실천 전문가를 포괄 및 선정하고자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노숙인 시설, 의료사회복지 영역 등의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기관의 실무자 및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성별, 연령 등)과 업무 관련 특성(기관특성, 직책, 직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4개 그룹의 표적집단을 구성하여, 총 20명이 참여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 소요시간은 각 회당 90분 정도였다.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주로 해당 근무지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2016. 9. 21. 승인번호: 7001988-201609-SB-254-01)을 취득하여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초점집단면접은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포커스 그룹은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데 집중하게 되는 특별한 집단으로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그룹 토론을 통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잘 조직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자들은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그들 자신의 의견과 경험의 활발한 교류에 집중하여,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게 된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연구계획, 연구 참여자 선별, 연구의 진행, 자료의 분석 및 보고이다(신경림, 2004).

초점집단면접은 연구책임자의 연구배경과 목적 설명, 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 고지,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등을 설명함으로써 시작하였으며, 참여자 동의하에 녹취 및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s)은 ‘사회복지의 기능과 가치는 무엇인가?’,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등의 개방형 질문(open ended questions)으로 구

성하였다.

연구책임자는 면접이 한 개인에게 집중되거나 흐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진행하였으며, 보조진행자는 면접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어나는 집단 내 상호작용을 탐색하고, 비언어적인 행동을 관찰하였다. 면접이 종료 된 후 연구참여자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2) 델파이조사 (Delphi study)

(1) 연구참여자와 자료수집

델파이 조사의 연구참여자는 사회복지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종사 및 슈퍼비전 경력이 3년 이상 된 자로 하였다.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보건의료영역을 포함하는 일반영역 3개 그룹과 학교, 자원봉사, 교정, 군, 산업 등의 확장영역 5개 그룹을 포함한 총 8개 그룹에서 편의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하여 구두 동의 및 자체 선정절차를 거쳐 총 20명이 참여하였다. 본 조사는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3차에 걸쳐 온라인 조사(google forms)로 실시하였으며, 각 차수별 소요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2) 연구방법

Delphi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일치된 의견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직관을 객관화하여 현재의 상태를 평가하는 유용한 방법이다(이종성, 2006). 일반적으로 질문지의 사전 계획, 유사한 설문지의 반복적 시행, 전문가 집단 반응결과의 종합 등의 절차를 따른다(정순돌, 김성원, 2012).

본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집하였다. 1차는 사회복지의 기능과 가치,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행복 등의 개방형 질문(open ended questions)으로 구성하였다. 2차와 3차는 이전 조사 결과를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반복 질문과 추가 질문을 혼합하여 구성하였다.

3) 양적 설문조사: 사회복지사 대상

(1) 연구참여자와 자료수집

본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7년 5월에 실시하였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국 200여 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수집된 총 397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① 국민행복

Helliwell과 그의 동료들(2017)이 『World Happiness 2017』에서 사용한 국민 행복의 차원을 사용하였다. 이는 경제수준, 교육, 고용, 인간관계, 신체건강, 정신건강 등 6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전문직의 관점으로 “사회복지가 각 요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질문에 대해 1점(매우 영향력이 적다)부터 5점(매우 영향력이 크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②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지역, 성별, 연령, 사회복지사 자격증, 직업상태, 월평균 급여, 가구 월평균 소득, 교육수준, 결혼상태, 종교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지역은 17개 시도로 구분한 후,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대도시와 대도시 외로 재코딩하였으며,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로 재코딩하였다. 또한 월평균 급여는 150만 원에서부터 50만 원씩, 가구 월평균 소득은 350만 원에서부터 50만 원씩 차등을 두어 재코딩하였다.

③ 직무 및 조직 관련 요인

직무 및 조직 관련 요인은 소속기관, 직책, 주된 업무, 대면서비스 여부, 근무시간, 초과 근무시간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주된 업무는 복수 응답의 형태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근무시간과 초과시간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4) 양적 설문조사: 일반 인구 대상

(1) 연구참여자와 자료수집

일반 인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6년 12월에 실시하였으며, 만 20~59세 남녀 총 1,357명(남성 692명, 여성 66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조사의 측정도구는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비롯하여, Osgood, Suci와 Tannenbaum (1957)이 대인전문직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16개 형용사 쌍들로 구성된 의미분화척도(SDS: 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사용하였다. 또한 현재의 행복, 5년 후의 행복,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및 가치, 필요성 등의 질문들을 구성하였다.

4. 연구결과

1) 사회복지와 국민 행복: 사회복지 전문직으로부터의 관점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연구참여자 397명 중, 남성은 120명(30.2%), 여성은 277명(69.8%)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37.53세($SD=9.588$)였으며, 교육수준은 대부분(99.2%)이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232명(5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은 165명(41.6%)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개신교가 159명(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무교가 118명(29.7%), 천주교가 78명(19.6%), 불교가 31명(7.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95.7%)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직업상태는 정규직이 314명(79.1%), 비정규직이 83명(20.9%)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대도시가 220명(55.4%), 대도시 외는 177명(44.6%)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급여는 평균 239.62만 원($SD=100.963$)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월 소득은 평균 504.98만 원($SD=782.435$)으로 나타났다.

(2) 연구참여자의 직무 및 조직 관련 특성

연구참여자의 직무 및 조직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204명(5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비영리기관이 60명(15.1%), 의료기관은 45명(11.3%)으로 나타났다. 직책은 실무자가 201명(50.6%)으로 가

장 많았으며, 이어 중간관리자가 117명(29.5%), 기관장은 58명(14.6%)으로 나타났다.

주된 업무(복수응답)는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이 192명(19.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행정/조직 관리가 147명(14.6%), 개별/집단/가족상담이 133명(13.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평균 22.30명(SD=44.647)의 클라이언트를 대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9.28시간(SD=10.993)으로 나타났다.

(3) 사회복지와 국민행복

먼저 사회복지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 사회복지 내·외부의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비교하였다.

사회복지사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가치는 <표 1>과 같다. 사회복지의 가치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4.34점(SD=.808), 일반 국민은 3.96점(SD=.708)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매우 가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는 206명(51.9%), 일반 국민은 285명(21.0%)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가 갖고 있는 가치가 사회복지사와 일반 국민 간에 인식하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Delphi 조사를 통해, 사회복지가 국민 행복에

<표 1> 사회복지사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가치

구분	전혀 가치 없다	가치 없다	보통이다	가치 있다	매우 가치 있다	M (SD)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가치 (N=397)	1 (0.3)	11 (2.8)	46 (11.6)	133 (33.5)	206 (51.9)	4.34 (.808)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가치 (N=1,357)	2 (0.1)	23 (1.7)	287 (21.1)	760 (56.0)	285 (21.0)	3.96 (.708)

<표 2> 사회복지/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 행복/사회복지 대상자의 행복에 미친 영향

N=20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M (SD)
사회복지가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쳤는가	-	-	2 (10.0)	6 (30.0)	12 (60.0)	4.50 (.688)
사회복지서비스가 대상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쳤는가	-	-	1 (5.0)	8 (40.0)	11 (55.0)	4.50 (.607)

영향을 미쳤는지와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 대상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였다.

사회복지/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 행복/사회복지 대상자의 행복에 미친 영향은 <표 2>와 같다. 사회복지직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Delphi 조사에서 모두 4.50점(SD=.688, .607)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이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는 사회복지가 국민 행복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또한 미시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 대상자의 행복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직으로부터의 관점으로 본 사회복지가 국민 행복의 각 요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국민 행복의 요소를 경제수준, 교육, 고용, 인간관계, 신체건강, 정신건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요소에 미친 사회복지의 영향력은 <표 3>과 같다.

국민 행복 요소 중 ‘정신건강’과 ‘인간관계’가 각각 4.34점(SD=.740)과 4.20점(SD=.7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가 다른 국민 행복의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관적이고 비가시적인 요소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직으로부터의 관점으로 본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 대상자 행복의 각 요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대상자 행복의 요소 역시 경제수준, 교육, 고용, 인간관계, 신체건강, 정신건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요소에 미친 사회복지서비스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국민 행복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대상자 행복 역시 ‘정신건강’과 ‘인간관계’가 각각 4.08점(SD=.981)과 3.84점(SD=1.0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표 3> 사회복지가 국민 행복에 미친 영향

N=397

구분	매우 영향력이 적다	영향력이 적다	보통이다	영향력이 크다	매우 영향력이 크다	M (SD)
경제수준	5 (1.3)	24 (6.0)	85 (21.4)	170 (42.8)	113 (28.5)	3.91 (.921)
교육	2 (0.5)	13 (3.3)	93 (23.4)	215 (54.2)	74 (18.6)	3.87 (.763)
고용	5 (1.3)	16 (4.0)	80 (20.2)	199 (50.1)	97 (24.4)	3.92 (.846)
인간관계	3 (0.8)	2 (0.5)	54 (13.6)	191 (48.1)	147 (37.0)	4.20 (.745)
신체건강	1 (0.3)	8 (2.0)	75 (18.9)	172 (43.3)	141 (35.5)	4.12 (.797)
정신건강	2 (0.5)	1 (0.3)	49 (12.3)	154 (38.8)	191 (48.1)	4.34 (.740)

스는 국민 행복과 사회복지 대상자 행복에 있어, 정신건강과 인간관계 등 주관적이고 비가시적인 행복에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FGI 사례: 사례를 통해 살펴본, 사회복지와 국민행복

사회복지 전문직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Focu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질적 분석하였다. FGI의 연구참여자는 20명으로, 기관 특성에 따라 총 4회에 나누어 진행하였다. FGI에 참여한 연구참가자들은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무자였다. 연구참여자의 소속 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전문복지관, 자활전문기관, 노숙자쉼터, 대학병원 사회복지부서 등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 주민, 노인, 노숙자, 환자 등으로 다양하였다.

사회복지사의 관점으로 사회복지가 국민 행복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실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클라이언트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사례들은 『World Happiness 2017』(Helliwell et al., 2017)에서 제시한 국민 행복의 6가지 요소, 즉 경제수준, 교육, 고용, 인간관계, 신체건강, 정신건강에 따라 분류하였다.

가. 경제 수준

사회복지가 국민의 행복 요소인 경제수준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은 저소득 주민이나 자활 서비스 대상자, 독거노인, 노숙인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서 발견되었다. 경제수준에 영향을 주는 사회복지서비스로는 생계비 지원, 안정된 주거지 제공, 식료품 제공 등과 같이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복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회복지 자원을 직접 획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이 포함되었다. 경제적 지원은 대상자의 가족 결합과 같은 인간관계 요인이나 자아효능감과 같은 정신건강 요인 등 다른 요인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여성과 아이에게 주거지원〉

A씨는 경제적인 빈곤으로 신생아 자녀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었다. 남편이 있으나 직장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은 난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식비가 없어 아이에게 분유 대신 맹물만을 먹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A씨는 Y여성센터에 입소하였으며,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이후 주거지원과 자녀에 대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주거지원을 통해 떨어져 살던 남편과 재결합하게 되었으며, 어린 자녀를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사례 2: 저소득 노인에 사회복지정보 제공 및 자발적 신청 독려〉

기초생활수급자인 저소득 노인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사회복지사를 찾아와 생활 상담을 요청하였다. 사회복지사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상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다. 무기력하던 노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여 원하는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저소득 노인들은 무기력하고 수혜적인 입장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직접 찾아가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부딪힘을 느꼈다고 하였다.

나. 교육

사회복지가 국민의 행복 요소인 교육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은 정신 질환이나 신체 질환이 있는 대상자, 자활 대상자 등에서 볼 수 있다. 특히, 건강을 위한 약물관리나 스트레스 관리 등의 교육은 행복의 신체건강 요인과 정신건강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 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고용 요인과 관련이 되어 나타났다. 사회복지사가 제공한 교육은 단방향적으로 제공되는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 형태에서 확장된 형태로 보여진다. 사회복지사는 교육의 목적(건강관리, 자활 등)에 따라,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심리정서적 지지상담을 병행함으로써 변화의 동기를 제공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사례 3: 독립 거주를 시작한 정신장애인에게 일상생활관리 및 약물관리 교육 제공〉

B씨는 노숙인 쉼터에 입소 후 정신질환 증상이 호전되어 독립 거주를 시작하였다. B씨가 가지고 있던 정신질환 특성상 지속적인 약물관리가 필요하였다. 사회복지사는 가정방문 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에게 일상생활 관리와 처방약 복용 등을 교육하고 상담하였다. 개입 초기에는 “나를 못 믿어서 약을 먹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냐”고 표현하다가 B씨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아진 이후에는 “선생님 덕분에 내가 좋아진 것 알죠?”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B씨는 사회복지의 교육적 개입을 통해 스스로 일상생활, 질환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사례 4: 암 진단 초기 환자와 보호자에게 스트레스 관리 교육 및 상담 제공〉

암을 진단받은 환자는 암 치료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긴장감을 보인다. 환자 C씨는 암을 진단받고, 진료 절차에 따라 병원 내 디스트레스 상담실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부터 스트레스 상담을 받았다. 간단한 검사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점검하고 현재의 감정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교육과 사회복지 정보를 받았다. 환자 C씨와 보호자는 디스트레스 상담 후, 긴장했던 표정이 편안하게 바뀌었으며,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였다.

다. 고용

사회복지가 국민의 행복 요소인 고용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은 대표적으로 자활 대상자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에게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으로 출발하여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고용 창출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일자리’ 자체로서 고용뿐 아니라, 대상자의 근로 동기를 높이는 상담과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직무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는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높이고, 삶에 대한 의지, 긍정성 등 정신건강을 높이는 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례 5: 자립 의지가 낮은 자활 대상자에게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회 제공〉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D씨는 자립에 대한 의지가 낮았다. 자활 대상자 D씨는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한 뒤, 직무교육을 받고, 자활근로사업에도 참여하였다. 처음에는 자활지원서비스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여전히 자활 의지가 낮은 모습 보였으나, 점차 “스스로 해나가고 싶어요.”라고 창업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자발적으로 자활의 목표를 성취해나가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라. 인간관계

사회복지가 국민의 행복 요소인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나 저소득 지역사회 주민이 있으며,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노숙인과 재능기부 노인 자원봉사자 등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 예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 혼자 식사를 하는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인 ‘밥상 공동체’를 조직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었다. 사회복지의 초기 개입을 통해, 자조모임은 자발적으로 새로운 구성원을 돕는 공동체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복지사는 양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내 인간관계의 연결 및 확장뿐 아니라, 인간관계 내 의미 있는 역할 수행 및 사회적 기여 등 질적인 차원에서 인간관계를 통한 행복 추구에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 요인은 정신건강 요인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례 6: 외로움을 느끼는 독거 남성에게 자조모임 연결〉

대상자 E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단지 내에서 오랜 기간 거주해왔지만, 직장생활로 인해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서고, 저녁 늦게 집에 귀가하다보니 단지 내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외로움을 느꼈다. E씨는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이러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회복지사는 E씨에게 자조모임 서비스

를 연결해주었다. E씨는 장시간 근무로 인해 자조모임에 자주 참여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모임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발전되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됐어요.*”라고 하는 등 정식 모임 외의 시간에도 연락하며 왕래하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갖게 되었다.

〈사례 7: 노인에게 재능나눔활동 참여 기회 제공〉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노인 F씨는 복지센터에서 재능나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노인 F씨는 한 달에 10만 원 받는 재능나눔활동이 흥미롭다고 말한다. 노인 F씨는 복지센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 재능나눔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하였다. 경제적 여유가 되는 노인 F씨는 확장된 인간관계 내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삶에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마. 신체건강

사회복지가 국민의 행복 요소인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신체건강 요소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의료적 처치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지속적인 약물관리와 건강행동에 대한 교육이나 환경 조정 등 포괄적인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신체건강으로 파생된 생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거나, 적응을 돕는 서비스들이 대상자의 신체건강 관련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건강 요인은 인간관계 요인과 정신건강 요인에 관련을 보였다.

〈사례 8: 건강 문제를 가진 아기를 입양 보내려 한 산모에게 의료비와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건강 문제가 있는 아이를 치료하고 키울 여력이 되지 않아 입양을 고려하였다. 소아과 담당 의료사회복지사는 산모를 만나, 산모가 갖는 심리정서적,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의료비 지원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제도적 지원, 심리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였다. 의료사회복지사의 개입 이후, 산모는 아이를 자신이 직접 키우기로 결정하고, 사회복지 지원을 받으며 5년째 지속적으로 아이의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입양의 위기에 있던 아이는 사회복지 개입을 통해 적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어머니의 양육 하에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례 9: 신체건강 문제로 이사 후 적응 문제를 가진 노인에게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

노인 G씨는 이사하게 되었는데, 신체건강 문제로 인해 새로운 거주지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G씨와 상담을 한 뒤, G씨에게 ‘이사 후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후 G씨는 신체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거주지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클라이언트를 도와주고, 의미 있는 이웃관계를 맺고 지내는 등 관계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바. 정신건강

사회복지가 국민의 행복 요소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제공된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또한, 사회복지에서는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독거 생활자, 노숙인, 노인, 신체질환자 등 다양한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광범위한 범위의 개별적 개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통하여 대상자는 정신건강의 회복과 심리정서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발견되었다. 정신건강 요인은 인간관계 요인에 특히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사례 10: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인에게 치료적 개입을 제공〉

거리 노숙을 하던 H씨는 거리에서 청테이프와 휴지로 온몸을 칭칭 감는 모습을 보일 정도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H씨는 노숙인 쉼터에 입소하여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후 점진적인 치료적 개입을 받았으며, 점차적으로 정신건강 수준이 좋아졌다. 이후 H씨는 쪽방에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쉼터에 함께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명랑한 성격을 회복하였다.

〈사례 11: 감정과 언어 표현이 제한된 노숙인에게 장기간의 지지적 상담을 제공〉

I씨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부재하여 노숙인 쉼터에 입소하였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I씨와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무표정과 침묵으로 자기표현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6개월간 지속적이고 지지적인 상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I씨는 사회복지사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표현하기 시작하였고 다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2)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복지의 가치

(1)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복지가 국민행복에 미치는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란 어떠한 가치를 추구했는지를 살펴 보았다. 사회복지사가 대표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사회복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FGI와 사회복지직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Delphi 조사를 통해 9가지로 선정하였고, 사회복지사 대상 양적 조사와 사회복지직 전문가 대상 Delphi 조사를 통해 9가지 가치의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9가지 가치는 인간존중, 삶의 질 향상, 클라이언트의 변화, 평등한 권리와 기회의 보장, 사회정의 추구,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공동체로서의 연대감, 사회복지사의 자아실현, 나눔 활동 실천이었다.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가치는 <표 4>와 같다.

〈표 4〉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가치

N=397

구분	매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M (SD)
인간존중	-	2 (0.5)	20 (5.0)	81 (20.4)	294 (74.1)	4.68 (.591)
삶의 질 향상	-	2 (0.5)	18 (4.5)	116 (29.2)	261 (65.7)	4.60 (.601)
클라이언트의 변화	-	-	35 (8.8)	142 (35.8)	220 (55.4)	4.47 (.653)
평등한 권리와 기회 보장	-	2 (0.5)	37 (9.3)	133 (33.5)	225 (56.7)	4.46 (.683)
사회정의의 추구	-	2 (0.5)	47 (11.8)	157 (39.5)	191 (48.1)	4.35 (.705)
공동체로서의 연대감	-	1 (0.3)	51 (12.8)	152 (38.3)	193 (48.6)	4.35 (.708)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	4 (1.0)	43 (10.8)	160 (40.3)	190 (47.9)	4.35 (.711)
사회복지사의 자아실현	-	3 (0.8)	45 (11.3)	170 (42.8)	179 (45.1)	4.32 (.701)
나눔 활동 실천	-	4 (1.0)	68 (17.1)	157 (39.5)	168 (42.3)	4.23 (.763)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가치는 ‘인간존중’이 4.68점(SD=.5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삶의 질 향상’이 4.60점(SD=.601), ‘클라이언트의 변화’가 4.47점(SD=.653), ‘평등한 권리와 기회 보장’이 4.46점(SD=.683)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시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삶과 개인 내적인 변화를, 거시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평등권과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직 전문가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가치 역시 ‘인간존중’이 4.85점(SD=.3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삶의 질 향상’이 4.70점(SD=.470), ‘클라이언트의 변화’가 4.63점(SD=.495), ‘평등한 권리와 기회 보장’이 4.55점(SD=.510)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직 전문가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FGI 사례: 사례를 통해 살펴본,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복지가 국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확인하고자, FGI 결과를 질적 분석하였다.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의 관점에서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각 가치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가치가 실제 대상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를 확인하였다.

가. 인간존중

인간존중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어떠한 행동이나 선택을 할 때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각 개인이 인격을 지닌 존재로서 존중받는 것을 더욱 우선에 두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소속된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의 수익성, 효율성과 같은 경영적인 시각보다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보다 관심을 보이는 ‘대상자’ 중심적 시각을 보였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대상자가 가진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편견을 지양하고 대상자에 대한 무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인간존중 가치에 바탕을 둔 대상자 중심적·무비판적 시각은 사회복지사와 대상자가 일방적이고 수혜적인 관계가 아닌 양방향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도록 한다. 인간존중 가치는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의 개별적인 필요나 욕구, 심리정서적인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우며, 단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넘어, 대상자 개개인에게 진정성 있는 심리적 지지를 담은 개입이 가능하도록 기능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되며,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신뢰감, 자존감 등 심리적 자본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인간존중 가치는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복지사들 간에 연대감을 갖도록 돕는다. 인간존중 가치는 다른 가치들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적인 신념으로, 사회복지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사례 1: 이익추구보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우선에 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A씨는 종합복지관에서 문화예술 관련 업체로 이직했다가, 다시 복지관으로 돌아왔다. A씨가 다시 복지관으로 돌아온 이유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중점을 뒀야 하는 점이 자신이 가진 가치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사회복지관에 다시 돌아온 이후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노인 요리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었다. A씨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세팅에서 일을 할 때, 직원들 간에 사람을 중심을 두고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

다. 다가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하는 등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사람 중심의 가치’를 같이 지향함으로써 느끼는 행복감이 크다고 보고했다.

나.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점진적인 과정으로서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목적을 반영한다. 삶의 질에 대한 가치는 사회복지사가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도록 도우며, 사회복지직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삶의 질 향상의 가치는 사회복지사가 대상자를 전인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대상자가 살아가는 ‘전체로서의 삶’을 조망하도록 돕는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상자의 긍정적인 적응과 회복,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

〈사례 2: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노숙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B씨는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의술로 건강을 되찾게 한다면, 힘든 상황에서 삶을 다 놓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게끔 해주는 일을 저희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성공했을 때 오는 보람이 가장 큰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는 등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 이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로 입사했고,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노숙인의 분야로 자연스럽게 입사한 것이다.

다. 사회정의

사회정의는 ‘사회적 올바름’을 의미하며, 모든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정의의 가치는 국가나 지역사회가 대상자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의무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정의의 가치는 사회복지사가 대상자 개인에 대해 미시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대상자가 위치한 지역사회나 사회,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인식하는 것을 돕는다. 사회정의의 가치는 가깝게는 정의롭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서부터 대상자의 권리 보장, 국가 정책 및 제도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에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

〈사례 3: 지역사회 정의실현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복지기관〉

C 사회복지기관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이 정례화되어 있다. 이때 피드백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다. 기관장 역시 원탁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며, 중간관리자나 실무자 간에 동료 슈퍼비전(peer supervision)을 주고받는다. 이 기관은 이러한 평등한 조직 문화에 기반하여 직원들의 마인드를

일치시켜 사업의 방향을 합의해오고 있다. 특히 10년 넘게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직원들 모두 이 사업이 지역사회의 정의실현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클라이언트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원들은 “일을 하면서 힘들을 느끼기도 하지만, 정말 정의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보고하는 등 지역사회 정의실현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다.

라. 클라이언트의 변화

클라이언트의 변화는 대상자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심리정서적 안정, 건강의 회복, 사회경제적 안정 등을 포괄한다. 클라이언트의 변화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제공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확인 과정은 사회복지사가 일에 대한 보람과 같은 심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예방하고 사회복지사의 행복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변화 가치는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의 외면적 변화뿐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게 함으로써, 대상자의 상황이나 욕구에 맞춰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감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례 4: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통해 보람을 느끼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D씨는 노숙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D씨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노숙인들이 안정적인 주거가 생겼을 때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D씨는 “처음에 거리에서 노숙을 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신건강도 안 좋으셨어요. 제가 있는 기관에 오셔서 안정된 삶을 살고 머물 곳이 생기니까 그 자체로도 증상이 확 안정되는 모습을 봤어요.”라고 하는 등 클라이언트의 변화로 체감하며 느낀 보람에 대해 보고했다.

마.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사회복지사와 대상자 간의 인간관계를 의미하며, 사회적인 교류와 함께 정서적인 교감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화를 통해 상호간 친밀감과 신뢰감이 형성된다. 클라이언트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일차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차적으로 대상자가 사회복지사와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통해 사회를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곳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다수의 사회복지 대상자는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하여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되어,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에게 거의 유일하거나 몇 안 되는 의미 있는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와 지지적인 관계를 맺도록 도움으로써, 대상자에게는 건강한 관계 경험을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복지사에게는 대상자로부터의 인정, 공감 등 심리적 보상을 제공하여 사회복지사의 행복에 기여한다.

〈사례 5: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관계에서 힘을 얻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E씨는 노인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지쳐서 앉아 있다 보면 노인들이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걸 때가 많다고 한다. 처음에 E씨는 노인들이 다가오는 것이 잘 적응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들과의 관계로부터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 “어르신들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 때, 제가 좋아서 에너지를 나누어주고 저의 상황을 알아봐 줄 때 힘이 됩니다.”라고 하는 등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바. 사회복지사의 자아실현

사회복지사의 자아실현은 사회복지사 개인이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업적인 성취를 포함한다.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하며, 직업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 자아실현의 가치는 사회복지사가 직업적인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사업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도록 독려하는 기능을 한다. 사회복지사의 자아실현은 소속된 기관에서의 인정, 타 전문직의 인정, 클라이언트의 인정, 사회적 인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례 6: 조직 내 인정을 받으며, 더욱 역량을 발휘하며 성장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F씨는 복지관에서 재능나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F씨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F씨는 “일하면서 제가 재량적인 권한이나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 때 조금 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재단 사업에서 상당히 자율성을 주고 실무자의 역량을 많이 강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저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제 생각대로 많이 담아낼 수 있는 사업들에서 제가 더 보람을 느끼고 가치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등 자신의 아이디어를 담은 사업 수행을 통해 스스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행복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사. 평등한 권리와 기회 보장

평등한 권리와 기회 보장은 누구나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공평한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한 권리와 기회 보장은 앞선 사회정의의 가치와 기본적인 지향점은 유사하나, 보다 실천적인 대안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평등한 권리와 기회 보장의 가치는 현재

사회복지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개인의 부족함이나 개인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기보다는, 과거의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불공정함에서 파생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사는 평등한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면 대상자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제도적인 변화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치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일시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복지 안정망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평등한 권리와 기회 보장 가치는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사회복지제도의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사례 7: 노숙인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G씨는 노숙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G씨는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재활시설이 없는 현황과 관련하여 제도적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실질적인 노력도 많이 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다.

G씨는 “소수라는 대상자가 제도에서 자꾸 제외되어 어떻게 보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갈 끝에 서 있는 분들인데도 그런 것이 외면당할 때.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사는 인간세상이 이렇게 가혹한가.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나도 편승을 해야 될 때. 이분들을 보호를 해주기는커녕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놔야 할 때 자책감이 들어요.”라고 하는 등 여성 노숙인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라는 가치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 공동체로서의 연대감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은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사회에서 ‘서로 연결된 느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단방향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대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공동체로서의 연대감 가치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게 하며, 사회복지사로부터 대상자에게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전달된다. 공유된 연대감의 가치는 다시 대상자를 통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지역사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연대감의 가치는 사회복지사 자신의 역할이 가져오는 공동체의 파급효과를 돌아보게 하며, 사회복지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도록 돕는다.

〈사례 8: 클라이언트와 연대감을 느끼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H씨는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사 후 적응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H씨는 프로그램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이웃관계를 맺고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업을 할 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해서 보람을 느꼈어요.”라고 이야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나눔 활동 실천

나눔 활동 실천은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누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이 가진 시간, 노동력, 재능, 재화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을 포괄한다. 나눔 활동 실천의 가치는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에서 파생한 실천적 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직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나눔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나눔 활동 실천의 가치는 성장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로의 회복을 돕는 기능을 한다.

〈사례 9: 클라이언트의 나눔 활동 실천에 가치를 느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I씨는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I씨는 복지관 사례관리 대상자가 이웃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하자, 이웃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연결해 주었다. 사회복지사 I씨는 “그 분께서 이웃들과 만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서로 왕래도 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관계가 된 모습을 보았을 때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등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모습으로부터 가치를 느꼈다고 보고했다.

3) 사회복지전문가의 유데모니아: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복지의 행복 - 행복척도의 활용

(1) 사회복지사와 일반 국민의 행복

우선 사회복지사와 일반 국민이 일을 통해 얻는 행복을 비교하였다. 사회복지사 대상 양적 설문조사와 일반 국민 대상 양적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병합(merge)하였다.

사회복지사와 일반 국민의 일을 통한 행복 평균 차이는 <표 5>와 같다. 사회복지사와 일반 국민의 일을 통한 행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p < .001$), 사회복지사는 일반 국민에 비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행복은 7.06점($SD=1.936$), 일반 국민은 6.10점($SD=1.839$)으로 나타났다.

〈표 5〉 사회복지사와 일반 국민의 일을 통한 행복 평균 차이

일을 통한 행복	M	SD	t	p
사회복지사 (N=397)	7.06	1.936	-8.972***	.000
일반 국민 (N=1,357)	6.10	1.839		

*** $p < .001$

(2)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유데모니아: 직무만족의 조절효과

① 변수 및 측정도구

독립변수인 가치는 본 연구의 FGI 및 Delphi 조사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가치를 탐색한 결과 총 9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이는 인간존중, 삶의 질 향상, 사회정의 추구, 클라이언트의 변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자아실현, 평등한 권리와 기회 보장, 공동체로서의 연대감, 나눔 활동 실천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다.

조절변수인 직무만족은 Rothausen(2014)에 의해 타당화된 Global Eudaimonic Job Satisfaction을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나의 일은 영향력이 있다', '나의 일은 변화를 만든다', '나의 일은 나, 가족, 다른 사람, 사회에 기여한다', '나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나의 일은 성향을 만든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유데모니아(eudaimonia)는 Waterman과 그의 동료들(2010)이 만든 QEWB(The Questionnaire for Eudaimonic Well-Being)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 0~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자기발견(self-discovery), 잠재력 개발(perceived development of one's best potentials), 목적성과 삶의 의미(a sense of purpose and meaning in life), 가치추구(investment of significant effort in pursuit of excellence), 사회적 활동 참여(intense involvement in activities), 활동 참여 만족감(enjoyment of activities as personally expressive) 등 총 6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성격(외향성) 등의 개인적 차원의 요인들과 월평균 클라이언트 사례수, 동료지지, 근로시간, 사회복지경력 등의 조직적 차원의 요인들로 구분하였다. 이 중 성격은 John과 Srivastava(1999)가 개발한 BFI(Big Five Inventory) 중 행복과 관련된 변수인 외향성(Extra-version)을 사용하였다. 총 2문항으로 '외향적인, 열정적인'과 '내향적인, 조용한' 등의 질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② 분석결과

사회복지사의 가치가 유데모니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오차의 자기상관 검증에서 Durbin-Watson 통계량이 2.001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었다.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56~1.822로 10보다 작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복지사의 가치가 유데모니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조절효과 검증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 E.	β	t	B	S. E.	β	t	B	S. E.	β	t
(상수)		11.827	5.630		2.101	9.124	4.787		1.906	5.858	4.981		1.176
통제변수	성별	2.397	1.168	.115	2.052*	2.038	.992	.098	2.054*	2.011	.983	.096	2.045*
	연령	.321	.065	.351	4.927***	.205	.057	.224	3.610***	.215	.057	.235	3.805***
	성격(외향성)	1.130	.205	.314	5.515***	.695	.181	.193	3.846***	.670	.179	.186	3.735***
	사례수	.014	.011	.072	1.286	.005	.009	.027	.578	.005	.009	.026	.548
	동료지지	.999	.656	.089	1.524	.229	.563	.020	.406	.243	.558	.022	.435
	근로시간	.063	.038	.092	1.647	.044	.032	.064	1.360	.041	.032	.060	1.285
	사회복지경력	.012	.009	.095	1.318	.011	.008	.087	1.426	.011	.008	.088	1.460
독립변수	가치	.514	.111	.266	4.618***	.254	.099	.131	2.564*	.351	.108	.182	3.252**
조절변수	직무만족					.908	.102	.486	8.872***	.871	.103	.467	8.479***
상호작용항	가치×직무만족									.039	.018	.110	2.153*
F		17.144***				29.904***				27.870***			
R ²		.407				.575				.585			
Adj. R ²		.383				.556				.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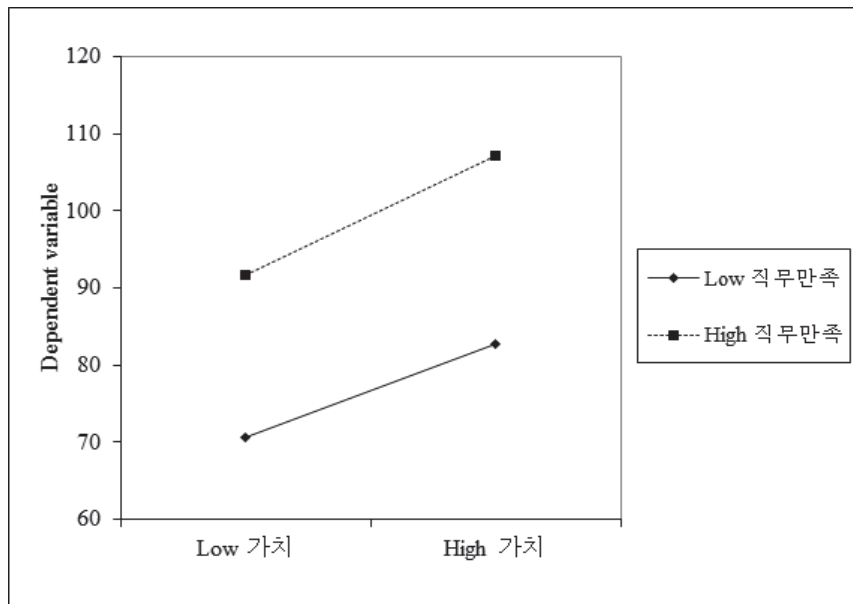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주) 기준: 성별(여성=0, 남성=1)

Model 1은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만을 투입한 결과로 $p<.001$ 수준에서 모델이 유의하게 검증되었으며, 종속변수의 분산에 한 설명력은 40.7%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유데모니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t=2.052$, $p<.05$), 연령($t=4.927$, $p<.001$), 성격($t=5.515$, $p<.001$)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성격이 외향적일수록 사회복지사의 가치가 유데모니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는 조절변수를 투입한 결과로 $p<.001$ 수준에서 모델이 유의하게 검증되었으며, 종속변수의 분산에 한 설명력은 57.5%로 나타났다. Model 1과 마찬가지로 성별($t=2.054$, $p<.05$), 연령($t=3.610$, $p<.001$), 성격($t=3.846$,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은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로 $p<.001$ 수준에서 모델이 유의하게 검증되었으



〈그림 2〉 조절효과 그래프

며, 종속변수의 분산에 한 설명력은 58.5%로 나타났다. Model 1, 2와 마찬가지로 성별 ($t=2.045$, $p<.05$), 연령($t=3.805$, $p<.001$), 성격($t=3.735$,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가치가 유데모니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2〉와 같다. 직무만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직무만족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가치가 높을수록 유데모니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에 대한 만족이 가치가 유데모니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의 행복

사회복지사가 경험한 행복한 경험은 〈표 7〉과 같다. ‘클라이언트 변화’가 4.30점($SD=.7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사람에 대한 가치 실현’이 4.26점($SD=.700$), ‘역량강화 및 자아실현’이 4.23점($SD=.75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피드백과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신의 역량강화와 자아실현을 경험함으로써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가 경험한 행복하지 않은 경험은 〈표 8〉과 같다. ‘희생 강요’가 4.11점($SD=.9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열악한 보수’가 4.04점($SD=.976$), ‘소진’이

〈표 7〉 사회복지사의 행복한 경험

n=397

구분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M (SD)
클라이언트 변화	2 (0.5)	9 (2.3)	38 (9.6)	166 (41.8)	182 (45.8)	4.30 (.775)
사람에 대한 가치 실천	1 (0.3)	6 (1.5)	35 (8.8)	202 (50.9)	153 (38.5)	4.26 (.700)
역량강화 및 자아실현	3 (0.8)	6 (1.5)	42 (10.6)	190 (47.9)	156 (39.3)	4.23 (.757)
자율성	3 (0.8)	11 (2.8)	45 (11.3)	187 (47.1)	151 (38.0)	4.19 (.799)
동료 지지	3 (0.8)	11 (2.8)	40 (10.1)	200 (50.4)	143 (36.0)	4.18 (.780)
긍정적 피드백	2 (0.5)	8 (2.0)	50 (12.6)	195 (49.1)	142 (35.8)	4.18 (.762)
민주적 의사소통	2 (0.5)	11 (2.8)	54 (13.6)	194 (48.9)	136 (34.3)	4.14 (.786)
사업성과	4 (1.0)	12 (3.0)	62 (15.6)	177 (44.6)	142 (35.8)	4.11 (.846)
라포	2 (0.5)	5 (1.3)	64 (16.1)	214 (53.9)	112 (28.2)	4.08 (.731)

〈표 8〉 사회복지사의 행복하지 않은 경험

n=397

구분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M (SD)
희생 강요	9 (2.3)	24 (6.0)	51 (12.8)	144 (36.3)	169 (42.6)	4.11 (.995)
열악한 보수	5 (1.3)	25 (6.3)	76 (19.1)	134 (33.8)	157 (39.5)	4.04 (.976)
소진	6 (1.5)	28 (7.1)	64 (16.1)	152 (38.3)	147 (37.0)	4.02 (.975)
많은 업무	4 (1.0)	17 (4.3)	87 (21.9)	154 (38.8)	135 (34.0)	4.01 (.907)
한계	10 (2.5)	32 (8.1)	74 (18.6)	164 (41.3)	117 (29.5)	3.87 (1.008)
가치 충돌	12 (3.0)	45 (11.3)	106 (26.7)	137 (34.5)	97 (24.4)	3.66 (1.060)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17 (4.3)	54 (13.6)	106 (26.7)	122 (30.7)	98 (24.7)	3.58 (1.127)
낮은 전문성 인식	23 (5.8)	39 (9.8)	119 (30.0)	117 (29.5)	99 (24.9)	3.58 (1.136)
자책감	29 (7.3)	74 (18.6)	129 (32.5)	111 (28.0)	54 (13.6)	3.22 (1.121)

4.02점(SD=.975), '많은 업무'가 4.01점(SD=.90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사는 암묵적인 희생을 강요받으며, 열악한 보수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로 인한 소진을 경험할 때 행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복지사의 유데모니아 패러다임 모형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338개의 개방코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유데모니아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였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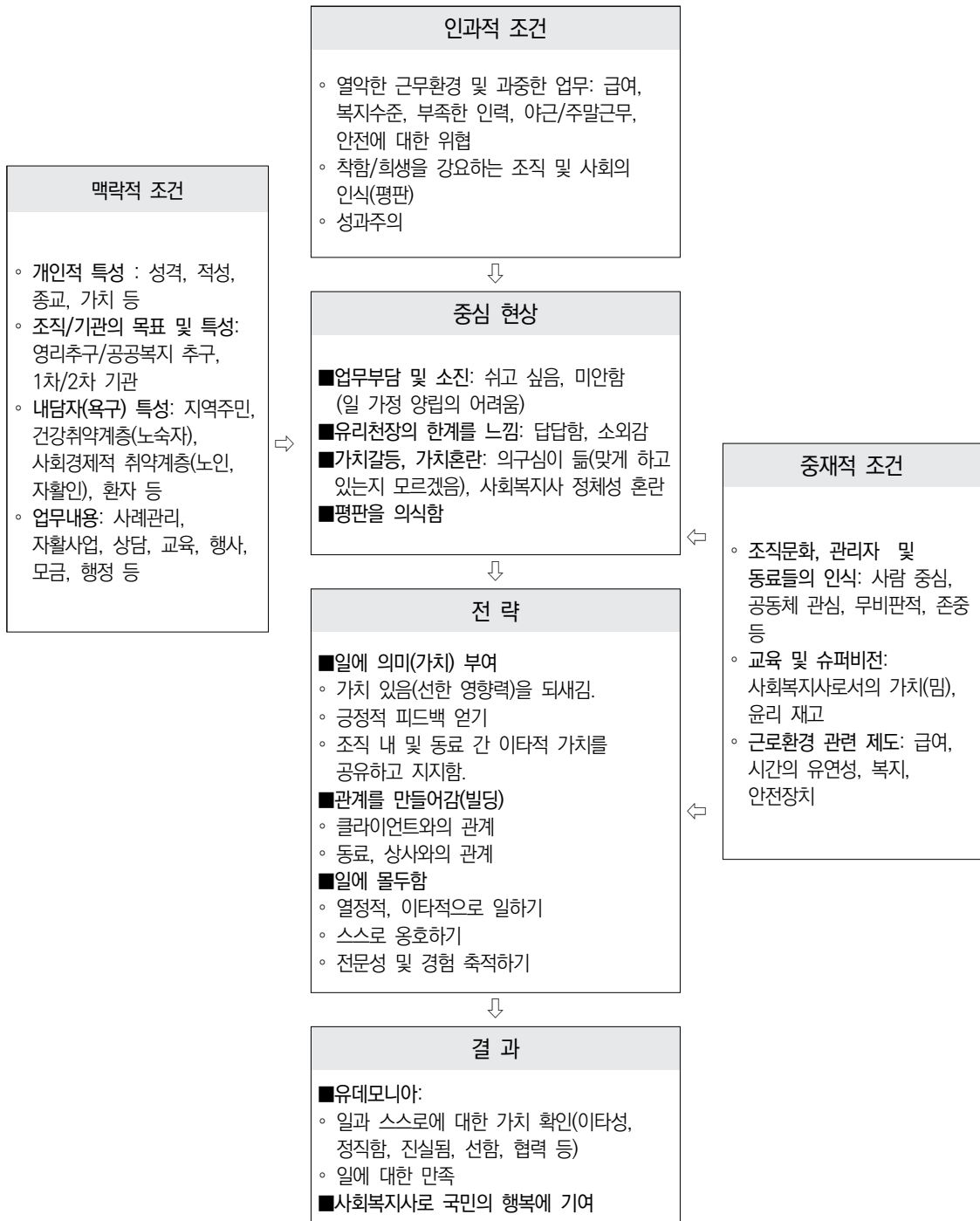
사회복지사는 중심현상으로서, 업무에 대한 부담과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에 대해 의식하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갈등 및 가치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과적 조건으로서,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환경과 사회적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낮은 급여와 복지수준, 부족한 인력 대비 과중한 업무, 안전을 위협하는 근무환경 등의 내부적인 요인들과 착함과 희생을 강요하는 조직과 사회의 인식 및 성과주의 등 외부적인 요인들이 혼재되어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부담과 소진, 가치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업무부담과 정서적 소진, 가치갈등은 맥락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성격, 적성, 종교, 가치 등의 개인적 특성과 조직 및 기관의 목표와 특성, 또한 대상자의 특성 및 업무내용 등은 사회복지사의 가치갈등과 업무부담 및 소진 등의 상황이나 문제를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스스로 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클라이언트 및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열정적이고 이타적인 자세로 일에 몰입함으로써 가치갈등과 과중한 업무 등에 대처해간다. 이 과정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조직문화나 관리자와 동료들의 인식, 사회복지의 가치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이나 정서적인 지지가 포함되는 슈퍼비전, 근로환경 관련 제도 등의 중재적 조건들은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조절하거나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사회복지직의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일에 대한 만족을 얻고, 사회복지사로서 국민의 행복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얻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직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헌신함으로써 유데모니아(eudaimonia)에 이르게 된다.



〈그림 3〉 사회복지사의 유데미니아 패러다임 모형

5. 결론: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복지가 국민 행복에 이바지하는지에 대해 사회복지전문직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으며, 사회복지의 기능을 통해 사회복지전문가가 경험한 유데모니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대한 요약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복지전문직의 관점으로 본 사회복지가 국민 행복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국민 행복의 요소를 경제수준, 교육, 고용, 인간관계, 신체건강, 정신건강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으며, 사회복지전문직 10명 중 8명 정도가 사회복지가 국민 행복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정신건강’과 ‘인간관계’가 5점 만점에서 각각 4.31점과 4.1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 대상자 행복에 미친 영향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Delphi 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 이상이 사회복지가 국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사회복지 대상자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여 양적 설문 조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FGI에서는 경제수준, 교육, 고용, 인간관계, 신체건강, 정신건강 등 각 행복의 요소들을 경험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실증적인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사회복지전문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복지지는 국민 행복의 각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복지 대상자의 각 사례가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복지가 국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가 추구한 가치는 다음과 같다. 5점 만점에서 ‘인간존중’이 4.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삶의 질 향상’, ‘클라이언트의 변화’, ‘평등한 권리와 기회 보장’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Delphi 조사에서도 동일한 우선순위로 나타나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GI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사람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내적인 변화와 평등권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는 사례들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지는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가치를 사회복지전문가들이 각 현장에서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미시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삶과 개인 내적인 변화를, 거시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평등권과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직의 가치는 사회복지사의 유데모니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직무에 대한 만족은 이들의 영향 관계에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유데모니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성별($t=2.045$, $p<.05$), 연령($t=3.805$, $p<.001$), 외향적 성격($t=3.735$, $p<.001$) 등이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사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성격이 외향적일수록 사회복지직의 가치가 유데모니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이 높은 사회복지사 집단의 경우 직무만족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유데모니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의 직무에 대한 만족이 유데모니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전문가의 행복은 10점 만점에 7.0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 6.1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직이 경험하는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t=6.351$, $p<.001$), 소득($t=3.140$, $p<.01$), 학력($t=2.980$,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전문가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구재선과 서은국(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경험한 행복은 ‘클라이언트 변화’가 5점 만점에서 4.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사람에 대한 가치 실현’, ‘역량강화 및 자아실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복하지 않은 경험은 ‘희생 강요’가 4.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열악한 보수’, ‘많은 업무’와 ‘소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행복과 불행은 가치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간에 대한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사람에 대한 가치 실현에 행복을 느끼는 반면, 그러한 가치를 희생하도록 강요하거나 그만큼의 가치에 상응하지 못한 보수나 과중한 업무 등은 반대 급부로서 행복하지 않은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FGI를 통해 구성한 패러다임 모형에 의해서 그 설명을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유데모니아는 직업적 가치 및 직업만족과 관계가 있으며, 이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발견되었다. 즉,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높은 가치를 가질수록 높은 유데모니아를 경험하고, 또한 근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게 느낄수록 높은 유데모니아를 경험하였다. 특히, 근무만족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복지의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유데모니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회복지직의 가치는 당위

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었을 뿐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고(김용석, 고은정, 2014), 사회복지직의 가치를 실천영역에서의 적절한 행동 선택에 대한 선언적 지침으로서만 규정하여, 그 구체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미진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회복지의 가치가 사회복지사 개인의 유데모니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통해, 사회복지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가치 중심적 직업으로서의 사회복지직의 정체성을 실증적으로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직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변화에 대한 노력 등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가치들과 사회정의와 평등권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가치들에 기반하여 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들 요인들은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행복의 요인들 중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변화, 사람에 대한 가치 실현, 민주적 의사소통 등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치중심적 직업으로서의 사회복지사를 이해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 개인이 경험하는 유데모니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의의를 갖는다.

둘째, 양적 연구에서 나타난 직무만족의 조절효과 검증과 질적 연구에서 나타난 직무관련 변수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사회복지직직무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요인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직무환경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 내적인 행복의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직무만족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결과들과 일치한다(강흥구, 2006; 김용민, 2009; 김종환, 2013). 특히 Herzberg(1966)의 two-factor 이론에서 제시한 직무만족 요소와 직무불만족 요소들은 본 연구의 FGI, Delphi, Survey에 걸친 사회복지사의 행복의 요소와 일맥상통한다. 사회복지의 양적인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사회복지사 개인의 직무만족과 유데모니아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월평균 클라이언트 사례수나 근로시간 등의 객관적인 차원의 직무환경 요인들뿐 아니라 동료지지 등과 같은 주관적 차원의 요인들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침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가 높은 직무만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직의 유데모니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행복에 이바지하는 사회복지에 대해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사회복지전문가 10명 중 5명은 사회복지가 ‘매우 가치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국민은 10명 중 2명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사회복지가 경제수준, 교육, 고용, 인간관계, 신체건강, 정신건강 등 다양한 영역의 국민 행복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인식은 다소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 배태되어 있는 사회복지

에 대한 낮은 인식을 무리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상승적 연계(synergistic linkage)’ 전략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 것이다(Putnam, 1988). 즉, 사회복지가 국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보다 한 차원 아래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 대상자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높이는 전략을 의미한다.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인해 사회복지 대상자의 행복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야 한다. 이러한 외현화를 통해 한 차원 위인 사회복지가 국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국민 행복을 위해 사회복지의 가치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미시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변화를, 거시적으로는 사회적 정의 구현 및 평등권을 보장한다. 이러한 가치는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의 핵심 실천주체인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가치를 내재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계와 실천현장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등의 가치 관련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전문직이 지녀야 할 가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실천현장에서는 각 기관의 가치 관련 요소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이론과 실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와 국민 행복을 심층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유데모니아(eudaimonia) 측정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그동안 과학의 영역에서 행복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일시적이고 단편적이며 감각적인 행복 외에 장기적이고 전체적이며 정신적인 유데모니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현재까지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데모니아 척도를 번역하여 적용한 것은 본 연구가 최초이다.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사회복지 역시 매우 복잡해진다. 또한 사회복지를 통한 국민 행복의 경로 역시 분석하기 힘들만큼 매우 복잡해진다. 이러한 경로 속에서 행복의 개념은 매우 유동적이고 상대적으로 변하게 된다. 헤돈(hedon)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장기적인 목적성을 지닌 전체 삶 속에서의 행복인 유데모니아는 이러한 복잡성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역할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번역되어 국내화된 유데모니아 척도의 사용을 통해 사회복지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경험하는 유데모니아적 행복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 대상 양적 설문조사는 한정된 기관을 통해 수집되었기 때문에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갖출 수 있는 광범위한 표집을 통해 사회복지직 전반에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진 반면,

일반인 대상 연구는 설문조사의 분석을 통한 양적 연구만 행해졌다. 사회복지가 국민의 행복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연구가 추가되어 관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에 근거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했으므로 그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적인 결과를 확인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점으로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자기보고에 근거하고 있어 사회복지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스스로의 활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므로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태도를 연구함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제기한 사회복지 활동에서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가치와 보람, 행복과 성장, 그리고 유데모니아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가 국민행복에 이바지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제도적 보완 및 후속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제상, 고대유(2013),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3), 137-161.
- 강흥구(2006), “사회복지사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355-375.
- 고명철(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7(2), 1-30.
- 곽윤정(2015), “청소년의 행복감과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정서관리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227-237.
- 권선덕(2009),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권세원, 이애현, 송인한(2012), “청소년 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3(2), 39-72.
- 권중돈, 조학래, 윤경아, 이윤희, 이영미, 손의성, 오인근, 김동기(2016), 『사회복지개론』, 서울: 학지사.
- 김기덕(2009), “사회복지적 행복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93-305.
- 김기덕, 최소연, 권자연(2012),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서울: 양서원.
- 김성동(2006), “인간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접근”, 『대동철학』, 41, 51-77.
- 김용민(2009), 사회복지관의 조직풍토가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10), 328-338.
- 김용석, 고은정(2014), “사회복지 가치 척도의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66(1), 277-306.
- 김종환(2013),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8(8), 157-165.
- 김종희(2014), “농촌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 『한국노년학』, 34, 259-275.
- 남기철(2016),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역량 다양화의 쟁점”,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26.
- 문승연, 김춘희, 박희수(2013), “사회복지사 행복척도 개발 및 타당화”,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4), 35-64.
- 문승연, 최인숙(2011), “사회복지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5(1), 1-20.
- 박복남, 신수진, 이명희, 황은희, 강현임, 박경숙(2005), “웰빙 (Well-being) 에 대한 개념분

- 석”, 『여성건강』, 6(2), 165-178.
- 박용치(1991), “주관적 복지: 결정요인과 구조”, 『지역복지정책』, 5, 63-80.
- 박천익(2012), “한국의 복지정책현황과 복지모형”, 『영상저널』, 4(2), 24-49.
- 신경림(2004), 『질적 연구 방법론』,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양순미(2007),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행복에 관련변인이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17(2), 5-39.
- 윤강재, 김계연(2010),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보건복지포럼』, 86-98.
- 이인희(2004), “사회복지의 민영화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7(2), 160-182.
- 이정서, 이훈희, 황정은(2012), “사회복지사의 감성자본이 소진,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복지행정학』, 14(3), 79-103.
- 이종성(2006),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2008),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이제이북스.
- 이현주(2004), “사회복지사의 번아웃(Burnout)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논문.
- 이현주, 엄명용(2014), “저소득 우울 여성 독거노인 상 긍정심리·해결중심 통합 집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6(3), 101-131.
- 이훈구(1997), 『행복의 심리학: 주관적 안녕』, 서울: 법문사.
- 임영진(2013), “비자발적 내담자를 상으로 한 긍정심리치료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2), 383-396.
- 정순돌, 김성원(2012), “사회복지학 분야”, 『사회과학연구논총』, 27, 275-311.
- 지은구(2008), “사회복지민영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국사회정책』, 15(2), 99-143.
- 지은구(2009), “사회복지민영화의 비판적 검토”, 『비판사회정책』, (27), 35-78.
- 최명민, 현진희(2006), “의료사회복지사의 소진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8(1), 1-38.
- 최성재, 남기민(2006), 『사회복지행정론(개정 2판)』, 서울: 나남출판.
- 최소연, 염태산(2009), “사회복지전문가 자기효능감척도 타당도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2, 143-168.
- 최재성(200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81-200.
- 한인섭, 김정렬, 함요상, 권자경(2009), “공공서비스 연구동향 분석: 한국과 미국의 주요 학술지 비교(1995-200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1), 179-205.

- Brickman, P. E. & Campbell, D. T. (1971), "Hedonic Relativism and Planning the Good Society", In M. A. Appley(ed.), *Adaptation Level Theory*, New York: Academic Pres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2009),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In Ed. Diener(ed.), *Assessing Well-Being: The Collected Works of Ed Diener*, New York: Springer.
- Frey, B. S. (2008), *Happiness: A revolution in economics*, MIT Press Books, 1.
- Gainer, M. (2013), "Assessing Happiness Inequality in the Welfare State: Self-Reported Happiness and the Rawlsian Difference Princip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4(2), 453-464.
- Gray, M., & Webb, S. (2012), *Social work theories and methods*, Sage.
- HELLIWELL, J. F., HUANG, H., & WANG, S. (2017), "The Social Foundations of World Happiness", *WORLD HAPPINESS REPORT 2017*, 8.
- Herzberg, F. I., (1966), *Work and the nature of man*, England: Oxford.
- Ho, A., & Coates, P. (2004), "Citizen-Initiated Performance Assessment: The Initial Iowa Experience",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7(3), 29-50.
- Hull, G. H., & Kirst-Ashman, K. K.(2003), *The generalist model of human services practice*, Recording for the Blind & Dyslexic.
- Ignatieff, M. (1984), *Soviet war memorials*, In *History Workshop Journal* (No. 17, p. 157), Oxford University Press.
- John, O. P., & Srivastava, S. (1999),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102-138), New York: Guilford Press.
- Michelle K. Williamse., V. Bede Agochae., Su Yeong Kimf. & M. Brent Donnellang. (2010), "The Questionnaire for Eudaimonic Well-Being: Psychometric properties, demographic comparisons, and evidence of validity",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Vol. 5, No. 1, January 2010, 41-61.

- Osgood, C. E., G. J. Suci, and P. H. Tannenbaum.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Paul T. Costa. & RR McCrae.(2008),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NEO-PI-R).
-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Samuel D. Gosling., Peter J. Rentfrow., & William B. Swann Jr. (2003),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Five personality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2003) 504-528.
- Sirgy, M. J. (2001), *Handbook of Quality-of-Life Research: An Ethical Marketing Perspective*, Springer Netherlands.
- Sirgy, M. J., Gao, T., & Young, R. (2008), "How Does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ervices Influence Quality of Life (QOL) Outcome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3(2): 81-105.
- Teresa J. Rothausen. (2014), "Eudaimonic Job Satisfaction: Exploring Global and Facet Satisfaction with Fulfilled Job Purposes", University of St. Thomas, Minnesota working paper.
- Vansteenkiste, M., Simons, J., Lens, W., Sheldon, K. M., & Deci, E. L. (2004), "Motivating learning, performance, and persistence: the synergistic effects of intrinsic goal contents and autonomy-supportive contex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2), 246.
- Welsch, H. (2009), "Implications of happiness research for environmental economics", *Ecological Economics*, 68: 2735-2742.

토론내용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복지의 기능”에 관한 토론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본 역할과 가치, 그리고 유데모니아 -

조상미 *

1. 본 연구의 의의

-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긍정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가 국민행복에 어떠한 기여를 해왔는지, 사회복지의 기능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어떠한 가치 위에서 행해져 왔는지, 이러한 과정과 결과에서 느끼는 사회복지사의 행복과 유데모니아에 대해 조사한 연구임.
- **행복, 가치, 그리고 유데모니아** 같은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질적연구와 (FGI, Delphi) 양적연구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류, 개념화 및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문가, 일반국민 등 **다양한 대상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 점에서도 연구진의 노력과 고민이 엿보임.
- 따라서 매우 의미 있고 독창적인 연구라고 사료됨.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본 연구에 대한 소견

1)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각 연구질문에 대한 방법론의 당위성과 명확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방법론과 결과기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각 연구질문에 대한 대상과 방법론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러한 대상과 방법론의 당위성을 제시하면 좋겠음. 또한 한 표로 연구질문, 방법론과 대상을 명확히 정리하면 독자들의 이해가 용이하고 독창적이면서도 좀 더 명확한 기술이 될 것이라 사료됨.

예1) 예를 들어 방법론 파트(P7)에서 FGI는 사회복지종사자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의 기능과 가치는 무엇인가?’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하였다고 했는데, 결과 기술을 보면 사회복지전문직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에게는 사회복지가 국민 행복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보임(P13-17).

예2) 또한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의 관점에서 질문한 ‘사회복지의 가치’는 왜 꼭 이들에게만 질문해야 했는지도 의문임. 물론 이들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전문직의 관점, 그리고 일반인 대상이나 타 Human Service 종사자(의료현장, 학교, 요양시설 등)의 견해는 어떠했는지도 매우 궁금하고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됨.

예3) 양적 설문조사도 사회복지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방법론 파트에는 기술되어 있으나, 뒤 결과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전문직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사회복지실무자(근무경력 1년 이상), 사회복지 관리직(3년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사회복지실무자와 사회복지관리직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인은 사회복지의 가치와 기능에 대해 인식이 약할 것으로 보임. 즉 두 대상은 variation이 너무 적고, 한 대상은 상대적으로 두 집단에 비해 variation이 너무 큰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대상을 사회복지전문직, 타 Human Service 종사자, 그리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 일관된 질문을 던져 비교해 보았다면 어땠을까? 세 대상의 variation이 확보되고,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 특히 사회복지가 국민행복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무자 관점과 함께 실제 수혜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좋았을 것이라 사료됨.
- 3년 이상 된 사회복지 관리직은 사회복지전문가라고 하고, 1년 이상 된 사회복지 실무자는 사회복지종사자라고 칭하는데, 이러한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됨. 관리직을 대상으로 한다면 경험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 것

이라 사료됨.

3) 양적연구에서도 사회복지사에게는 “사회복지가 각 요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일반인구 대상으로 “현재의 행복, 5년 후의 행복,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및 가치, 필요성” 등의 질문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질문을 바꾸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 또 뒤 결과에서 보면 두 대상에게 다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종합하면

연구질문1 사회복지가 국민행복에 어떠한 기여를 해왔는지? - 수혜자나 타 Human Service 종사자 대상 질문

연구질문 2 사회복지의 기능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어떠한 가치 위에서 행해져 왔는지?

연구질문 3 이러한 과정과 결과에서 느끼는 사회복지사의 행복과 유데모니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전문직을 대상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면 더 의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임.

또한 연구질문 중심으로 초점내용을 정리하고, 유데모니아 패러다임 모형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5) 또한 어떠한 질문은 대상 간 비교를 할 것이고, 어떠한 질문은 대상특화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함.

- 사회복지와 국민행복 파트에서 보면, 사회복지사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비교해 놓았는데, 그 이후에는 일반 국민과의 인식을 비교하지 않고 있음. 큰 질문들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질문들은 일반 국민들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복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본 연구의 초점을 아니라고 사료됨.
-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기술 분석 외에 t-test를 통한 통계적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라 사료됨.
- 또한 사회복지사의 행복한 경험 등은(p28) Graph로 표시해서 그 내용을 더 강조하면 좋겠음.

6) 양적연구에서 직무만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질문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물론 그 자체로 필요하고 재미있는 질문이나 본 연구의 대질문과의 연관성이 약함.

7) 사회복지사의 보람과 행복, 유데모니아를 연구한 점이 본 연구의 큰 강점과 차별점이라고 생각되나, 여전히 사회복지사의 행복에 대한 본 연구의 초점은 약하다고 사료됨.

-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행복보다 각 서비스 분야에서 사회복지사가 국민 행복에 미친 영향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이 또한 사회복지직의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어 감동이 조금 약한 면이 있음.

8) 연구질문 3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경험한 보람과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좀 더 초점을 가지고, 사회복지전문가에게 심층적으로 질문하여 유데모니아 패러다임 모형에 이르게 된 과정을 좀 더 impact 있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 패러다임 모형의 중심현상은 여전히 부정적인 현상을 중심으로 하고 유데모니아를 결과로 보고 있는데, 연구질문과의 일관성과 본 연구의 독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행복과 가치를 중심에 놓고, 어떤 때 행복감과 가치를 느끼는지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사회복지사가 어떤 때 행복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크게 던지고, 구체적인 요소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 패러다임 모형에 이르게 된 질문을 개방하고 그 답을 통해 요소들을 찾아나가면 좋겠음.

3. 본 연구에 대한 기대 및 마무리

본 연구의 제목에서 행복과 유데모니아라는 단어를 보고 매우 흥미를 느꼈음. 특히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그간 사회복지사는 봉사자나 헌신으로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암묵적 기대를 종종 받아왔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행복과 유데모니아에 대한 연구는 전무했음.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대단히 크고, 사회복지사의 행복과 유데모니아를 중심에 놓고, 좀 더 초점을 가지고 연구질문과 결과를 정리하면 좋겠음.

결국에는 행복한 사람이 많은 사회가 복지사회 아닐까? 그런데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하지 않다면, 이 사회가 과연 복지사회 일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됨을 느낀다. 내가 가장 불쌍하다고 여길 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보일 리가 없고 서로 내 스스로가 불쌍하다고 여기면 대화 또한 단절되기 십상이다. 남을 돕는 “사회복지”라는 학문을 하다 보니 아이러니컬하게도 새삼 사회복지사 자신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행복과 유데모니아에 대해 이끌어내고 연구한 점에서 본 연구진의 고민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추후 연구는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국민행복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전제로 사회복지사의 행복감, 유데모니아와 국민행복 기여도를 조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좋은 연구를 토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본 연구가 더 정리되고 발전되어 더욱 멋진 작품으로 탄생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 주 제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불균형과 시민의 삶의 질[†]

장용석 * · 김희성 **

1. 서론

최근 한국사회에서 부상한 사회적 의제 중 하나는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의제로 급부상한 이후 한국의 정치담론에서 주변부에 위치했던 복지는 지배적 담론의 지위를 획득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던 아동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2011년을 기점으로 전 계층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보편주의적 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012년에는 취학 전 아동에게 무상보육·교육을 제공하는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큰 진전이 이루어졌고, 같은 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일부 계층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보장형 복지국가 건설을 국정기조로 내세워 추진해 왔다. 그리고 진보진영으로 정권교체가 된 최근의 정치치형에서도 사회복지 정책의 대폭적인 강화가 예견되고 있다.

근래 크게 진전된 사회복지 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와 빈곤 등 심화하는 사회적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주로 중앙정부가 주도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률적인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또 다른 공급주체인 지방정부의 복지노력(welfare effort)에 대한 관심과 주목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듯하다.

† 이 원고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황정윤, 엄영호, 김미현, 손선화 와 공동 작업한 결과물임.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사회복지 영역에서 정치적·행정적 분권화가 제도화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1991년 지방의회 구성 및 1995년 자치단체장 선출을 통해 정치적 분권화가 제도화된 이후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해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강혜규, 2008). 이 시기에 지역사회복지 개념의 법적 명문화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 의무화, 주민생활서비스 행정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의 대폭적인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 신설 등 여러 제도적 개혁이 전개되면서 지방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사회복지 분권화를 통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사업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극복하고 주민욕구에 기초한 복지정책의 수립,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 복지공급의 다원화를 통한 공급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재완, 2016).

본 연구는 이러한 복지 공급 분권화의 맥락에서 지방정부 간에 존재하는 복지노력의 격차, 즉 사회복지 불균형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후생 제고를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한 차별화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 간 복지노력은 상이할 수 있다(Ebel & Yilmaz, 2003). 중앙정부가 기획한 복지사업의 단순한 집행자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복지사업을 기획·집행하는 것이 요구되면서(강혜규 외, 2015), 그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노력의 편차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방정부 간의 복지노력의 격차는 궁극적으로 불평등의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류진석, 2000; 김병록, 2008).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탐색적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정부 복지노력 간의 연계성에 대한 동학에 초점을 두고 다음의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지역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의 편차와 변화추이는 어떠한가? 그리고 지방정부의 복지노력, 즉 지방정부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노후)과 여성·가족 영역을 중심으로 경험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의 단위는 전국 15개 광역정부이며, 분석의 대상은 객관적·주관적 지표로 측정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다. 특히 광역시도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과 자체사업 예산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복지노력과 삶의 질 간에 발생하고 있는 동적인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연계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지방정부 복지정책 방향과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2. 연구방법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업 영역은 통상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노인(노후), 아동·청소년, 여성·가족, 장애인, 주거, 노동, 의료(보건)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신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두 영역, 즉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여성의 돌봄 및 경제활동 변화에 주목해 노인(노후)과 여성·가족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지방정부 간 삶의 질 격차를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삶의 질은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 측정 방식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객관지표 접근법(objective indicators approach)과 주관지표 접근법(subjective indicators approach)으로 구분된다(Dissart & Deller, 2000; Evans, 1994; 송건섭·권용현, 2008; 고명철, 2013: 245 재인용). 객관지표는 개인, 집단, 사회적 환경에 대한 상황을 서술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주관지표는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강조한다. 최근 이들 두 가지 종류의 지표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인식하에서 통합적인 접근법이 강조되고 있다(고명철, 2013). 이러한 논의에 기초해 본 연구는 노인(노후) 및 여성·가족에서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지표를 선정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신뢰성을 인정받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작성한 대규모 패널자료를 활용해 지방정부 간 삶의 질 수준과 편차의 동적인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자 했다. 노인(노후)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고용정보원이 작성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바탕으로 만 60세 이상의 만성 질환 유병률, 사회활동 참여율, 문화활동 참여율,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전반적인 삶의 질(행복감)의 6가지 객관적·주관적 지표를 선정해 분석했다. 여성·가족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한 ‘여성가족연구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여성 대비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 및 돌봄노동 시간, 여성의 주관적 경제상태와 건강상태를 삶의 질의 측정문항으로 활용했다.

〈표 1〉 지역 주민 삶의 질 및 행복도 측정체계

영역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활용자료(분석기간)
노인(노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질환 유병률 - 사회활동 참여율 - 문화활동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경제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전반적인 삶의 질(행복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006, 2014)
여성·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 - 남성의 돌봄노동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주관적 경제상태 -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 	여성가족연구패널조사 (2009, 2011, 2013)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방정부 복지노력의 관계에 관한 연계분석은 15개 광역시도의 사회복지 지출예산 자료에 기초한다. 이를 위해 설정된 분석기간 동안 15개 광역시도의 결산 기준 예산서에서 전수 조사한 노인(노후)과 여성·가족에 관련된 사업 지출 규모 자료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주도해 추진하는 국고보조 사업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기획해 추진하는 사회복지 자체사업을 구분하고, 중앙정부의 복지노력과 지방정부의 복지노력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국고보조금과 자체사업의 예산을 합산한 총량적 접근을 시도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지방정부의 고유한 재정적 복지노력을 포착하고자 한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3. 지방정부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1) 노인(노후) 영역

먼저, 노후의 삶의 질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광역시도 단위 지방정부 간에서 삶의 질의 격차는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만 60세 이상 응답자가 답변한 ‘한국고령화연구패널’ 2006년과 2014년 자료에 기초해 삶의 질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표 2〉에서와 같이, 만성질환 유병률, 사회활동 참여율, 그리고 문화활동 참여율로 측정

〈표 2〉 노인(노후) 관련 객관적 지표 현황

지표	내용	2006년	2014년	삶의 질 수준	지역 간 삶의 질 편차
만성질환 유병률	평균	0.739	1.026	악화	확대
	변동계수	0.150	0.192		
사회활동 참여율	평균	0.882	0.936	정체	다소 축소
	변동계수	0.141	0.138		
문화활동 참여율	평균	0.981	1.238	개선	축소
	변동계수	0.369	0.294		

주1. T-test 결과 객관적 세 가지 지표 중 만성질환 유병률, 문화활동 참여율은 두 연도간의 평균 차이가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주2. 2006년과 2014년 지표별 표본규모는 만성질환 유병률은 각각 5,547, 5,071, 사회활동 참여율은 각각 5,549, 5,314, 문화활동 참여율은 각각 5,192, 5,309임.

된 객관적 지표 측면의 삶의 질 수준은 다소 혼재된 양상이다. 2006년~2014년의 기간 동안 노인의 건강상태는 다소 악화되고 사회활동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문화활동은 다소 활발해졌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자.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 심장질환 등 7개의 노인성 질환 유무로 측정된 만성질환 유병률은 2006년 0.739개에서 2014년 1.026개로 악화되었다. 사회활동, 종교모임, 친목모임 등 각종 단체 참여여부로 측정된 사회활동 참여율 또한 2006년 0.882개에서 0.936개로 정체된 수준이다. 반면, 지난 1년 동안 여행, 관광이나 영화, 공연 등의 참여 횟수로 측정된 문화활동 참여율은 2006년 0.981회에서 2014년 1.238회로 다소 증가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일한 응답자를 계속 조사한 패널자료의 특성을 일정부분 반영한다. 즉, 2006년과 2014년 8년의 시간 동안 응답자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노인성 질환이 더 발생하고 그에 따라 사회활동 또한 저조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신체적 부담이 적은 문화활동 참여가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노인의 객관적 삶의 질 지표에 있어 지방정부 간에 삶의 질 편차는 어떠할까. 앞서 해당 기간 동안 악화된 양상을 보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광역 시도별로 그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활동 참여율과 문화활동 참여율로 살펴본 지방정부 간 삶의 질의 편차는 다소 축소되었다. 다시 말해, 거주 지역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 문화 활동 차이는 줄어든 반면, 노인의 노후 건강 수준에는 지역별 차이가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시도별 수치를 살펴보면 보다 명확하게 확인된다.

가령,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2006년 사회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인 전북 지역에서는 노인들은 평균 1.105개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4년의 1.048개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2006년 가장 낮은 사회활동 참여율을 보인 충북 지역에서는 사회활동 참여율이 2006년 0.687개에서 2014년 0.995개로 증가했는데,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최상위와 최하위 간의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문화활동 참여율에 있어서도 유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문화활동 수준이 1년에 평균 1.493회로 가장 높았던 강원도는 2014년에도 1.292회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2006년 0.222회로 최하였던 충북은 2014년 0.945회로 그 수준이 대폭 증가했다. 반면, 만성질환 유병률에서 2006년 0.906으로 유병 수준이 가장 높았던 인천과 0.554로 가장 낮았던 충남은 2014년에 각각 1.234와 0.658의 유병률을 보여 지역 간 차이가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노후의 주관적 삶의 지표는 어떤 양상을 보일까. 주관적 삶의 지표는 ‘동년배

〈표 3〉 노인(노후) 관련 주관적 지표 현황

지표	내용	2006년	2014년	삶의 질 수준	지역 간 삶의 질 편차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	49.474	54.501	개선	다소 확대
	변동계수	0.067	0.073		
주관적 경제상태	평균	43.740	52.397	개선	다소 확대
	변동계수	0.105	0.109		
전반적 삶의 질 (행복감)	평균	58.660	60.016	정체	확대
	변동계수	0.048	0.061		

주1. T-test 결과 주관적 지표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가 두 연도간의 평균 차이가 9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주2. 세 가지 주관적 지표 모두 그 표본규모가 2006년과 2014년 각각 5,549, 5,311임.

와 비교할 때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된 주관적 건강상태(100점 만점), 마찬가지로 '동년배와 비교할 때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주관적 경제상태(100점 만점), 그리고 '동년배와 비교할 때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행복감)'(100점 만점)을 나타내는 3가지 삶의 질 항목이다.

〈표 3〉에서와 같이, 2006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경제상태 모두 소폭 상승해 주관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은 유사하게 나타나 정체된 양상이다. 동년배, 즉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응답자들의 평가한 삶의 질이 양 기간 동안 소폭이나마 개선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0점에서 100점으로 측정된 절대적인 잣대에서 평가해 보면 노후의 삶의 질이 높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2014년 주관적 건강상태는 54.501점, 주관적 경제상태는 52.397점으로 보통이라 할 수 있는 50점을 다소 상회하고 있고, 2014년에 60.016점으로 나타난 전반적인 삶의 질 또한 비슷한 양상이다.

더불어 주목이 필요한 대목은 바로 지방정부 간 삶의 질의 편차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전반적인 삶의 질 모두에 있어 광역시도 간 삶의 질 편차는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지표에 비해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행복감)에서 지역별 편차 확대가 두드러진다. 가령, 15개 시도 가운데 2006년에 61.823점으로 최상위 권이었던 대전은 2014년에 소폭 상승한 65.514점인 반면, 2006년에 55.067점으로 최하위 권에 속한 서울은 2014년에 51.882점으로 하락하였다.

종합해 보면, 노후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의 추이 분석에서 부정적으로 확인된 측면은 만성질환으로 대표되는 노후 건강 문제의 전반적인 악화였고, 특히 지역별로 건강에

있어서 삶의 질의 편차가 확대된 것이었다. 다만, 문화활동 참여율의 경우 삶의 질 수준이 개선되어 왔고 지방정부 간 편차 또한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노후의 주관적 삶의 질은 대체로 소폭 제고되어 온 양상이나 절대적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전반적 삶의 질은 지역 간 격차가 뚜렷이 확대되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질은 최근 약 10년 동안 더디게 향상되어 온 가운데, 지역 간 격차는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2) 여성·가족 영역

다음은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본 삶의 질의 변화추이와 지방정부 간 삶의 질의 편차를 ‘여성가족패널’ 2009년과 2013년 자료에 기초해 삶의 질과 관련된 객관적·주관적 측면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측면에서의 기혼여성의 삶의 질을 남성과 여성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있어 얼마나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지를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우선,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청소나 설거지 등 집안일에 소요한 평균 가사노동 시간을 남녀별로 각각 계산한 후, 여성 대비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 분담 수준을 측정했다. 남성의 돌봄노동 분담수준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자녀, 노부모 등을 돌보는 데 소요된 여성 대비 남성의 상대적인 돌봄노동 시간이다.

〈표 4〉에서와 같이, 2009년에서 비해 2013년에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정도는 증가한 반면, 2011년 대비 2013년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 정도는 정체 상태에 있다.¹⁾ 구체적으로 2009년에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의 약 15.6%였지만, 2013년에는 22.3%로 소폭 증가했다. 돌봄노동에서는 2009년과 2013년 각각 남성은 여성에 비해 25.6%와 28.3%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추이로 보면 적어도 가사노동과 관련된 여성의 삶의 질은 다소나마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투입하는 남성의 노력은 여성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가정 내에서 성평등한 역할관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분담구조를 보면, 특히 광역 시도 단위에서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2013년을 기준으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수준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시도는

1) ‘여성가족패널’은 2011년부터 돌봄노동 시간과 관련된 설문문항을 포함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차를 두고 분석한 결과이므로 해석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표 4〉 여성·가족 관련 객관적 지표 현황

지표	내용	2009년	2013년	삶의 질 수준	지역 간 삶의 질 편차
여성 대비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	평균	0.156	0.223	개선	소폭 축소
	변동계수	0.348	0.345		
여성 대비 남성의 돌봄노동 시간 ¹⁾	평균	0.256	0.283	정체	확대
	변동계수	0.281	0.336		

주1. 분석에 활용된 여성가족패널 자료 중 돌봄노동 시간에 대한 조사는 2011년부터 이루어짐에 따라, 돌봄노동 시간의 분석 시기는 2011년-2013년으로 함.

주2. T-test 결과 객관적 지표 중 가사노동 시간은 두 연도간의 평균 차이가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주3. 가사노동 시간의 표본규모는 2009년 9,705, 2013년 10,058이며, 돌봄노동 시간은 2011년 9,920, 2013년 10,058임.

대전(0.424), 부산(0.370), 울산(0.269)이며, 최하위 3개 시도는 대구(0.136), 전남(0.140), 충북(0.157)이다. 최상위인 대전의 남성들은 최하위인 충북의 남성에 비해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가 약 3배에 이른다. 돌봄노동에서도 최상위 권은 경남(0.525), 경기(0.473), 울산(0.356)이며, 최하위 권에는 강원(0.169), 대구(0.183), 광주(0.219)가 속해 있는데, 최상위 경남과 최하위 강원의 차이 또한 약 3배로 확인된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분담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은 지금까지 크게 주목하지 못했던 측면이다. 이러한 결과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관련된 지역문화의 차이부터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정 내 성평등한 역할의 재정립과, 더 나아가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의 가사·돌봄 노동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기혼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은 현재 자신의 경제상태와 건강상태에 관한 주관적 평가를 지표로 설정했는데, 두 항목 모두 1점(매우 나쁘다)에서 5점(매우 좋다)까지 총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이다.

〈표 5〉에서 보듯, 2009년 대비 2013년 여성의 주관적 경제상태는 다소 개선되었지만, 2013년 기준에서 볼 때 그 값이 보통을 나타내는 3점 미만인 2.783점으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 기준 보통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3.478점이다.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2009년에 비해 2013년에 주관적 경제상태는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된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는 소폭 감소하는 양상이다. 다시 말해, 기혼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은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가운데 지역에 따른 삶의 질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4년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

〈표 5〉 여성·가족 관련 주관적 지표 현황

지표	내용	2009년	2013년	삶의 질 수준	지역 간 삶의 질 편차
여성의 주관적 경제상태	평균	2.684	2.783	개선	확대
	변동계수	0.029	0.045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	3.547	3.478	악화	소폭 축소
	변동계수	0.053	0.051		

주1. T-test 결과 주관적 지표는 모두 두 연도간의 평균 차이가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주2. 주관적 경제상태와 건강상태의 표본규모는 각각 2009년 9,723, 2013년 10,058임.

라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다소 악화되었다는 점 또한 부정적인 대목이다.

광역시도별 결과를 살펴보면 주관적 경제상태에서 나타나는 삶의 질 격차 추이를 재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주관적 경제상태 수준 상위 3개 지역은 울산(2.847), 부산(2.837), 대구(2.741) 순이며, 하위 3개 지역은 전북(2.570), 대전(2.596), 경북(2.598)이다. 2013년의 경우 주관적 경제상태 수준 상위 3개 지역은 울산(3.000), 충남(2.993), 전남(2.869)이 해당되며, 하위 3개 지역은 경기(2.578), 인천(2.592), 강원(2.654)이다. 2009년 최상위 울산(2.847)과 최하위 전북(2.579)의 차이에 비해 2013년 최상위 울산(3.000)과 최하위 경기(2.578)에서 그 차이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9년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 상위 3개 지역은 대구(3.921), 경기(3.781), 인천(3.685) 순이며, 하위 3개 지역은 전북(3.219), 전남(3.225), 충남(3.346)이다. 2013년의 경우 상위 3개 지역은 경기(3.752), 대구(3.727), 대전(3.683)이며, 하위 3개 지역은 전남(3.096), 전북(3.210), 강원(3.349)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 삶의 질은 4년간의 시차를 두고 측정된 것이므로 분석결과를 확정된 추이로 결론짓는 것은 무리이다. 그럼에도 기혼 여성의 삶의 질 수준은 객관적·주관적 지표 모두에서 사회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남성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참여는 여성에 비해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주관적 삶의 질에서도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점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보통수준을 하회하고 있고, 지역 간 편차 또한 확대되는 양상이다.

4. 지방정부 간 복지노력과 삶의 질 연계분석

1) 노인(노후) 영역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복지노력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광역정부 총 15개를 대상으로 노인 영역의 세출예산을 파악하였다. 앞서 삶의 질 분석에서 노인 영역의 지표들은 2006년과 2014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복지노력과 시민의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이루어진 예산지출을 살펴본다.²⁾ <표 6>은 노인(노후)과 관련해 15개 시도에서 2009년부터 2013년의 기간 동안 노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중앙정부 주도의 국고보조 의무지출 복지사업과 광역시도 자체 재원을 활용해 단독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세출예산의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³⁾

2009년에서 2013년의 기간 동안 15개 광역시도는 전체 노인복지사업에 대해 평균 3,146억 원을 지출해 왔다. 같은 기간 동안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 평균은 각각 2,612억 원, 533억 원이다. 이는 노인 영역에서 지출된 전체 예산 중 각각 83.08%, 16.95%에 해당하는 것으로 광역정부의 재정적 복지노력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2009년에서 2013년 동안 집행된 세출예산의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2,800억 원이었던 노인복지 사업예산은 2013년에 3,500억 원으로 25.19% 증가하여, 연평균 5.78%의 증가율(CAGR)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보조예산 지출은 2009년 2,286억 원에서 2013년 2,958억 원으로 29.36%가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 지출은 같은 기간 동안 514억 원에서 543억 원으로 5.79% 증가에 그쳤다. 보조예산과 자체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6.65%와 1.42%로 약 5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인 것이다.

광역정부의 노인복지 사업예산 추이에서 특기할 점은 보조사업 예산이 증가할수록 자체사업 예산이 감소해 양자가 일부 상충되는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 영역에서의 국가 복지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정부 기준보조율이 유지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분담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노인 복지사

2)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 지표 분석은 2006년과 2014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정부별 복지사업 예산지출 또한 같은 기간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2006년-2008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방정부별 세출예산의 자료를 공개·제공하지 않는 지방정부가 다수 존재하여 전수조사가 가능한 2009년-2013년 세출예산 자료에 기초하여 이후 복지노력과 삶의 질 연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제주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예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연계 분석에 활용된 일부 지표의 응답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6〉 15개 광역시도 노인복지 사업예산 규모 및 총예산 대비 비중¹⁾

(단위: 백만 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전체 평균	279,650 (5.11)	300,552 (5.18)	317,448 (5.27)	324,521 (5.06)	350,103 (5.14)	314,455 (5.15)	5.78 (0.15)
보조예산 평균	228,642 (4.20)	247,653 (4.26)	263,658 (4.35)	270,442 (4.22)	295,773 (4.25)	261,234 (4.26)	6.65 (0.30)
자체예산 평균	51,357 (0.92)	52,870 (0.91)	53,790 (0.91)	54,079 (0.84)	54,330 (0.79)	53,285 (0.87)	1.42 (-3.74)

주1. 15개 광역시도 노인복지 사업예산 규모는 각 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최종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했고, 총예산 대비 비중은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기준 총 예산 대비 국고보조 사업과 자체사업 예산의 비중임.

업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재원 증가로 이어졌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하능식, 2013). 가령, 2008년에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현재 기초연금) 등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입된 바 있고, 이는 대응지방비의 상승을 유발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체 복지노력을 위축시켰다. 실제로 2009년에서 2013년 동안 노인복지사업이 보조예산과 자체예산이 광역정부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26%, 0.87%였으나, 보조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0.3%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자체예산은 연평균 -3.74%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노인(노후) 관련 복지예산과 삶의 질 지표와의 연계분석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노력과 객관적·주관적 측면에서 시민의 삶의 질과의 관계를 탐색적인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했다. 실증 분석은 다음의 세 단계를 통해 진행되었다. 우선 지방정부의 삶의 질 향상 정도를 상대적인 차원에서 비교하기 위해 객관적·주관적 지표를 표준화한 후, 각 지표에 있어 평균 이상의 개선을 나타낸 광역시도와 평균 미만의 개선을 보인 광역시도를 구분했다. 다음으로 광역 시도의 누적된 복지노력을 상대적인 차원에서 비교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고보조사업 예산과 자체사업 예산이 해당 기간 동안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표준화한 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 예산비중과 자체사업 예산비중이 평균 이상인 시도와 평균 미만인 시도를 구분했다. 끝으로 보조사업 예산의 상대적 비중과 자체사업 예산의 상대적 비중을 각각의 축으로 한 사분면을 구분하고, 각 사분면에 속하는 광역시도에서 삶의 질 지표의 향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조사업 예산과 자체사업 예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각화한 것이 〈그림 1〉이다.

〈표 7〉을 보면 각 지방정부별로 삶의 질에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향상된 지표가

상대적 많음	개선지표 평균 (전체: 3, 객관: 1, 주관: 2) 서울(2), 부산(4), 대구(4), 인천(0), 광주(3), 대전(5)	
자체 사업 예산	개선지표 평균 (전체: 2, 객관: 2, 주관: 0) 울산(2), 경기(2)	개선지표 평균 (전체: 3.3, 객관: 1.1, 주관: 2.1) 강원(0), 충북(4), 충남(5), 전북(3), 전남(3), 경북(4), 경남(4)
상대적 적음	상대적 적음	상대적 많음
	보조사업 예산	

- 주1. 개선지표 평균은 해당 부문에 위치하는 시도에서 상대적으로 개선된 삶의 질 지표의 평균을 의미하며, 시도별에서 괄호 안은 15개 시도의 개선수준 평균을 상회하는 지표의 숫자를 의미함.
- 주2. 보조사업 예산, 자체사업 예산은 총 예산 대비 비중을 표준화(standardized value)하여 비교한 것임.

〈그림 1〉 노인(노후) 관련 복지예산-삶의 질 지표 연계 분석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2006년에서 2014년 동안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 향상에서 우위를 보인 지역은 6개의 지표 가운데 5개의 지표가 상승한 대전과 충남이다. 반면, 인천과 강원은 모든 지표가 평균 미만의 상승세를 보여 상대적으로 열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발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재정적 복지노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재정적 복지노력이 클수록, 즉 총예산 대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할수록 삶의 질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개선된 지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4사분면(보조사업 예산 많고 자체사업 예산 적음)에 속한 시도에서 평균 이상으로 상승한 삶의 질 지표는 강원 0개, 충북 4개, 충남 5개, 전북 3개, 전남 3개, 경북 4개, 경남 3개로, 7개 시도에서 상대적으로 개선 우위에 있는 지표의 평균은 3.3개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재정적 복지노력이 비교적 낮은 2사분면(보조사업 예산 적고 자체사업 예산 많음)⁴⁾에 해당되는 6개 시도의 개선지표 평균은 3개(서울

4) 노인 영역의 경우 보조사업 예산 지출이 자체사업의 예산 지출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4사분면(보조사업 예산 많고 자체사업 예산 적음)에 속한 지역이 2사분면(보조사업 예산 적고 자체사업 예산 많음)의 지역

〈표 7〉 15개 광역시도 노인(노후)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상대적 비교¹⁾

상대적 예산규모	지역	재정 자립도 ²⁾	만성질환 유병률	사회활동 참여율	문화활동 참여율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전반적인 삶의 질
보조사업 低 자체사업 高	서울	87.7	.	0	0	.	.	.
	부산	51.8	.	.	0	0	0	0
	대구	46.5	.	.	0	0	0	0
	인천	64.6
	광주	40.1	.	.	.	0	0	0
보조사업 低 자체사업 低	대전	52.2	0	0	.	0	0	0
	울산	62.7	.	0	0	.	.	.
	경기	60.1	.	0	0	.	.	.
	강원	21.8
	충북	27.4	0	0	0	0	.	.
보조사업 高 자체사업 低	충남	29.4	0	0	.	0	0	0
	전북	19.1	.	.	0	0	.	0
	전남	16.3	.	.	.	0	0	0
	경북	22.2	0	.	.	0	0	0
	경남	34.4	.	0	.	0	0	0

주1. '0'표시는 해당 시도가 각 삶의 질 지표에서 15개 시도의 평균적 개선 수준을 상회한다는 것을 의미함.

주2. 재정자립도는 2013년 기준임.

2개, 부산 4개, 대구 4개, 인천 0개, 광주 3개, 대전 5개)이며, 재정적 복지노력이 가장 부족한 3사분면(보조사업 예산 적고 자체사업 예산 적음)에 속한 2개 시도의 평균 개선지표는 이보다 낮은 2개로 파악되었다.

둘째, 지방정부의 복지노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세부 지표에 따라 차별적 효과를 나타낸다. 사실 지방정부의 복지노력과 삶의 질과의 긍정적 관계는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를 재확인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재정적 복지노력의 확대가 세부적인 삶의 질 지표에서 고른 향상을 가져오고 있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가령, 4사분면에 속한 충남은 6개 지표 가운데 문화활동 참여율의 상승도는 평균 미만인 반면, 전남과 전북은 공통적으로 만성질환 유병률과 사회활동 참여율 지표에서 개선 열위를 보이고 있다. 즉 동일한 복지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지역적 차이에 따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은 달라지므로, 복지사업에 있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다양한 노인 복지사업들이 궁극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획·집행에서의 합리성을

들에 비해 재정적 복지노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함의한다.

끝으로, 지방정부의 복지노력은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 상대적으로 객관적 측면보다는 주관적 측면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자체사업 예산은 모두 적지만 보조예산은 많은 4사분면과 보조예산이 적은 3사분면을 비교해 보면, 4사분면에서 개선된 주관적 지표는 2.1개인 반면, 3사분면에서는 이보다 적은 0개로 나타났다. 같은 방식으로 2사분면과 3사분면을 비교해 봐도 전자에서 더 많은 주관적 지표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부의 복지노력은 주관적 측면의 삶의 질 향상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지만, 반대로 객관적 측면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객관적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즉, 노인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여성·가족 영역

다음으로 여성·가족 영역을 살펴보자. <표 8>은 여성·가족과 관련해 15개 시도에서 2009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세출예산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⁵⁾ 2009년에서 2012년의 기간 동안 15개 광역시도는 전체 여성·가족 복지사업에 매해 평균 234억 원을 지출해 왔다. 같은 기간 동안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 평균은 각

<표 8> 15개 광역시도 여성·가족복지 사업예산 규모 및 총예산 대비 비중¹⁾ (단위: 백만 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
전체 평균	17,349 (0.32)	23,063 (0.41)	25,812 (0.48)	27,244 (0.48)	23,367 (0.42)	16.23 (14.47)
보조예산 평균	10,159 (0.20)	14,779 (0.29)	18,494 (0.36)	18,724 (0.36)	15,539 (0.30)	22.61 (21.64)
자체예산 평균	7,190 (0.12)	8,284 (0.12)	7,318 (0.12)	8,520 (0.12)	7,828 (0.12)	5.82 (0.00)

주1. 15개 광역시도 여성·가족복지 사업예산 규모는 각 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최종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했고, 총예산 대비 비중은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기준 총 예산 대비 국고보조 사업과 자체사업 예산의 비중임.

5) 여성·가족 영역의 경우 노인 영역과 달리 삶의 질 지표의 분석 기간이 2009년~2013년이므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복지노력을 나타내는 세출예산은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2009년~2013년이 아닌 2009년~2012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155억 원, 78억 원으로 보조사업 예산규모가 자체사업 예산규모에 비해 약 2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인 영역의 복지사업과 달리 여성·가족 복지사업은 광역지방정부의 전체 예산에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2%에 불과해 여성·가족 분야에서의 복지노력은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나타난 광역정부의 복지노력은 거의 절대적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복지사업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이 시기에 신설된 대표적인 국고보조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200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2007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2008년) 등이다. 2009년 평균 102억 원이었던 여성·가족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12년에 평균 187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2.61%인 반면, 자체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72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5.82%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물론 여성·가족 영역이 노인 영역과 비교할 때 보조예산 대비 자체예산의 상대적 크기는 큰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예산에서 여성·가족 자체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1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15개 광역시도의 평균적인 복지노력은 정체된 양상이다.

앞서 살펴본 노인(노후) 관련 복지예산과 삶의 질 지표와의 연계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성·가족 영역에서의 상대적인 재정적 복지노력과 기혼여성의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표 9>에서와 같이, 기혼여성의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에 있어 지방정부별로 상대적인 성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 울산, 충남, 전북, 경남은 4개의 지표 가운데 3개 이상의 삶의 질 지표가 평균 이상으로 개선된 반면, 서울과 대구, 강원에서는 모든 지표가 평균 미만의 개선 정도를 나타냈다.

여성·가족 영역의 복지예산 지출과 삶의 질 향상 간의 관계를 시각화한 것이 <그림 2>이다. 앞서 노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정력 복지노력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일반적인 믿음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1사분면(보조사업 예산 많고 자체사업 예산 많음)에 속한 광주, 울산, 강원에서는 개선된 지표의 평균이 1개로서, 유일하게 울산만이 3개의 삶의 질 지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4사분면(보조사업 예산 많고 자체사업 예산 적음)에 속한 대전, 충남, 충북, 전북, 경남에서는 평균 3개의 삶의 질 지표가 개선됐고, 2사분면(보조사업 예산 적고 자체사업 예산 많음)에 속한 부산, 인천, 경기에서는 평균 2개의 삶의 질 지표가 개선됐다. 1사분면에서의 결과를 제외하고 본다면, 보조예산이 동일하게 적더라도 자체사업의 증가는 삶의 질의 수준을 높이며(2사분면, 3사분면), 자체사업 예산이 적더라도 보조사업의 예산의 증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3

〈표 9〉 15개 광역시도 여성·가족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상대적 비교¹⁾

상대적 예산규모	지역	재정 자립도 ²⁾	여성 대비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	여성 대비 남성의 돌봄노동 시간	여성의 주관적 경제상태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
보조사업 高 자체사업 高	광주	41.1
	울산	63.7	0	0	0	.
	강원	22.5
보조사업 低 자체사업 高	부산	52.9	0	0	.	.
	인천	70.4	0	0	.	.
	경기	61.7	.	0	.	0
보조사업 低 자체사업 低	서울	88.7
	대구	47.6
	전남	14.6	.	.	0	.
	경북	22.5	.	.	0	0
보조사업 高 자체사업 低	대전	52.7	0	0	0	0
	충북	27.6	.	0	0	.
	충남	28.6	0	.	0	0
	전북	21.1	.	0	0	0
	경남	36.6	0	0	0	.

주1. '0'표시는 해당 시도가 각 삶의 질 지표에서 15개 시도의 평균적 개선 수준을 상회한다는 것을 의미함.

주2. 재정자립도는 2012년 기준임.

사분면, 4사분면).

여성·가족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복지노력과 삶의 질 관계가 다소 불분명하게 나타난 것에는 적어도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탓으로 풀이된다. 먼저, 사업 예산이 적은 탓이다. 〈표 8〉에서 살펴볼 수 있듯, 여성·가족 영역의 사업 예산은 노인 영역 등 다른 영역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작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가족 분야의 경우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일부 사회적 취약 계층에 국한된 사업들이므로, 사업의 파급효과가 여성 전체 계층에서 나타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여성·가족 정책의 재원확충을 전제로 정책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관련 복지예산과 삶의 질 지표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게, 여성·가족 영역에서도 재정적 복지노력에 따른 삶의 질 개선은 다양한 세부 측면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가

상대적 많음	개선지표 평균 (전체: 2, 객관: 1.67, 주관: 0.33) 부산(2), 인천(2), 경기(2)	개선지표 평균 (전체: 1, 객관: 0.67, 주관: 0.33) 광주(0), 울산(3), 강원(0)
	개선지표 평균 (전체: 0.75, 객관: 0, 주관: 0.75) 서울(0), 대구(0), 전남(1), 경북(2)	개선지표 평균 (전체: 3, 객관: 1.4, 주관: 1.6) 대전(4), 충북(2), 충남(3), 전북(3), 경남(3)
상대적 적음	상대적 적음	상대적 많음

- 주1. 개선지표 평균은 해당 부문에 위치하는 시도에서 상대적으로 개선된 삶의 질 지표의 평균을 의미하며, 시도별에서 괄호 안은 15개 시도의 개선수준 평균을 상회하는 지표의 숫자를 의미함.
- 주2. 보조사업 예산, 자체사업 예산은 총 예산 대비 비중을 표준화(standardized value)하여 비교한 것임.

〈그림 2〉 여성·가족 관련 복지예산-삶의 질 지표 연계 분석

령 4사분면에 속한 충남은 여성 대비 남성의 돌봄시간에 있어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개선 열위에 있다. 반면 전북은 여성 대비 남성의 가사 노동시간이, 경남은 여성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상대적 열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별로 보다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삶의 질 개선영역이 특수하게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욕구에 대응성이 높은 복지사업의 기획과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복지노력 불균형이 지역 간 삶의 질의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2000년 중반부터 2010년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객관적·주관적 측면에서 노인 및 여성의 주민의 삶의 질의 편차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복지노력의 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제시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복지불균형 완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보조 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으로 대변되는 양적인 복지노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부의 복지노력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복지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해 지방정부 사회복지 사업의 대응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주민욕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수립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질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정책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하여 사회복지 사업이 기획되고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는 합리적 정책결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실질적 재정분권화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복지노력을 확대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재정적 의존성 및 취약한 세입구조는 높은 수준의 조세법률주의에서부터 국세 중심의 세수구조,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국고보조율 제도 등 다양한 원인이 얹혀 있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이슈이다. 지방 재정구조라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복지노력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식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제안은 일률적이고 의무적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특수성과 지방정부의 재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목표를 지닌 신청주의형 국고보조사업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취약한 재정구조를 지닌 지방정부는 일정 부분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지역 간 삶의 질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끝으로, 사회복지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험을 경감시키는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노후)에서 만성질환 유병률이나 사회활동 참여율, 여성·가족 영역에서 여성 대비 남성의 돌봄노동 시간 측면에서의 객관적인 삶의 질 수준은 악화·정체되며, 지역 간 삶의 질 편차 또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삶의 객관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수요자들이 평소에서는 고려하지 못했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해 주는 사회서비스가 효과적이다. 노인 영역에서는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갖지 못한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완화를 위한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들을 다양한

사회활동과 단체참여를 연계해 주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 영역의 경우 그간 여성의 돌봄노동을 경감하기 위한 보편주의적인 보육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가 추진되어 왔음에도 이른바 ‘그림자 노동’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여성의 돌봄노동은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여성들은 사회적·문화적 빈곤이라는 상대적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여성들의 위축된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기능할 수 있고, 여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노인 및 여성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살펴본 본 연구는 가용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삶의 질 지표체계의 포괄성에 있어 누락된 측면이 있고, 경험적 분석 기간 또한 가장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복지노력과 삶의 질 지표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다양한 선행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보다 체계적인 삶의 질 지표체계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의 복지노력의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는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혜규(2008), “사회서비스 확대정책과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상황과 복지』 제25권: 67-98.
- 강혜규 외(2015),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명철(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지역사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미국 스폴스시의 경험적 증거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0권 제2호: 243-270.
- 김병록(2008), “지역사회 복지격차 연구에 대한 분석”, 『지역사회연구』 제16권 제2호: 143-161.
- 류진석(2002), “지역간 사회복지격차: 복지 수요와 공급 현황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 서울: 한울아카데미.
- 송건섭·권용현(2008), “광역도시권의 삶의 질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0권 제4호: 87-107.
- 이재완(2016),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56권: 83-112.
- 하능식(2013), “지방 사회복지 보조금제도 개편과제: 국고보조율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3): 35-62.
- Dissart, J., and Deller, S. C(2000). Quality of Life in the Planning Literature.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Vol.15(1): 135-161.
- Ebel, R., and Yilmaz, S(2003), Fiscal Decentr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s It Happening? How Do We Know. *Public Finance in Developing and Transition Countries*, Essay in Honor of Richard M. Bird, edited by James Alm and Jorge Martinez-Vazquez.
- Evans, D. R(1994), Enhancing quality of life in the population at lar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33(1): 47-88.

토론내용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불균형과 시민의 삶의 질”에 관한 토론

김석호 *

정과리 연세대학교 교수는 그의 『들어라 청년들아(2008)』에서 한국인들이 가진 ‘은근과 끈기’와 ‘고답적’과 같은 사회적 성격이 최근 ‘부산스럽고 요란함’으로 변했다고 진단하면서 그 원인을 중진국 국민들이 가진 미래에 대한 불안과 향상된 삶의 질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서구에서 beyond GDP, 탈물질주의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작된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한국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실체적 현실이 되었다. 학계와 정부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적 관심 전환을 강조해 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자들은 한국삶의질학회를 결성하여 삶의 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정확한 측정, 정책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통계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도 삶에 대한 만족도 저하, 사회적 활력 약화(낮은 출산율, 급속한 노령화, 높은 자살률), 사회통합문제(사회적 갈등, 낮은 신뢰) 등과 같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활용하고자 애쓰고 있다.

장용석 교수팀의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불균형과 시민의 삶의 질”은 삶의 질 논의와 관련된 이제까지의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이를 지방정부 수준에서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 중심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삶의 질 논의를 국민들이 실제 삶의 질을 구성하는 공간인 지역으로 세분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용석 교수팀의 시도는 획기적이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정부 복지노력 간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러 번 있었으나 이를 경험적으로 추구하는 시도는 여러 한계 때문에 엄두를 내기 어려웠다. 지역마다 자료의 구축 수준이 다른 것도 큰 문제였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의 편차와 변화추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지방정부의 복지노력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 내용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정치적 논란 속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왔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나는 장용석 교수팀의 연구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삶의 질 논의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여성의 돌봄 및 경제활동 변화에 주목해 노인(노후)과 여성·가족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지방정부 간 삶의 질 격차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이 연구의 전략도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일반적으로 지표체계를 구축할 때 최종적인 목표는 항상 전체 지표체계를 세분화된 인구집단에 적용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집단이 어떤 영역에서 취약한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연구가 선택한 잠재적 취약집단인 여성과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측정과 파악은 기존 삶의 질 연구에 새롭고 귀중한 지식을 추가하는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가 가진 상당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1. 지표선정의 정당성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연구는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하고 노인 집단에 대해서는 6개, 여성에 대해서는 4개의 지표를 사용한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체계가 80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지표수는 지나치게 적다고 할 수 있다. 만약 6개의 지표만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노인의 삶의 질 현실은 이보다 훨씬 복잡다단하다. 자료의 이용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연구에서 6개의 지표가 어떤 이유로 선택되었으며, 지표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대표하는지, 포함되어야 했으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빠진 것들은 무엇인지 충분히 소개하고 설명했어야 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부가적으로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여성가족연구패널조사의 자료의 질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기 바란다.

영역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활용자료 (분석기간)
노인(노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질환 유병률 - 사회활동 참여율 - 문화활동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경제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전반적인 삶의 질(행복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006, 2014)
여성·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 - 남성의 돌봄노동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주관적 경제상태 -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 	여성가족연구패널조사 (2009, 2011, 2013)

2. City Limits?

미국의 경제학자 피터슨은 그의 저서 『City Limits(1980)』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한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재정이 충분한 지방정부에는 복지 정책의 대상자가 충분히 없고, 복지 정책의 대상자가 많은 곳의 지방정부는 재정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다. 즉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국가정책의 대상이지 지방정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용석 교수팀의 연구 결과가 복지예산 지출이 많은 지방정부에서 노인과 여성의 삶의 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시계열적으로 보았을 때 더 향상된다는 결론이 수궁이 가면서도 그 해석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피터슨의 주장을 음미해보면, 복지재정이 충분한 지방정부에 사는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복지예산 지출의 효과가 아니라 복지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정도로 잘사는 지역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일 수 있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복지예산 지출의 독립적(discernible) 효과를 보여주는 통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제 3 주 제

가족시간과 삶의 질

이윤석 *

1. 연구목적 및 배경

최근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의미하는 “가족시간(family tim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강성진, 2010). 아버지가 직장에서 돈을 벌고 어머니가 가족과 집안을 돌보던 과거에 가정은 각 구성원들이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잘하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고 피로를 푸는 부차적인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직업적 성공 못지않게 단란한 가족을 삶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커졌다. 그래서 수입이 적더라도 퇴근시간을 보장해주는 직업을 찾는 등 가족시간을 더욱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족들이 함께 경작하는 주말농장을 찾고 가족캠핑장에서 가족만의 시간을 갖는 등 가족들끼리 시간을 잘 이용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많은 현대 부모들은 자녀들과 더 많은 가족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녀의 성장에 여러 모로 필요하다고 믿는다. MBC의 “아빠 어디가”나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아버지가 자녀들과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이상적으로 그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문유경, 강민정, 2003; Glorieux et al., 2011). 한국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2014년 전체 취업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1,371시간으로 가장 짧은 독일보다 연간 4개월을 더 일하는 셈이다. 게다가 남편과 아내 모두가 일하는 맞벌이 부부는 빠르게 이상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2013년 유배우 가구 1,178만 가구 중 42.9%인 505만 5천 가구는 맞벌이부부였다. 맞벌이 부부는 직장 영역과 가족 영역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역할 갈등을 느낀다(Gracia & Kalmijn, 2016). 부모만 바쁜 것은 아니다. 자녀들도 시간에 쫓기기는 마찬가지다. 한국 청소년들은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삶을 살고 있다. 통계청의 2014년 학생 생활시간 조사를 보면, 학교나 학원 같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시간이 초등학생 19시간, 중학생 20시간, 고등학생 20.5시간 전후로 하루의 80% 가까이 된다. 대학이나 취업 등 장래를 위해 현재의 삶은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와 자녀 모두 바쁘게 일상을 보내다 보니 가족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간을 보내는 “저녁이 있는 삶”은 언감생심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이다(Lesnard, 2008). 그래서 많은 가족들은 가족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Dew, 2009).

가족시간의 부족은 개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Cha & Eun, 2014).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가족들의 관계 형성에 기본적 요건이다. 가족관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때문에 같이 나눌 경험과 기억이 부족한 부부 그리고 자녀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Milkie et al., 2004; Offer, 2013). 친밀한 가족관계의 결핍은 회복탄력성(resilience) 형성에 치명적 장애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Ashbourne & Daly, 2012). 회복탄력성은 여러 가지 역경, 시련,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심리적 성향 또는 능력을 의미한다. 회복탄력성이 있는 개인은 삶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본 궤도에 올라 원래 있는 위치보다 더 높이 오를 수 있다. 회복탄력성이 많은 아동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매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며 부모로부터 많은 정신적 지지를 얻는다.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들 그리고 직장과 가족의 압박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부모들은 건강한 가족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회복탄력성이 꼭 필요하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행복감에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같은 행위라도 가족과 함께인가의 여부에 따라 삶에 대한 만족감, 일상에서 느끼는 갈등,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가활동을 예로 들어보자.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혼자서 보내는 여가시간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이 행복감과 관계만족도에 더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한다(Roeters & Treas, 2011).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행위에서

비슷하게 보고되고 있다.

가족시간과 삶의 질은 광범위한 시간결핍 현상에 따라 가족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장승진, 2011; Roxburgh, 2006). 이에 따라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 연구들이 가족시간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 이해를 넓혀주기는 했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많은 연구들이 특정집단에 대한 편의표집을 통해 연구대상자들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Tubbs et al., 2005). 그러나 가족에 대한 견해는 계층, 문화, 집단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다르다. 자연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갖는 함의도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연구의 결론을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장애가 된다. 정책 입안자들은, 예를 들어, 가족시간의 긍정적 함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에게 더 강한지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동들에게 더 강한지 알고 싶어 한다. 만약 집단별 차이를 알 수 있다면 정책적 노력을 더 집중해야 하는 집단도 자연스럽게 파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시간과 삶의 질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활시간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생활시간 자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 살펴보는 자료로서,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요한 활동을 포괄하여 가족생활과 삶의 질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 핵가족과 노부부 가족 등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시간 사용과 삶의 질의 차별성을 규명함으로써 집단 간 가족시간 사용 양상을 비교한다. 특히 가족시간 사용과 삶의 질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집단이 취약한지 파악한다. 지금까지 가족생활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가족 특성, 활동, 관계를 개별적 내용으로 분석하였는데 반해 본 연구는 가족생활의 각 연구 내용이 조형(造形)되어 나타나는 가족시간 사용이라는 복합적 내용으로 연구를 확대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원만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이 함께 또는 따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2014년 생활시간자료의 활용

가족시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로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가 있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한국인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유용한 자료이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약 27,000명(전국 약 12,00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응답자가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에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2일 동안 직접 기입하는 방식(after-coded diary)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가구 및 개인 관련 조사항목뿐만 아니라 9개 대분류, 42개 중분류, 138개 소분류로 나뉜 행동분류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한국인의 시간사용을 매우 자세히 알 수 있다. 또한 주요한 행위를 ‘함께 한 사람’이 조사되어 가족 구성원간의 가족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함께한 사람’은 공간을 같이하면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주된 행동을 같이한 사람을 말하며, 함께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2) 연구의 대상 행위

가족들은 다양한 행동을 함께할 수 있다. 그중 본 연구는 식사시간, 여가활동, 가정관리(65세 이상 고령층에만)에 집중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가족시간(family time)으로 분석에 포함하는 활동은 다음의 행동분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실태와 내용을 파악하고 가족시간을 통한 생활만족도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 64세 이하로 1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부부 집단과 2) 65세 이상의 고령층 집단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 가족시간 분석을 위하여 ① 혼자 있는 시간(주된 행동을 함께한 사람이 없는 경우), ② 주된 행동을 배우자와 함께한 경우, ③ 10세 미만 자녀와 함께한 경우(64세 이하로 10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만)로 나누어 분석한다.

〈표 1〉 연구 대상행위

연계	행동분류명(연계)		
코드			
T1	개인유지	T7	교제 및 여가활동
T12	식사 및 간식	T72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T14	기타 개인유지	T73	종교활동
T4	가정관리	T74	문화 및 관광 활동
T41	음식준비	T75	스포츠 및 레포츠
T42	가정용 섬유 및 신발 관리	T76	의례활동
T43	청소 및 정리	T77	기타 여가활동
T44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T45	차량 관리		
T46	애완동·식물돌보기		
T47	상품 및 서비스 구입		
T48	기타 가정관리		

3.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

〈표 2〉는 하루 동안 1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가 식사를 하는 시간이다.

1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는 하루 약 2시간 정도를 식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은 하루 동안 식사를 하는 데 각각 118.2분과 123.9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5분 정도의 차이는 수치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난다($t=4.06$, $p<.01$).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은 혼자서 식사를 하는 시간보다 부부

〈표 2〉 1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가 식사를 하는 시간

(단위: 분)

	여성	남성
총 식사시간	118.2	123.9
혼자	20.1	22.5
배우자와 함께	50.3	52.2

가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더 길다. 부인과 남편은 각각 하루에 20.1분과 22.5분을 혼자서 그리고 50.2분과 52.2분을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부부가 사회화에 사용한 시간을 살펴보자(표 3). 여성은 총 41.1분을, 남성은 총 33.3분을 사용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은 혼자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사회화에 보내는 시간 사용에도 차이를 보여주는데, 여성은 배우자와 함께보다는 혼자 사회화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며, 남성은 배우자와 함께한 시간이 혼자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다. 즉, 남성은 배우자가 있을 때 사회화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미디어에 사용한 시간을 알아본다(표 4). 남성은 114.3분을 여성은 98.3분을 미디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미디어에 사용하는 총 시간뿐 아니라 혼자 혹은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다.

〈표 5〉에서 종교에 사용한 부부의 시간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총 시간, 혼자 사용

〈표 3〉 10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가 사회화에 사용한 시간

(단위: 분)

	여성	남성
총 사회화 시간	41.1	33.3
혼자	11.0	8.2
배우자와 함께	9.6	10.0

〈표 4〉 10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가 미디어에 사용한 시간

(단위: 분)

	여성	남성
총 시간	98.3	114.3
혼자	57.6	72.1
배우자와 함께	26.6	32.3

〈표 5〉 10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가 종교에 사용한 시간 (단위: 분)

	여성	남성
총 시간	8.6	5.2
혼자	3.3	2.2
배우자와 함께	2.3	1.6

한 시간, 배우자와 함께 사용한 시간이 더 많다.

다음은 <표 6>에서 부부의 문화생활을 살펴본다.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문화생활에 보내고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 이를 요일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주중보다 주말에 더 많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 문화생활에 사용하는 시간이 전혀 없음이 특이할 만하다. 여성의 경우도 목요일에는 문화생활에 사용한 시간이 없다. 총 시간, 혼자 혹은 배우자와 사용한 시간 모두 다른 활동에 비해 매우 적다. 여성과 남성 모두 혼자보다 배우자와 함께 문화생활에 사용한 시간이 더 많다.

부부가 스포츠에 사용한 시간 역시 매우 적다(<표 7>).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혼자보다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고,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스포츠에 사용한 시간이 매우 적어 요일별로 스포츠에 사용한 시간 역시 매우 적다. 남성과 여성 모두 주중에 사용한 시간보다 주말에 사용한 시간이 더 많으며, 전반적으로 혼자 사용한 시간보다 배우자와 함께 사용한 시간이 더 많다는 점에서 문화활동과 비슷하다. 남성의 경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스포츠에 사용한 시간이 전혀 없다. 여성 역시 목요일에는 사용한 시간이 전혀 없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부가 삶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정도와 식사, 사회화, 미디어, 종교 활동,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등 6개의 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자(<표 8>).

여성의 경우, 식사나 미디어를 사용한 시간과 삶의 여유를 느끼는 정도, 일상에 대한 피

<표 6> 10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가 문화생활에 사용한 시간

(단위: 분)

범주	여성	남성
총 시간	6.0	5.0
혼자	0.3	0.1
배우자와 함께	4.4	4.0

<표 7> 10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가 스포츠에 사용한 시간

(단위: 분)

	여성	남성
총 시간	6.0	5.0
혼자	0.3	0.1
배우자와 함께	4.4	4.0

〈표 8〉 10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가 삶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회귀분석

		여성	남성
		회귀계수	회귀계수
식사	혼자	0.004	0.008
	배우자와 함께	-0.004	-0.006**
사회화	혼자	0.004	-0.002
	배우자와 함께	-0.010	-0.010
미디어에 사용하는 시간	혼자	0.004	0.006***
	배우자와 함께	-0.005	0.000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	혼자	-0.025***	-0.021**
	배우자와 함께	-0.010	-0.006
문화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	혼자	-0.009	-0.024
	배우자와 함께	-0.003	-0.001
스포츠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	혼자	-0.009	-0.024
	배우자와 함께	0.010*	-0.001

주: *p< .05, **p< .01, ***p< .001

로도가 관련이 있었는데, 삶에 대한 만족도에는 이 두 가지 활동이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 주지 않는다. 유일하게 삶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관련을 보여주는 활동이 혼자 종교 활동에 사용한 시간인데, 혼자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한편, 여성이 스포츠 활동을 배우자와 함께 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줄어든다는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며, 혼자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감소한다. 남성 역시 혼자 종교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간다. 여성과 남성 모두 종교 활동을 하는 시간이 삶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교 활동은 삶의 여유를 느끼는 것, 일상에 대한 피로도와는 관련이 없던 활동인 점이 특이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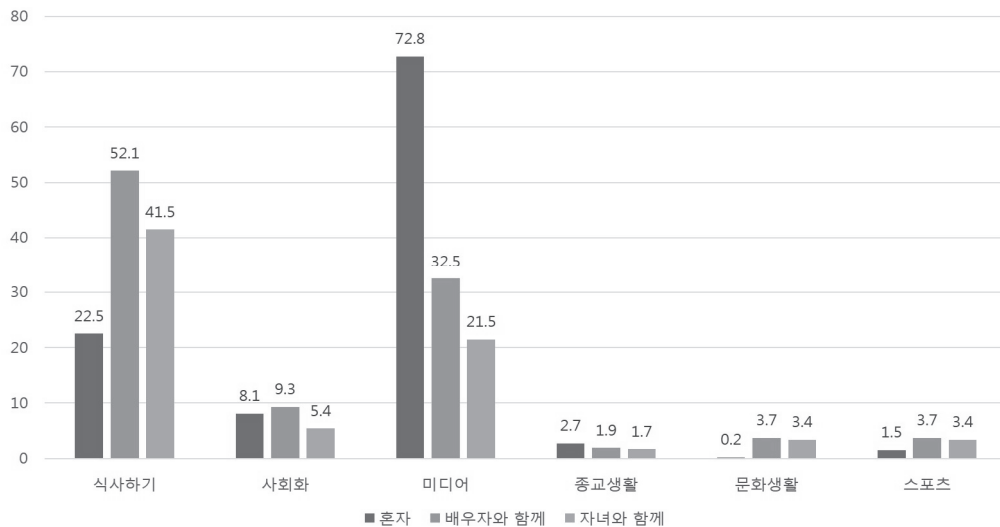
4. 부모와 자녀

1) 부모와 자녀가 보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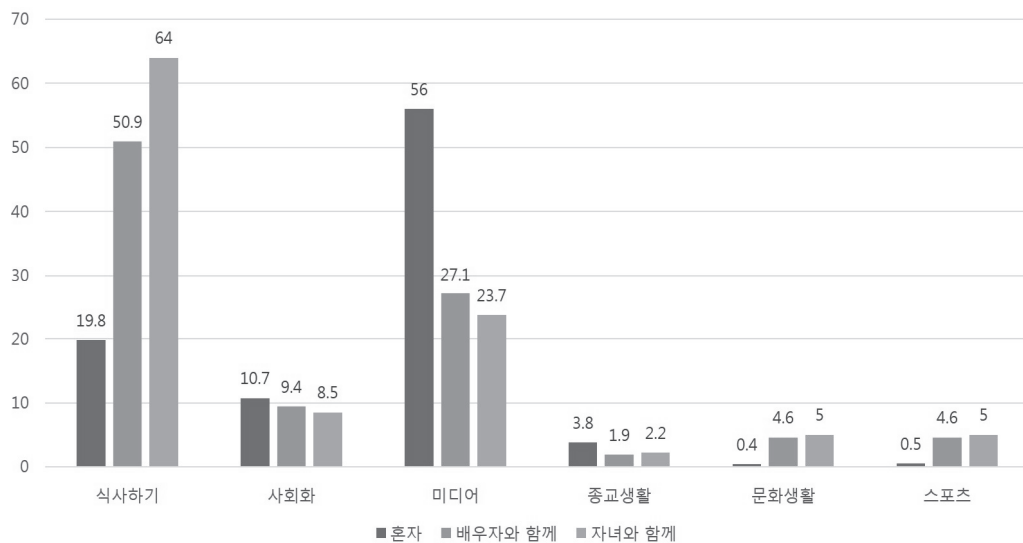
〈그림 1〉은 10세 미만 자녀를 둔 아버지가 식사 및 여가에 사용한 하루 평균 시간이다.

식사시간을 보면 하루 중 22.6분은 혼자서 식사를 하고 52.0분은 아내와, 41.6분은 10세 미만 자녀와 식사를 한다. 물론 아내와 자녀와 함께 식사 한 시간은 어느 정도 겹칠 것이다. 반면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 시간을 보면 혼자 보낸 시간이 72.8분, 아내와 보낸 시간이 32.5분, 10세 미만 자녀와 보낸 시간이 21.6분이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식사는 가족과 많이 하며 TV나 인터넷 등 미디어는 혼자서 많이 한다.

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외한 여가활동 시간은 매우 미미하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제(사회화) 활동은 혼자 8분, 배우자와 약 9분, 자녀와 5분 정도를 보낸다. 종교 활동과 문화 및 스포츠 활동은 더 미미하다. 종교 활동은 하루 평균 혼자서 하는 시간은 2.7분,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은 1.8분 자녀와 하는 시간은 1.6분이다. 문화 활동은 하루 평균 혼자서 하는 시간은 0.1분,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은 3.6분, 10세 미만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3.4분이다. 운동은 혼자서 0.1분, 아내와 함께는 3.6분, 10세 미만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3.4분이다.



〈그림 1〉 10세 미만 자녀를 둔 아버지가 사용한 하루 평균시간(분)



〈그림 2〉 10세 미만 자녀를 둔 어머니가 사용한 하루 평균 시간(분)

〈그림 2〉는 10세 미만 자녀를 둔 어머니가 식사 및 여가에 사용한 하루 평균 시간을 나타낸다.

식사 시간을 보면 혼자서는 19.8분, 남편과는 51.0분, 10세 미만 자녀와는 64.0분이다. 남편에 비해 혼자서 먹는 시간은 더 적으며 반면 가족과 먹는 시간은 더 많다. 미디어 사용 시간을 보면 혼자서는 55.9분, 남편과는 27.0분, 10세 미만 자녀와는 23.7분이다. 전체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남편보다 훨씬 적다. 여가활동 시간을 살펴보면 교제(사회화) 활동은 혼자서 약 10분, 배우자와 9분, 자녀와 8.5분을 보낸다. 종교 활동은 혼자 3.8분, 남편과는 1.8분, 10세 미만 자녀와는 2.2분을 보낸다. 문화생활은 혼자 0.4분, 남편과는 4.6분, 10세 미만 자녀와는 5.0분이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혼자 0.5분, 남편과는 4.6분, 10세 미만 자녀와는 5.0분이다.

전반적으로 여가활동 시간은 매우 미미하며,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더 적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여가를 즐길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노동과 돌봄과 같은 의무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여가시간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다.

2) 부모 그리고 자녀의 삶에 대한 만족도

(1) 10세 미만 자녀와의 여가시간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둘째 날 자료를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었다. 기본모형은 통제변수만 투입한 것이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혼자 한 시간을 투입한 모형, 다양한 여가활동을 자녀와 함께한 시간을 투입한 모형, 구체적인 활동에 관계없이 혼자서 보낸 총 여가시간과 자녀와 함께 보낸 총 여가시간을 포함한 모형 순서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본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다. 가구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긍정적 효과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는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들에게만 효과가 유의미하다.

기본적인 통제변수들에 가사분담 만족도와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 그리고 혼자 보내는 여가활동 시간을 투입한 '혼자 시간' 모형을 살펴보면, 가구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의 효과는 계수의 미미한 변화는 있지만 동일하게 유지된다. 가사분담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효과를, 시간 부족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혼자 보내는 여가활동 시간은 미디어 활용시간만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디어 활용시간의 부정적인 효과 역시 그다지 크지 않다.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시간을 포함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 가사분담 만족도, 시간부족의 영향력이 모두 여전히 유의미하다. 그러나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어떤 활동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령 혼자 하는 미디어 활동 시간은 만족도에 부정적이었으나, 자녀와 함께하는 미디어 활동 시간은 회귀계수는 동일하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어쩌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길지 않아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구분하지 않고 혼자서 보낸 총 여가시간과 자녀와 함께한 총 여가시간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이번 모형에서는 가구소득의 긍정적인 효과가 사라졌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교육수준, 가사분담 만족도와 시간 부족 인식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혼자서 보내는 총 여가시간이 길수록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9〉 10세 미만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 선형회귀분석(둘째 날)

	기본 모형	혼자 보낸 시간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	혼자, 자녀와 함께 보낸 총 여가시간
연령	-0.001	-0.002	-0.003	-0.002
가구소득	0.041***	0.044***	0.046***	0.044
노동시간	-0.003	-0.000	0.001	0.000
어린 자녀수	0.029	0.044	0.043	0.043
주관적 건강상태	0.361***	0.286***	0.288***	0.285***
교육수준 (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업	0.081	0.060	0.057	0.061
4년제 대졸 이상	0.226***	0.226***	0.223***	0.224***
가사분담 만족도		0.208***	0.213***	0.209***
시간부족		-0.187***	-0.179***	-0.185***
식사 시간		-0.003	0.006	---
미디어 활용시간		-0.008***	-0.008	---
사회활동 시간		0.009	-0.008	---
문화생활, 운동 시간		-0.024	0.001	---
혼자 여가시간		—	—	-0.007***
자녀와 여가시간		—	—	0.000
R ²	0.12***	0.20***	0.20***	0.19***
N	1706	1706	1706	1706

* p<0.05, ** p<0.01, *** p<0.001

종합하여 살펴보면, 여가시간을 혼자 보내거나 자녀와 함께 보내는 것은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가사분담 만족도나 시간부족과 같은 주관적인 평가들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녀가 10세 미만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양육과 가사노동 부담이 많고 따라서 여가시간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여가시간의 효과보다는 가사분담이나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표 10〉은 10세 미만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둘째 날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통제변수만 투입한 기본모형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주관적 건강상태 역시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들은 기존 연구의 결과는 물론 남성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반면 취업한 여성들의 만족도는 전업주부보다 낮다. 이는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취업여성들의 이중부담이 반영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4년제 대졸

〈표 10〉 10세 미만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선형회귀분석(둘째 날)

	기본 모형	혼자 보낸 시간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	혼자, 자녀와 함께 보낸 총 여가시간
연령	-0.005	0.000	0.000	-0.000
가구소득	0.064***	0.057***	0.057***	0.082***
취업(준거: 미취업)	-0.115***	-0.039	-0.041	-0.035
어린 자녀수	0.007	0.063*	0.063*	0.060
주관적 건강상태	0.317***	0.225***	0.224***	0.222***
교육수준 (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업	0.194***	0.160***	0.163***	0.161***
4년제 대졸 이상	0.302***	0.280***	0.284***	0.282***
가사분담 만족도		0.304***	0.302***	0.303***
시간부족		-0.093***	-0.095***	-0.094***
식사 시간		-0.001	-0.002	---
매체 활용시간		0.002	0.005	---
사회활동 시간		-0.012	-0.001	---
문화생활, 운동 시간		-0.013	0.004	---
혼자 여가시간				0.001
자녀와 여가시간				0.002
R ²	0.12***	0.26***	0.26***	0.26***
N	1707	1707	1707	1707

* p<0.05, ** p<0.01, *** p<0.001

이상의 경우에만 교육의 효과가 유의미하였으나 여성은 전문대 졸업 이상과 4년제 대졸 이상 모두 고졸 이하에 비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혼자 보내는 여가활동 시간과 가사분담 만족도, 시간 부족을 포함한 두 번째 모형에서는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의 효과는 여전히 유의미하다. 다만 회귀계수가 약간 줄어들었으며, 취업 여부의 효과는 사라졌다. 기본 모형과의 차이점은 어린 자녀수가 많을 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기본 모형에서도 어린 자녀의 수가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으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사분담 만족도의 정적인 효과와 시간 부족의 부정적인 효과는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찰되었다. 남성의 결과와의 차이점은 가사분담 만족도의 효과가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혼자 하는 여가활동 시간은 개인의 만족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녀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 시간을 포함한 경우 역시 가구소득과 어린 자녀의 수,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 가사분담 만족도, 시간부족의 효과가 거의 유사하다. 자녀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 시간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혀 없었으며, 혼자 하는 여가활동 시간을 포함한 모형과 계수들의 차이도 미미하다. 어쩌면 여성들은 이미 어린 자녀의 돌봄 노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시간이라는 것을 따로 구분하기도 어렵고 시간 자체도 매우 적으며,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시간이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모형과 달리, 어린 자녀 수가 여성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자녀의 존재 자체는 여성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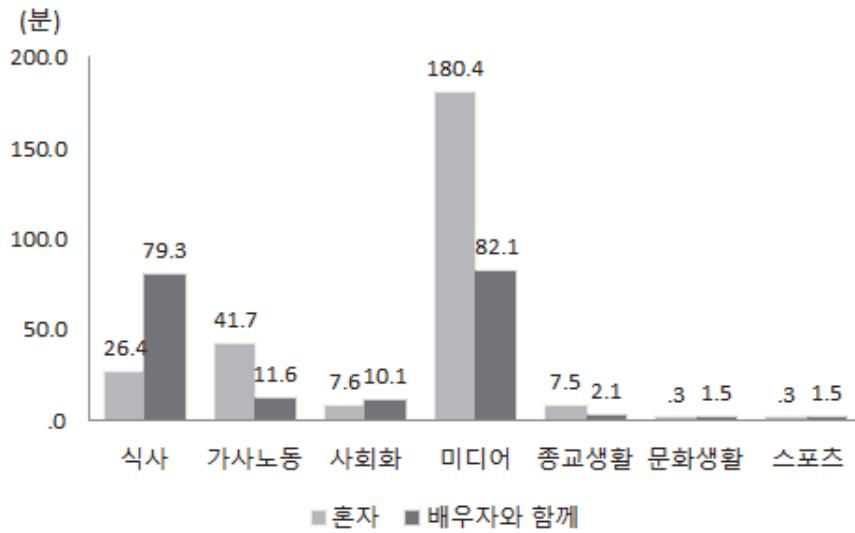
5. 노인부부들의 일상: 따로 또 같이

1) 배우자 유무에 따른 고령집단의 시간사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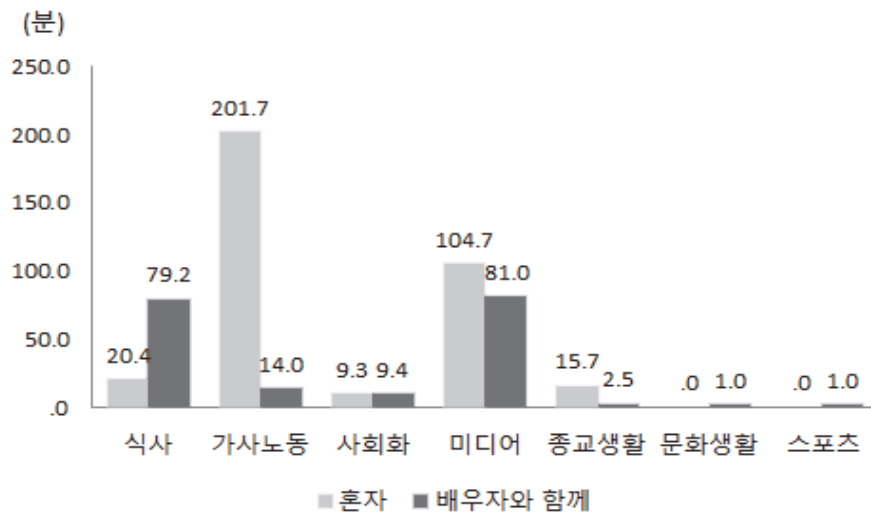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령집단의 시간사용실태를 살펴본다. 먼저 배우자가 있는 고령집단의 시간사용실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인이 있는 남성노인이 하루 중 혼자서 식사를 하는 시간은 26.4분이며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은 79.3분이다. 반면 가사노동의 경우 혼자서 하는 시간은 41.7분이며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11.6분이다. 여가와 관련된 시간 사용을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미디어 이용인데 혼자서 미디어를 이용하여 여가를 보내는 시간은 180.4분이며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82.1분이다. 교류 등 사회활동을 혼자서 하는 시간은 7.6분이고,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10.1분이다. 그 외에 종교 활동을 혼자서 하는 시간은 7.5분이며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2.1분이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의 경우에 혼자서 하는 활동 중 시간 이용이 가장 많은 활동은 미디어 이용이며, 혼자 하는 시간보다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 사용이 많은 활동은 식사하기와 교류 등 사회활동이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들의 시간사용에 대한 응답 내용은 <그림 4>와 같다. 남편이 있는 여성노인의 경우 하루 중 혼자서 식사를 하는 시간은 20.4분이며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은 79.2분이다. 반면 가사노동의 경우 혼자서 하는 시간은 201.7분이며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14.0분이다. 식사는 부부 모두 혼자서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긴 데 비해 가사노동은 부부 모두 혼자 하는 시간이 훨씬 길고 여성노인의 경우는 모든 활동 시간 중 가장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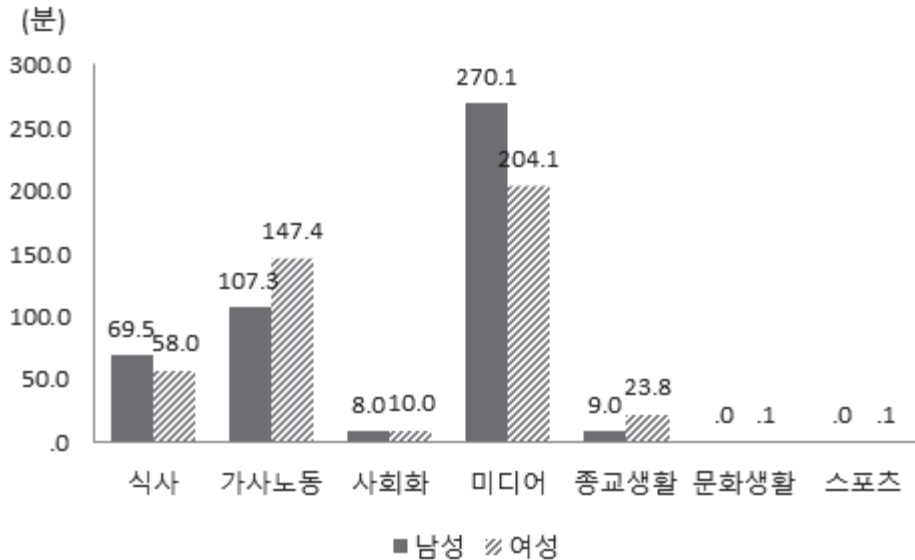
〈그림 3〉 배우자가 있는 65세 이상 남성노인들의 시간사용(분)



〈그림 4〉 배우자가 있는 65세 이상 여성노인들의 시간사용(분)

여가와 관련된 시간을 보면, 미디어 이용의 경우 혼자서는 104.7분을 사용하고 배우자와 함께는 81.0분을 사용한다. 남성노인에 비해서는 혼자서와 부부 함께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의 격차가 적게 나타난다. 종교 활동에 혼자서 사용하는 시간은 15.7분이며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시간은 2.5분이다.

배우자가 없는 고령 집단의 남녀별 시간사용 실태를 살펴본다(그림 5). 배우자가 없는



〈그림 5〉 배우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녀 노인들의 시간사용(분)

노인이 하루 중 혼자서 식사를 하는 시간은 남성노인은 69.5분, 여성노인은 58.0분이다.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남성노인은 107.3분, 여성노인은 147.4분으로 배우자가 있는 고령집단과 비교해보면, 아내가 있는 남성노인들이 혼자서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보다 2 배 이상 많다. 아무래도 배우자가 없으니 혼자서 처리하는 가사노동이 늘어난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의 경우 남편이 있는 여성노인들에 비해 혼자서 하는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서 한 시간 정도 감소하였다.

그런데 여가 활동 중 미디어 이용으로 보내는 시간은 배우자가 있는 고령집단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더 많다. 배우자가 없는 남성노인들은 하루 중 270.1분을 혼자서 TV 등의 미디어 이용에 사용한다. 여성노인도 204.1분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을 미디어 이용에 시간을 사용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의 경우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아서 하루 중 23.8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65세 이상 고령자 집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회귀분석)

(1)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

본 분석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집단을 배우자 유무에 따라 나누고, 각 집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의 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은 모든 모형에서 생활만족도에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 그 외에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개인적 특성 요인은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이다.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지역(동부)이 농촌지역(읍면) 노인들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다.

그 외에 피곤함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에게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성역할 인식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보이지

〈표 11〉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의 만족도 선형회귀분석(둘째 날)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연령	.038	.036	.036	.031
학력	.115***	.102***	.100***	.097***
지역(농촌)	-.097***	-.114***	-.112***	-.113***
가구소득	.114***	.121***	.121***	.122***
주관적 건강상태	.353***	.314***	.307***	.309***
피곤함		-.127***	-.135***	-.132***
성역할 인식		-.027	-.028	-.027
식사하기(혼자)			-.030	-.010
가사노동(혼자)			-.036	-.035
사회활동(혼자)			.013	.016
미디어 이용(혼자)			-.040	-.034
종교생활(혼자)			.029	.022
식사하기(배우자와 함께)				.025
가사노동(배우자와 함께)				.011
사회활동(배우자와 함께)				-.008
미디어 이용(배우자와 함께)				.019
종교생활(배우자와 함께)				.047*
R ²	.184***	.198***	.201***	.202***
N	1610	1610	1610	1610

* p<0.05, ** p<0.01, *** p<0.001

않는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의 경우, 혼자서 시간을 사용하는 각각의 활동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시간 중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유일하게 종교 활동이다.

(2)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을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 집단과 마찬가지로 피곤함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의 경우 성역할 인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남성 집단과 차이를 보인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은 혼자서 하는 활동 시간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표 12〉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의 만족도 선형회귀분석(둘째 날)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연령	.048	.048	.047	.052
학력	.112***	.108***	.103**	.092**
지역(농촌)	-.023	-.044	-.041	-.035
가구소득	.047	.054	.054	.047
주관적 건강상태	.343***	.272***	.266***	.261***
피곤함		-.192***	-.195***	-.196***
성역할 인식		.054*	.056*	.044
식사하기(혼자)			-.017	-.012
가사노동(혼자)			-.016	-.008
사회활동(혼자)			.033	.035
미디어 이용(혼자)			-.045	-.047
종교생활(혼자)			.053*	.042
식사하기(배우자와 함께)				.013
가사노동(배우자와 함께)				.082**
사회활동(배우자와 함께)				.038
미디어 이용(배우자와 함께)				-.073*
종교생활(배우자와 함께)				.087**
R ²	.143***	.177***	.181***	.199***
N	1196	1196	1196	1196

* p<0.05, ** p<0.01, *** p<0.001

않는 데 반해서, 여성노인은 혼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배우자와 함께한 시간의 영향력을 모델에 포함하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의 성역할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진다. 또한 혼자 하는 종교 활동에의 시간사용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배우자와 함께한 가사활동과 종교 활동 시간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흥미로운 점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이 남편과 함께한 미디어 이용 시간은 오히려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3) 배우자가 없는 남성노인

배우자가 없는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변수는 교육수준,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건강상태이다.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지역(동부)이 농촌지역(읍면) 노인들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다.

피곤함은 다른 고연령집단과 마찬가지로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가 없는 남성노인의 경우 혼자서 하는 다양한 활동 시간은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

〈표 13〉 배우자가 없는 남성노인의 만족도 선형회귀분석(둘째 날)

	모델1	모델2	모델3
연령	.046	.046	.040
학력	.129*	.130*	.120*
지역(농촌)	-.131*	-.132*	-.137*
가구소득	.191**	.193***	.181***
주관적 건강상태	.350***	.307***	.289***
피곤함		-.131*	-.128*
성역할 인식		.087	.101
식사하기(혼자)			.017
가사노동(혼자)			-.045
사회활동(혼자)			.056
미디어 이용(혼자)			-.085
종교생활(혼자)			.088
R ²	.227***	.243***	.251***
N	282	282	282

* p<0.05, ** p<0.01, *** p<0.001

로 나타난다.

(4)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변수는 교육수준, 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건강상태이다.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지역(동부)이 농촌지역(읍면) 노인들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다.

다른 고연령집단과 마찬가지로 피곤함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의 경우 성역할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반해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의 경우 성역할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은 배우자가 없는 남성노인에 비해 혼자서 하는 활동 시간 중 미디어 사용과 종교 활동 시간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혼자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떨어진다. 반면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

〈표 14〉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의 만족도 선형회귀분석(둘째 날)

	모델1	모델2	모델3
연령	.040	.020	.031
학력	.094***	.099***	.091**
지역(농촌)	-.064***	-.076**	-.075**
가구소득	.136***	.125***	.139***
주관적 건강상태	.317***	.269***	.254***
피곤함		-.158***	-.166***
성역할 인식		.016	.015
식사하기(혼자)			.029
가사노동(혼자)			.037
사회활동(혼자)			.003
미디어 이용(혼자)			-.063*
종교생활(혼자)			.051*
R ²	.137***	.159***	.166***
N	1495	1495	1495

* p<0.05, ** p<0.01, *** p<0.001

6. 결론

1)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0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하는 다양한 여가활동 및 식사시간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피곤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시간은 하루 평균 10분 미만으로 미미했다. 식사시간과 미디어 활용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이 역시 성별 차이는 있지만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다. 어쩌면 10세 미만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 관련 시간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양육시간과 여가시간의 명확한 분리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양육시간이 길어서 상대적으로 여가활동을 함께할 여지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시간은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혼자 하는 여가활동 시간 역시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와의 여가활동 시간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어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양육에 요구되는 시간이 많아서 여가활동을 함께할 시간 자체가 많지 않고, 둘째, 아직 자녀가 어려서 여가활동을 함께한다고 해도 이것 역시 부모의 끊임없는 관심과 양육, 돌봄을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활동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피곤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자녀와 여가시간이 길면 피곤함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덜 피곤하기 때문에 자녀와 보내는 여가시간이 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가사분담 만족도가 피곤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어린 자녀로 인한 양육과 가사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가사분담 만족도가 피곤함을 낮추는 효과는 여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시간은 피곤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녀와 함께하는 식사시간이 길어지면 피곤함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및 식사시간은 부모의 삶의 만족도나 피곤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사분담 만족도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삶의 만족도 및 여성의 피곤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양육과 이로 인한 집안일의 부담이 여전히 주요한 이슈인 것을 알 수 있다.

총 42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한 결과 중 32명의 기혼남녀 응답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더니 몇 가지 공통적인 의견이 관찰되었다.

첫 번째는 일-가정 양립 딜레마이다. 많은 응답자들이 일-가정 양립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런 경향은 자녀 양육이 집중되는 시기인 30~40대 응답자들에게 두드러졌다. 여전히 자녀양육의 많은 부분은 여성에게 집중되었으나 남성들 역시 최대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수의 경우에는 출퇴근 일정을 조절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였다.

반면 50~60대 응답자들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젊은층처럼 일-가정 양립으로 고민하거나 어려움을 경험하지는 않으나, 과거에 일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이 적었던 점을 아쉬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혹은 정신없이 앞만 보고 지내온 삶을 후회하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는 등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전반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었다. 특히 남성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주말 정도로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나이가 들면 자녀의 일정이 바빠져서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다. 소수의 응답자들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아침만은 같이 먹기로 한다든지, 1주일에 단 몇 시간만이라도 정기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노력을 하였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과 동시에 많은 응답자들은 개인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20~40대 젊은 응답자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육아와 일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보니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 생활 속에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다.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자녀가 성장했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한 취미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경우가 있었으며, 50대 이상 남성들은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 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노인들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집단의 시간사용실태를 집단 비교를 해보면,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의 경우에 혼자서 하는 활동 중 시간 이용이 가장 많은 활동은 미디어 이용이며, 혼자 하는 시

간보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 사용이 많은 활동은 식사하기와 교류 등 사회활동이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식사는 부부 모두 혼자서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긴 데 비해 가사노동은 부부 모두 혼자 하는 시간이 훨씬 길고 여성노인의 경우는 모든 활동 시간 중 가장 길다. 배우자가 없는 고령 집단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노인은 아내가 있는 남성노인들이 혼자서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보다 많아서 가사노동 시간이 2배 이상 많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은 남편이 있는 여성노인들에 비해 혼자서 하는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서 한 시간 정도 감소하였다. 그런데 여가 활동 중 미디어 이용으로 보내는 시간은 배우자가 있는 고령집단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더 많다.

65세 이상 고령자 집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의 경우에,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개인적 특성 요인은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이다.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지역(동부)이 농촌지역(읍면) 노인들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다.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시간 중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유일하게 종교 활동이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의 경우 성역할 인식이 높을수록, 혼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배우자와 함께한 가사활동과 종교 활동 시간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흥미로운 점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이 남편과 함께한 미디어 이용 시간은 오히려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은 배우자가 없는 남성노인에 비해 혼자서 하는 활동 시간 중 미디어 사용과 종교 활동 시간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혼자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떨어진다. 반면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

토론내용

“가족시간과 삶의 질”에 관한 토론

차승은 *

이 연구는 가족공유시간에 관한 주요 논점을 제기하면서, 2014생활시간자료를 활용, 가족공유시간이 각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기술하고 있다. 연구 내용은 크게 가족공유시간에 관한 기존연구 소개와 실증분석으로 구분된다. 기존연구 고찰에서는 가족여가에 관한 선행연구의 쟁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족공유시간에 학자들이 주목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어 눈에 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공유시간은 가족의 친밀감, 가족원이 지각하는 행복과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극복하는 힘을 제공하는 회복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공유시간을 탐색하고, 추적해 간다는 것이 비단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가족을 이해함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임을 시사한다. 다만, 이 연구는 아직 함께한 사람에 관한 기초단계의 연구로서 위에서 제시한 이론적 논의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와 함께 생활시간자료의 “함께한 사람” 구분을 통해 가족공유시간을 파악함에 있어 개념과 측정의 부조화에 대한 연구자의 고민과 고심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아쉬움은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연구자와 비슷한 고민을 해 본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그 한계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제한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앞으로 연구자들이 “가족공유시간”에 대해 탐색할 때, 반드시 넘어가야 할 큰 장애물이자 도전이라 말하고 싶다.

이 연구가 갖는 아쉬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족공유시간”의

*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개념과 관련된 부분이다. 공유시간 개념이 다소 불분명한 것은 기존 가족공유시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이에 대한 치밀한 고민이 없었던 탓도 있다. 선행연구들은 가족이 시간을 공유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공유”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동일한 행위를 한 경우 공유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된 장소에 가족원들이 같이 등장한다면 그것을 공유했다고 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합의할 수 있을까?

가족공유시간이라고 할 때, 가족의 범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구를 단위로 가족공유시간을 볼 것인가? 혹은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가족까지 가족공유시간을 적용할 수 있을까? 예들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 부부가 바쁜 일이 있어서 어느 날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기 위해 방문했다. 그 손자와 할머니가 함께한 시간은 가족공유시간에 포함되는가? 만약 공유시간이 추억과 역사 그리고 친밀감의 관점에서 조명된다면, 이런 시간까지 모두 공유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가족원이 세 명이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두 명만 같이 있어도 가족공유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 혹은 세 명의 가족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만 특별하게 우리는 “가족공유”시간이라고 볼 것인가? 과거에는 가족이 모두 같은 집에 사는 것이 전제되었지만, 최근 가족의 삶은 맞벌이, 장시간 노동, 학업, 그리고 분거를 이유로 가족원 중 일부만 친밀한 관계(추억, 기억을 공유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가족원은 전체적인 가족의 친밀함의 역사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어디까지를 “가족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러한 공유시간과 가족의 범위에 대한 개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가족공유시간이 앞서 언급한 친밀성, 개인의 행복 그리고 회복탄력성이라는 심리사회적 자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밀성을 위해 혹은 행복을 위해 가족공유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누구와 누구의 친밀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고, 누가 행복한 것이 중요한가? 어떤 가족원의 친밀도, 행복, 그리고 그들이 공유한 추억이 종국에 가족의 회복탄력성에 도움이 되는가? 이러한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가족공유”시간에 대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그 시발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아쉬움은 가족공유시간을 측정한 이 생활시간자료가 갖는 한계에 있다. 이 연구가 활용한 생활시간자료는 가족공유시간을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일반적인 설문조사에서는 가족원 중 한 사람에게 하루 동안 가족(배우자, 자녀 등)과 몇 시간 같이 있었는지 묻는다. 식사시간, 여가시간, 혹은 이동시간 동안 얼마나 같이

있었는지 묻기도 한다. 이러한 설문조사와 비교해서, 생활시간자료는 하루 24시간에서 어느 시간에 누군가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게 함으로써 함께한 사람을 파악한다. 그것을 통해 “가족공유시간”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기를 기록한 사람이 특정행위에 대해 누구와 했는지 밝히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측정했을 때, 생활시간자료에서 함께한 사람이 가장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행위는 식사와 여가활동 등이 유일하다. 가사노동의 경우 함께 설거지를 했거나, 함께 세탁을 한 경우가 아니면 함께한 사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노동시간 역시 가족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니 가족이 등장하지 않는다. 특정한 행위는 함께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혼자 수행했다”고 일지를 쓴 사람들은 기록하기도 한다(가령, 수면의 경우 “혼자 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부부가 혹은 부모자녀가 함께 자는 것(co-sleeping)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다). 따라서 함께한 한 행동은 전체 일상생활에서 매우 작은 부분만 알아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생활시간자료가 “동일한 행위를 같이한 경우”로 함께한 사람을 한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맥락은 “함께한 사람”으로서 파악되지 않는다. 가령 이런 경우이다. 거실에서 한 사람은 때 늦은 식사를 하고, 다른 사람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생활시간자료 상에서는 “함께한 사람”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부부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서 만약 한 사람은 안방에서 다른 사람은 서재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면, 그것 역시 “함께한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보자면, 한 사람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물을 다듬으면서(주행동), 텔레비전(동시행동)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함께한 사람”이자 “공유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화 및 측정방식은 외국 생활시간자료가 동일 장소에 존재(presence)의 개념으로 “함께한 사람”을 인식한 것보다도 상이한 것으로서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이렇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한국 생활시간자료는 “함께한 사람”에 대한 정의는 그 엄밀성의 수준에서 매우 한정적이다(가령, 엄마가 아이를 목욕시킨다고 할 때, 함께한 사람에는 그 아이는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파악하는 가족공유시간은 우리가 흔히 가족이 존재하는 시간에 비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언급할 때 가족이 등장하는 방식의 장면을 상상한다면, 생활시간자료로 이를 포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연구문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도전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왕 이렇게 엄밀하게 측정되었다면,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가능

하리라 본다. 만약 같은 시간대에 집안에서 남편은 청소를 하고, 아내는 같은 시간 빨래를 하고 있다면, 현재는 함께한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 맥락상 그들은 가사노동을 “함께 했다”고 인식할 수 없을까? 이러한 의문이 든 이유는 노인 부부가 함께한 시간에서 가사노동, 사회화(교류활동), 그리고 종교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여가와 같이 실제로 특정 행위를 같이할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두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상이한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 이 함께한 사람에 관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도 매우 기대된다. 시간대, 요일에 따라 과연 함께한 활동의 리듬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는 요일에 따른 함께한 사람의 리듬이 많이 기술하지 않았지만, 분명, 함께한 활동은 요일, 특정요일의 특정 시간대에 몰려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 가족들은 언제 함께하고, 언제 혼자시간을 보내며, 어떤 시간에 가족이 아닌 타인과 함께 하는가? 주말에 가족공유시간이 늘어나는 구조라면, 그것은 아침인가? 점심인가? 혹은 저녁시간인가? 그것은 다른 나라와는 어떠한 차이로 나타나는가? 과연 가족공유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족은 우리사회에서 어떤 가족인가 등 연구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간다.

한편, 이 연구에서 실제 “함께한 시간”변수가 남녀, 기혼부부, 노부부의 삶의 질과 관계가 크게 부각되지 나타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요일이 통제되지 않았지만, 요일을 통제해 보는 방법, 회귀모형에 상관이 높은 시간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간변수들 가운데, 분포가 좋지 않은 변수들을 범주형으로 바꾸어보는 시도가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또한 혼자 있는 여가와 가족과 함께한 여가 역시 동시에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데, 총여가시간에서 각 유형의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이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했으면 과연 결과가 달라졌을까? 그 부분도 제안해 보고 싶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지금까지 함께한 사람에 관한 기존연구가 학동기 자녀가 있는 비교적 젊은 가족을 대상으로 국한해서 살펴본 논의를 생애주기에 따라 확장해서 기술함으로써, “함께한 시간”이 생애주기에 따라 어떻게 펼쳐지고, 앞으로 생애주기별로 가족공유시간을 파악할 때 어떤 지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 그 차별성을 기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앞으로 관련된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제 4 주 제

일-여가의 변화와 행복

유홍준 * · 신인철 **

1. 들어가는 말

정보통신기술이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을 초연결(hyper-connection)하며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이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가 사람을 대체됨에 따른 일자리 감소의 문제, 그리고 ‘고기술/고임금’과 ‘낮은 기술/낮은 임금’이라는 일자리의 양극화가 중산층의 붕괴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처럼 직업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에서, 현재 우리의 노동시장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자 수가 전체 실업자 수의 절반(1,174천 명 중 505천 명)에 이르고, 25~29세 실업률은 10.5%에 이르는 등 청년층의 고용시장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층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최근 들어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보다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규용, 2015). 이처럼 경제침체에 따른 취업의 어려움은 휴학을 통해 졸업을 유예하거나 대학원진학으로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유홍준 외, 2016). 또한, 이전에 비해 열악해진 노동시장 환경은 일자리와 청년구직자 간의 성공적 조합을 창출하지 못하고 결국 어쩔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수 없는 선택으로 청년들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진입할 수밖에 없으며, 반복되는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정규직의 덫에 걸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고령자들 역시 외환위기 이후 ‘사오정’, ‘오륙도’ 등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상시적인 구조조정 위험에 노출되어 조기퇴직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고령자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적응력 부족, 퇴직 전 지위 및 임금 수준 기대 등의 눈높이 차이로 인해 잡매칭(job-matching)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전에 비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낮은 경제적 지위—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낮은 고용률, 성별임금격차, 비정규직/시간제 일의 높은 비율, 승진에서의 유리천장—에 처해있으며, 결혼·출산·가사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직업을 통한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다.

이처럼 직업의 불안정으로 인해 미래의 삶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여가와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중국에는 삶의 질 저하 및 행복감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발전경제학적 관점에서 물질적 성장에 따른 사회발전 정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높은 순위를 유지하지만(예를 들어 HDI, IHDI, GII), OECD가 발표한 BLI(Better Life Index)의 경우 2015년 현재 36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등 삶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OECD, 2015).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일과 행복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즉, 일하는 것 자체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일에 대한 의미부여가 일을 통해 얻는 행복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중독이 개인들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와 참여를 포함한 일-여가의 균형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자료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여가와 행복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조사를 통해 수집된 양적 자료와 FGD를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를 모두 이용하였다. 각 자료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인식」 사회조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의 실태와, 이것들이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주로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일반 만 20세~5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베이로 2016년 12월 한 달간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총 1,357명(남성 692명, 여성 66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인식」 FGD

이처럼 사회조사를 통해 한국인들이 느끼는 행복감과 삶의 질을 평균적 수준에서 파악할 수는 있으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3주간 성, 연령, 직업,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총 7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당 6명씩 총 42명을 대상으로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은 크게 일/직업(일/직업에 대한 만족도, 일/직업이 가지는 의미 등), 여가시간(가족과 보내는 여가시간 비중,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 여가시간이 가지는 의미 등), 행복/삶의 질(행복을 결정하는 요소,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한 것이었다.

3. 일과 행복

인간에게 있어 일(노동)이 갖고 있는 의미는 사실 사회학의 오랜 관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일과 행복 또는 삶의 만족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사람들에게 있어 일은 목표를 세우고 힘을 투입하여 대상에 대해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

에서 단순한 놀이나 우연한 행동과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일을 재정적 보수를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금전과 교환하는 고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많은 경제적 보수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을 함으로써 인간은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게 되며, 일을 하면서 느끼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고 무엇인가를 성취했으며 성공했다고 느끼게 한다. 취업하지 못한 30대 초반 여성의 FGD 사례와 이와 대비되는 30대 남성 취업자의 사례, 그리고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세 번째 사례가 이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FGD 사례 1

아직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든 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이 다시 되면서 이런 저런 알바를 많이 지원해 봤는데, 한두 달 동안은 아예,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뽑아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일도 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알바, 단순 알바조차도 나를 뽑아주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는데, 최근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FGD 사례 2

저는 일이라는 게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직업 같은 경우는 일이 계속 학업이 되니까. 일을 하면서도 학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고, 학위를 따더라도 계속 뭔가 수련이 필요한 과정에 있어서 일을 할 때 자아실현이기도 한데, 자아실현을 하려면 저는 좀 자기 성장을 해야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제가 생각하는 직업과 제 일에서는 일은 자기성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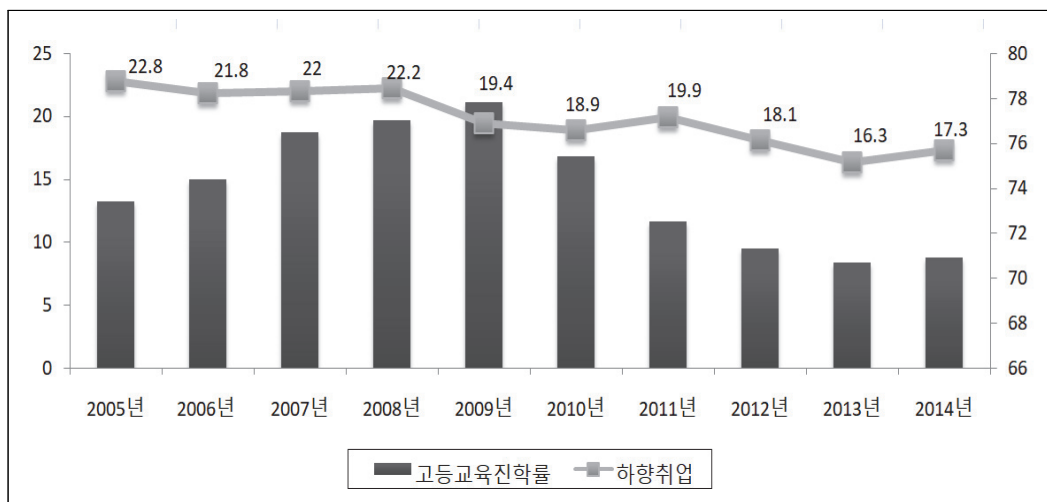
FGD 사례 3

하고 싶은 일이란 자신이 하는 일이란 딱 맞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족지수가 높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어서 말 그대로 돈을 벌어서 대출받은 것도 갚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헬스장을 다니는데, 그거 하고 주말에는 교회 가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보는 걸 좋아해서 자아실현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충족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에는 딱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서의 행복

1997년의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한국 노동시장에서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후 반복되는 급격한 경기변동은 일자리의 안정성보다는 경기변화에 따른 유연한 인력활용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제도를 변화시켰고, 이러한 일자리의 비정규직화는 기업의 비용절감 전략에 의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들이 예전과는 달리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를 줄이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채용을 보다 적극 활용하는 인적자원관리 전략은 청년들의 취업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반면에 높은 교육열과 대학교육기관의 확대는 대학 진학률을 크게 증가시켰고,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양질의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고학력 청년구직자들의 일자리 눈높이는 이들 세대가 성장하면서 경험한 사회적·문화적 수준만큼이나 높아졌다.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하여 하향취업 실태를 연구한 김기현(2015)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교육(대학) 진학률이 낮아짐에 따라 2005년과 비교하여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14년 현재 17.3% 수준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청년들이 하향취업을 하고 있다.



〈그림 1〉 고등교육 진학률과 청년(15~29세) 하향취업 추세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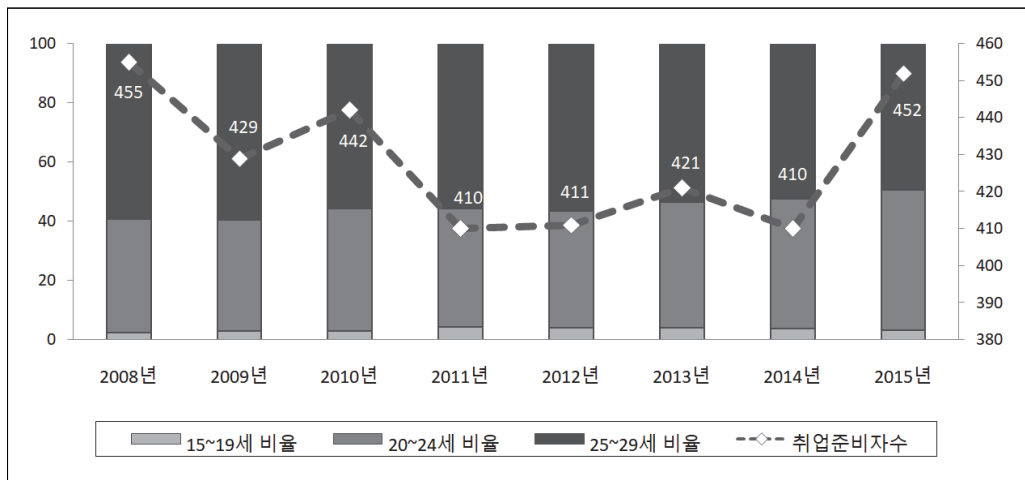
주: 1) 고등교육진학률: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활용.

2) 하향취업률: 1~17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

출처: 김기현, 2015(저자에 의해 재구성).

이처럼 불안정하거나 질적 수준이 낮은 일자리보다는 안정적인고, 근로조건이 더 나은 일자리, 장래성 있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청년들은 취업준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취업준비자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진화·양수경(2016)의 연구에 따르면, 이로 인해 청년취업자는 2008년 455천 명에서 감소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여 2015년 현재 452천 명에 이르고 있다.

반면, 현재의 중고령층은 고도의 경제 성장기에 도처에 많은 취업의 기회 중에서 선택하여 평생직장을 시작하고 승진을 통해 상당한 사회적 지위도 누릴 수 있었지만,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세계경제위기로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조기퇴직을 권고 받고 재취업이나 창



〈그림 2〉 고등교육 진학률과 청년(15~29세) 하향취업 추세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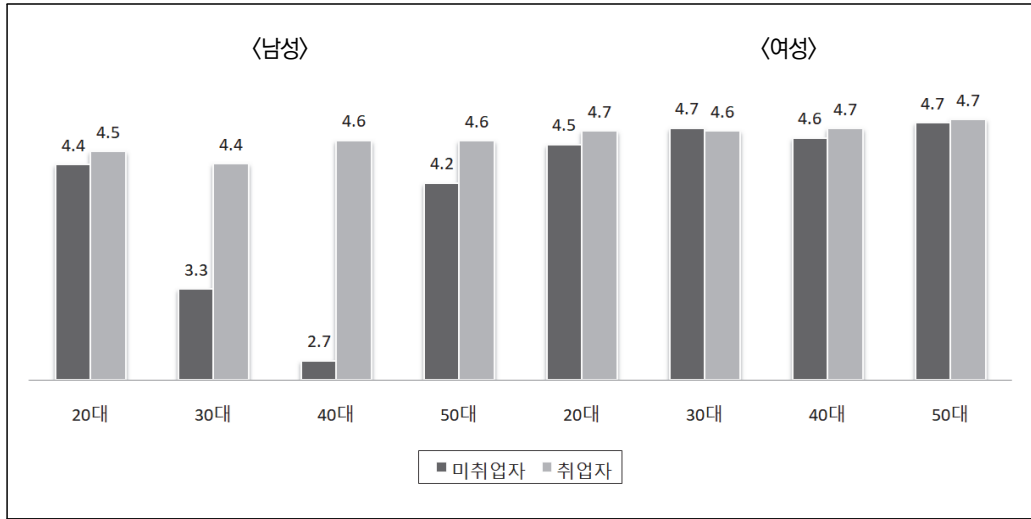
출처: 박진화·양수경(2016).

〈표 1〉 고령층 은퇴 이행 변화 추이(2013~2015)

(단위: %, 개월)

구분	2013.5	2014.5	2015.5
55~79세 취업자 비중(%)	53.0	53.9	53.9
55~79세 장래근로 희망 비중(%)	59.9	62.0	61.0
55~79세 장래근로 희망자 중 시간제 비중(%)	32.6	33.5	32.6
55~79세 장래근로 희망자 희망임금 100만원 미만 비중(%)	32.4	29.7	27.0
55~64세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평균근속기간(개월)	190	184	177
55~64세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평균이직연령(세)	49	49	49
55~64세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정년퇴직비율(%)	7.8	7.6	8.1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 연도.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자료 추출.



〈그림 3〉 취업상태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단위: 점)

주: 7점 척도로 행복감을 측정한 것을 성별 및 취업상태별로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동연구 서베이 자료, 2016.

업에 실패해서 노후의 준비가 안 된 암울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여전히 적지 않은 중고령층이 일을 하고 있고 안정적인 전일제 일자리에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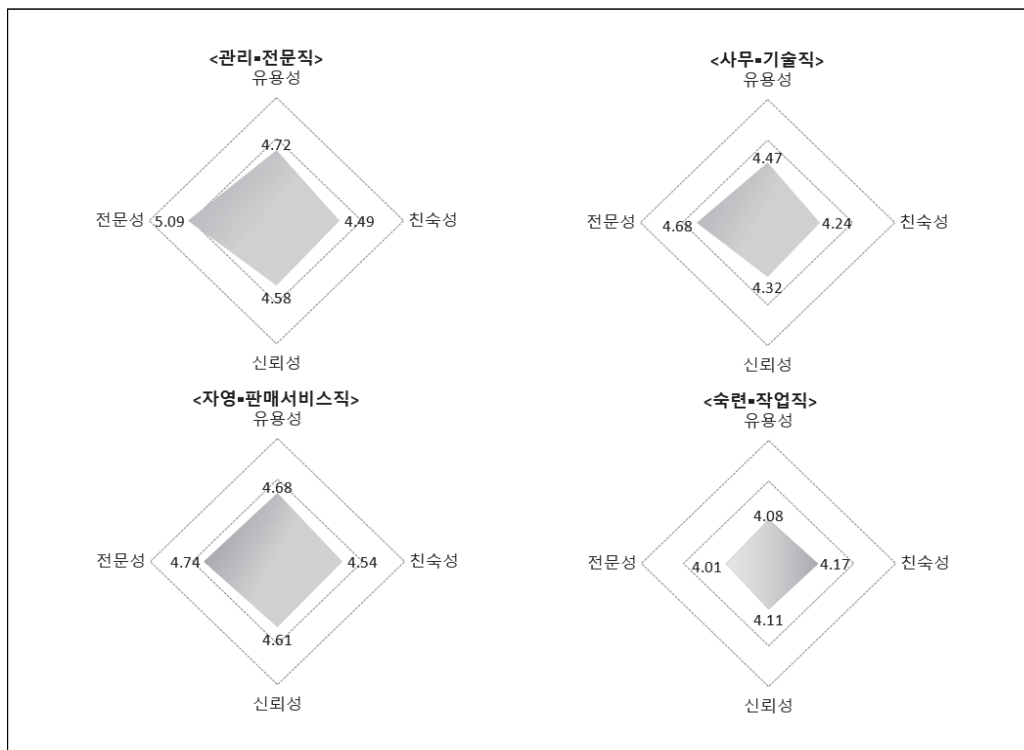
이로 인해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들에게 행복감을 높여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30대와 40대 남성의 경우 미취업자와 취업자 간의 행복감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행복에 있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 일의 의미와 행복감과의 관계

“노동하지 않으면 삶은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은 삶을 질식시킨다.”는 카뮈(Camus)의 말처럼, 영혼이 담긴 일을 찾는 것은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영혼 없는 노동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혹자는 일터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진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평가가 행복감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물론, 각 직업이 갖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이 일을 통해 얻게 되는 주관적인 만족감이 반드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본인 스스로 직업에 대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할 때 더 많이 행복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일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즉, 관리·전문직의 경우 자신이 느끼는 직업의 긍정·부정적 이미지 여부와 일을 통한 행복감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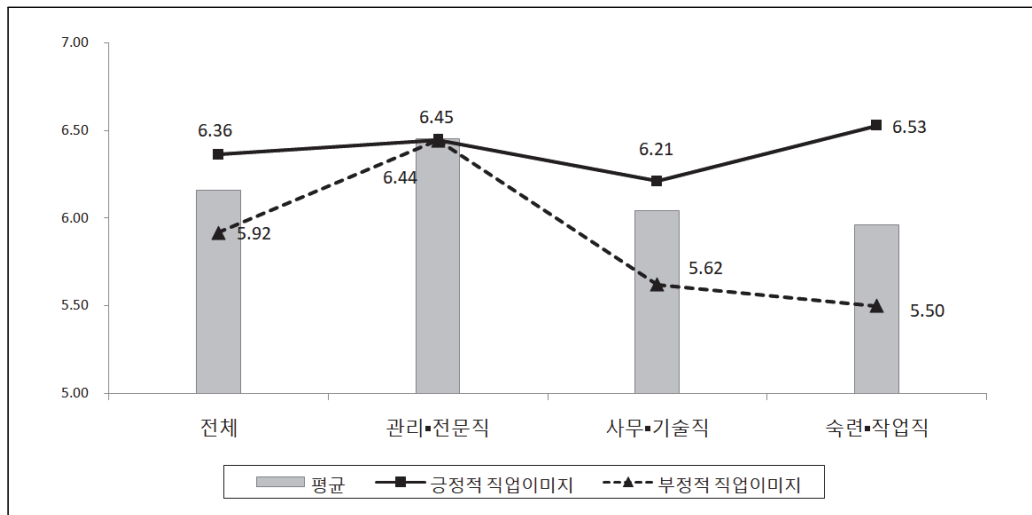


〈그림 4〉 직업별 직업이미지의 차이

(단위: 점)

주: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업이미지를 묻는 16개의 문항을 전문성, 유용성, 친숙성, 신뢰성 등 4개의 차원으로 유형화하고, 각 차원에 해당되는 문항의 응답에 대한 평균값임.

자료: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동연구 서베이 자료, 2016.



〈그림 5〉 직업이미지에 따른 직업별 행복감의 차이

(단위: 점)

주: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행복한지를 묻는 10점 척도에 대한 응답을 직종별로 평균값을 산출하고, 자신의 일자리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의 조건하에 행복감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임.

자료: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동연구 서베이 자료, 2016.

술직이나 숙련·작업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일을 통해 얻게 되는 행복감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였으며, 숙련·작업직에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실제로 FGD를 통해 응답한 사례자의 아래의 얘기를 통해 개인이 일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의미와 행복감 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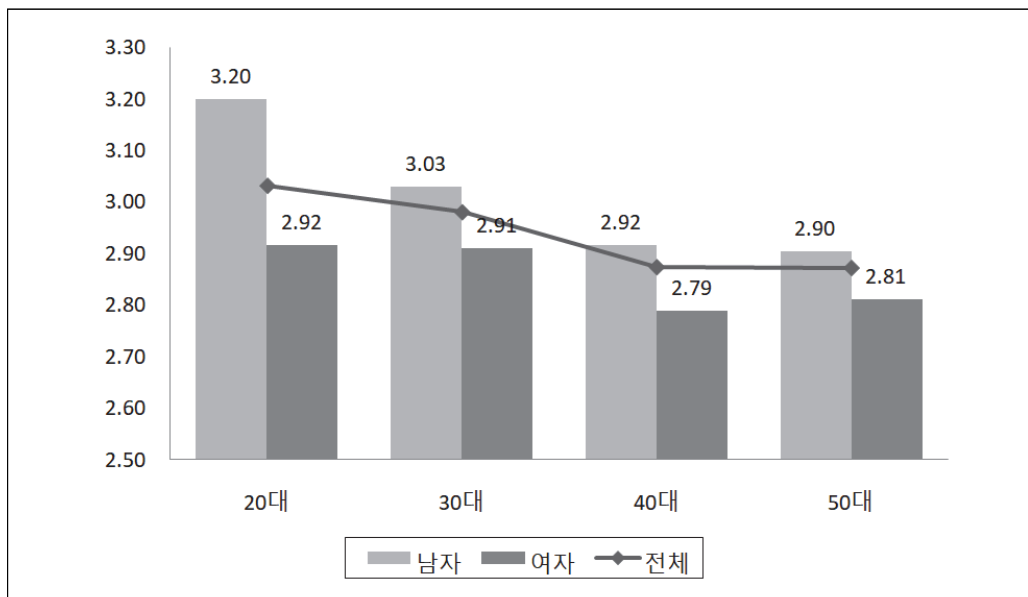
FGD 사례 4

상대적인 건데, 어찌됐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해도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면 행복한 걸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소득이 작더라도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고, 남들이 좀 우습게 생각해도 그게 자기 오랫동안 꿈이었고 하고 싶은 일이면 거기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걸 많이 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3) 개인의 행복을 저해하는 일중독

OECD에 보고된 주요 국가들의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긴 편에 속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한국인들이 장시간 노동을 습관이나 숙명처럼 받아들이게 된 것은 산업화를 거치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존의 불안이 증폭되면서 강화되었다(윤자영, 2014). 최근 금전적 보상에 가려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장시간의 과도한 일에 대한 몰입을 일중독으로 개념화하고, 삶의 질과 행복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논의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강수돌, 2007). 이에 이후의 논의에서는 Azis 등(2013)이 개발한 일중독 문항의 일부를 활용하여 측정된 일중독의 정도에 따라 개인들이 느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6〉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5점 척도인 12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된 일중독 정도를 생애주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일중독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 20대와 30대, 40대와



〈그림 6〉 생애주기별 일중독의 정도

(단위: 점)

주: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일중독을 측정하는 12개 문항의 응답에 대한 평균값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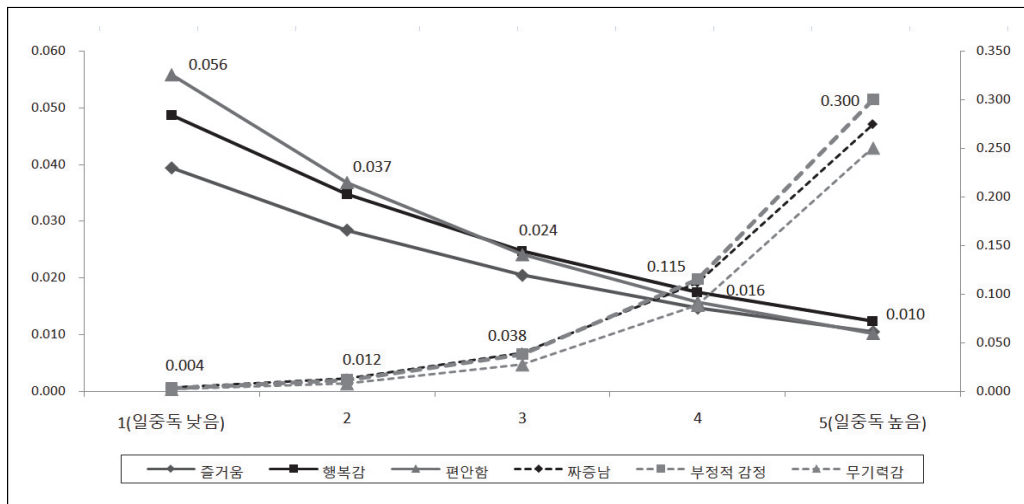
자료: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동연구 서베이 자료, 2016.

50대가 각각 비슷한 수준이지만, 남성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히 20대 남성의 일중독이 가장 심각했으며, 일중독이 가장 낮은 50대 남성에게 비해 약 10% 더 높은 수준이다.

FGD를 통해 확인된 아래의 30대 후반 남성 사례자의 경우처럼 과도한 일중독이나 일에 대한 압박감은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GD 사례 5

제가 애를 낳게 됐는데, 직장 시작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12시, 1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빨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늦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3시, 4시, 밤을 새는 것도 부지기수고 당연한 것처럼 회사 분위기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다, 결국 내 가족도 챙기지 못하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업무 자체에서 오는 불만족도 있었지만 내 가족을 못 챙긴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 경제적으로는 운택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운택한 건 분명히 있는데, 시간적 페이로 생각을 해 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만 보고 행복이 비례한다,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본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림 7〉 일중독 정도별 긍정적-부정적 감정의 격차

(단위: 점)

주: 7점 척도로 측정된 6가지의 감정을 종속변수로, 일중독 정도를 독립변수로 한 서열형로짓모형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각 감정들을 “항상 느낄” 경우의 확률값을 나타낸 것임.

자료: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동연구 서베이 자료, 2016.

이에 일중독이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일중독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즐거움, 행복감, 편안함 등과 같은 긍정적 감정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중독이 매우 낮을 때(1점) ‘매우 편안하다’고 느낄 확률은 0.056%인데, 일중독이 매우 심각할 때(5점)는 0.01%로 5배의 차이를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일중독과 짜증남, 부정적 감정, 무기력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과의 정의 관계를 보였다. 예를 들어, 일의 중독이 매우 낮을 때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확률은 0.004%인 데 반해, 일의 중독이 심각한 경우는 이보다 7배 이상 많은 0.3%였다.

4. 일-여가와 행복, 그리고 삶의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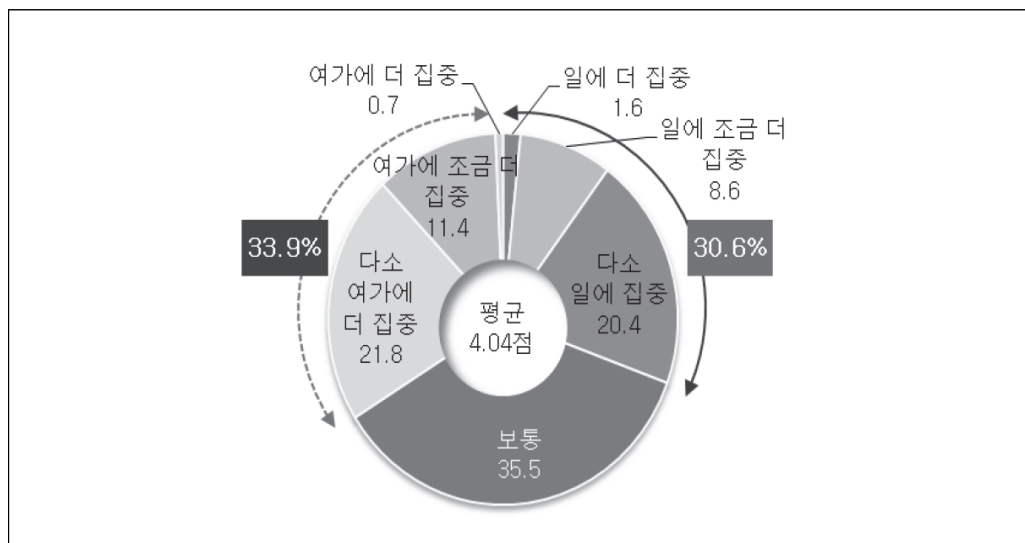
매일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활동인 일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삶의 중요한 영역이다. 일이 인간의 물질적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필연의 영역(the realm of necessity)이라면 여가는 일에서 오는 피로를 해소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제공하며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자유’의 영역(the realm of freedom)’이라 할 수 있다(조광익, 1996). 이처럼 양자는 상호 분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갈등의 관계로 인식되어 왔으며,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일과 여가에 대한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면서 그 시대의 삶을 정당화시키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함축되어 있기도 하다(김문겸, 2002). 이에 본 절에서는 일과 여가에 대한 가치관이 개인들의 행복과 삶의 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여가의 개념과 실태

여가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여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Dumazedier(1962)는 산업사회에서 여가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으로 여가를 바라보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반여가(semi-loisir)’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운데 발생하는 생산’ 개념을 여가활동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에 여가와 노동의 관계(Parker, 1972)나 자본주의와 여가의 관계(Rojek, 1985)를 통해 여가를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어 왔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시대적 가치관 또는 이데올로기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가에 대한 일관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양한 의무에서 벗어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간적인 여유를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사람들이 여가를 ‘자유시간’으로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여가는 삶의 질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개인들이 일과 여가 중 어느 쪽에 삶의 가치를 두고 지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즉, 일을 통한 성취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의 경우 일과 행복 간에는 정적인 관계를 가지지만, 보다 많은 여가를 갖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일과 행복이 부적인 관계로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오랫동안 일-여가와 행복 간의 연구에서는 삶의 관심영역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행복감이나 삶의 질의 차이에 주목해왔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에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여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가시간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으며(휴일 기준 2006년 5.5시간 → 2010년 7시간 → 2016년 5시간), 여전히 일과 여가 중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림 8〉 일과 여가의 균형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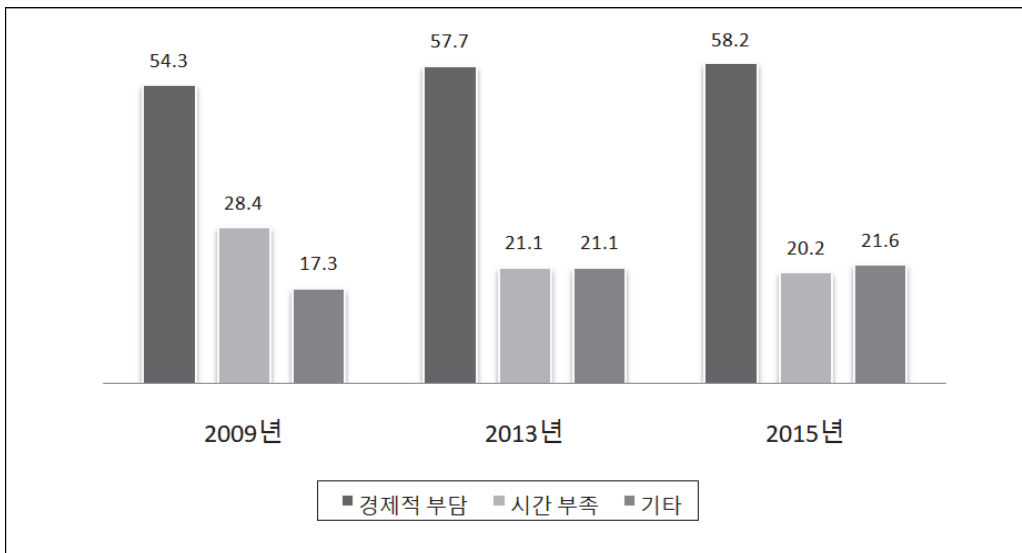
(단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

그렇다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두 그것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여가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여가의 장애요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간 부족’을 들고 있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시간부족으로 인한 불만족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불만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FGD를 통해 살펴본 30대 사례자의 말을 통해 여가와 경제적 여유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FGD 사례 6

안정적인 어느 정도의 소득이 나올 때까지는 여가라는 건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때가 돼야 문화적인 거든 뭘 얘기할 수 있지, 당장 시간이나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여가를 꿈꿀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도 일하는 거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아르바이트 하고 포토샵으로 뭐 만들고 했었거든요.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공짜 티켓으로도, 이벤트 응모해서 많이 봤었는데,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시간과 돈이라는 얘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림 9〉 여가생활에 대한 불만족 이유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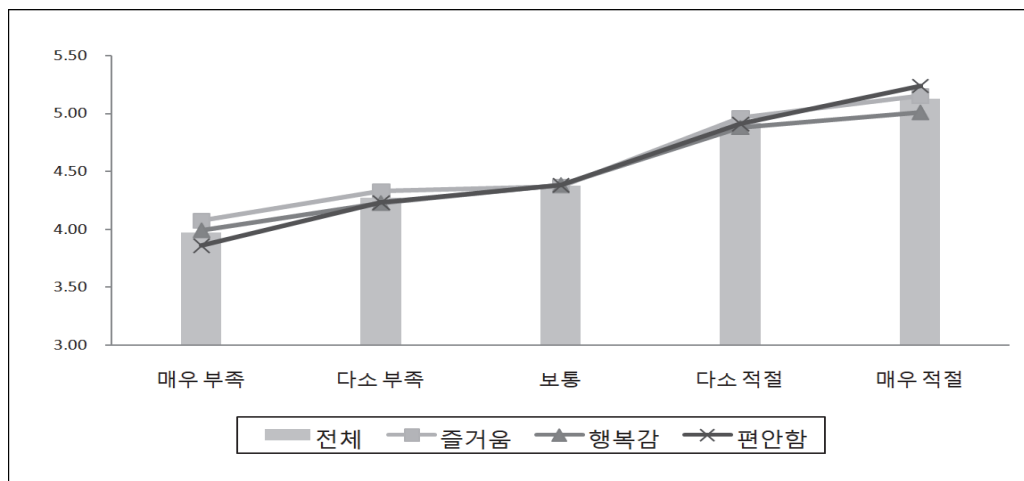
2) 일-여가의 균형과 행복과의 관계

이후의 논의에서는 일과 여가의 균형이 행복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가족, 친구나 이웃과 같은 타인, 그리고 다양한 사회 및 정치 활동에의 참여 시간에 따라 행복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았다.

먼저, <그림 10>은 단순히 여가를 ‘개인적 관심/취미를 위한 시간’으로 한정하여 이를 위한 시간의 적절성에 따른 개인들이 느끼는 긍정적 감정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긍정적 감정은 정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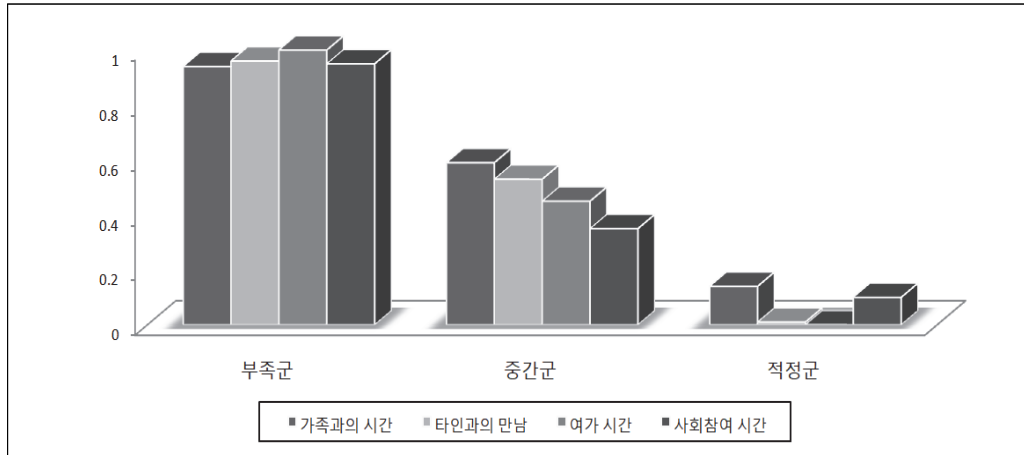
그러나 FGD를 통해 살펴본 결과, 사람들은 여가에 가족이나 타인과 보내는 시간, 일 이외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해 보내는 시간을 포함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가를 ‘개인적 관심/취미를 위한 시간’에 한정하기보다는 이를 포함하여 가족과 보내는 시간, 가족 이외 사람들과의 연락 혹은 만남을 위한 시간, 봉사 또는 사회·정치 활동 참여 시간까지 확대하여 광의적 개념으로 바라보고 일 이외의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 보내는 시간의 적절성에 따라 <그림 11>과 같이 일 이외에 다양한 시간이 적당하다고 느끼는 집단, 이와 대조적으로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집단, 그리고 양자의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집단 등 3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렇게 유형화된 여가활동 집단에 따라 앞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았던 긍정적 감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먼저, 다양한 형태의 여가



<그림 10> 개인적 관심/취미를 위한 시간의 적절성 인식별 긍정적 감정의 차이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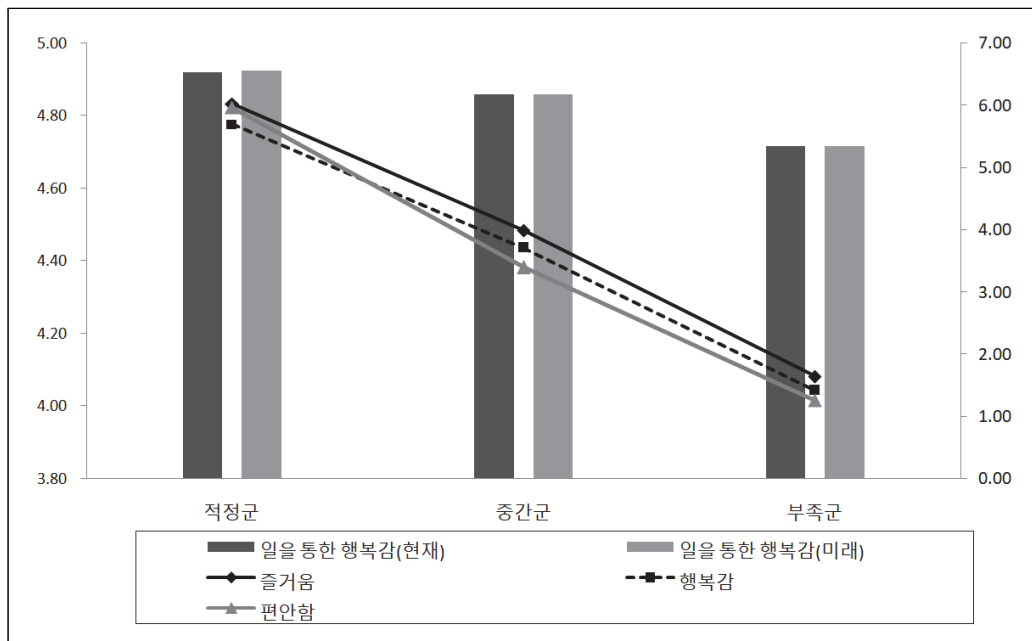
자료: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동연구 서베이 자료, 2016.



〈그림 11〉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군: 여가활동 유형

주: 일상생활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들을 토대로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한 결과임.

자료: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동연구 서베이 자료, 2016.



〈그림 12〉 여가활동 유형별 긍정적 감정의 차이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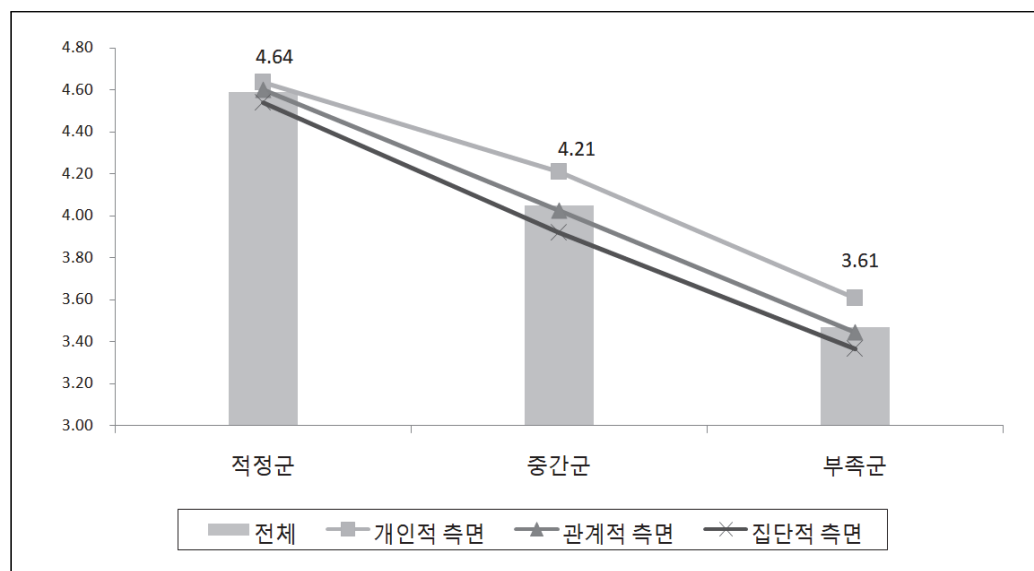
주: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즐거움, 행복감, 편안함은 7점 척도, 일을 통한 행복감(현재와 미래)은 10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참여군별로 평균값을 도출한 것으로 값이 클수록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나타냄.

자료: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동연구 서베이 자료, 2016.

활동이 적절하다고 느끼는 집단의 경우 부족하다고 느끼는 집단에 비해 현재하고 있는 일을 통한 행복감도 높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여가활동을 적절히 하고 있다는 집단일수록 즐거움, 행복감 그리고 편안함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인들이 여가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행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여가활동 참여는 행복감과 더불어 삶의 만족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을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 관계적 측면(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 집단적 측면(내가 속한 집단 - 직장, 지역사회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측면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여가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감의 차이는 앞서 살펴본 긍정적 감정의 차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즉, 다양한 형태의 여가활동에 적절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뿐만 아니라 집단적 측면에서도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여가활동 유형별 삶의 만족감 차이

(단위: 점)

주: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집단적 측면에서 삶에 대한 만족감을 7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참여군별로 평균값을 도출한 것으로 값이 클수록 만족감이 높은 것을 나타냄.

자료: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동연구 서베이 자료, 2016.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여가와 행복이라는 대주제 하에서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먼저, 일과 행복과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는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행복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해 투영하고 있는 이미지에 따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행복감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에 대해 몰입한 나머지 일중독으로까지 발전했을 때 개인의 행복감의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두 번째로는 일과 행복과의 관련성에 여가를 더하여 3자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여가를 ‘개인적 관심이나 취미를 위한 시간’으로 한정된 협의적 개념과 ‘가족이나 타인 그리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시간’까지 포함한 광의적 개념으로 나누어 개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 행복감, 편안함과 같은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광의적 개념의 여가활동이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그리고 집단적 측면에서 개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의 현 시점에서 안정적이고 미래의 삶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장 활발한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할 30~40대 남성들의 경우 취업여부에 따른 행복감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개인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에는 개인적 특질, 개인을 둘러싼 가정이나 사회적 관계와 같은 내외부적인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성취감이나 자부감에 기반하여 자신의 일에 대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긍·부정의 이미지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자신의 일에 대한 긍정적인 직업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 경우 일을 통한 행복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타인들에게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자신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경우 일을 통해 행복감은 그렇지 않을 경우

에 비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통한 행복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과 성취감 등을 높여 보다 긍정적인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이 개인의 행복의 기반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일증독은 오히려 개인의 행복감을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문화의 개선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일과 여가 그리고 행복 또는 삶의 만족이라는 3자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적 관심이나 취미를 위한 시간’이라는 협의적 개념의 여가뿐만 아니라 ‘가족, 타인 및 사회참여’를 위한 시간까지 확대한 광의적 개념의 여가를 적절히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긍정적인 감정을 보다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관계적 측면 그리고 집단적 측면에서의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일과 여가의 균형이 개인의 행복감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강수돌(2002), 『노사관계와 삶의 질』, 서울: 한울.
- 김기현(2015), “청년층 고용”, 『KLI 워킹 페이퍼』 3호(3): 1~22., 한국노동연구원.
- 김문겸(2002), “여가의 역사와 여가사회의 신화”, 『사회조사연구』, 17: 1-22.
- 문화체육관광부(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
- 박진희·양수경(2016), “청년층 취업준비자 현황과 특성”, 『고용동향브리프』 2016-6호 한국고용정보원.
- 윤자영(2014), “일중독 측정과 결정 요인”, 기획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2015),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 모색”, 『월간 노동리뷰』 2015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유홍준(2015). 『직업사회학』.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조광익(1996). “노동과 여가개념에 대한 비판적 분석”, 『관광연구논총』, 8: 233-261.
- 통계청(2017). 『2017년 4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 연도.
- Aziz, S., Uhrich, B., Wuensch, K. L., & Swords, B.(2013), “The workaholism analysis questionnaire: emphasizing work-life imbalance and addiction in the measurement of workaholism,” *Journal of Behavioral & Applied Management* 14(2), pp.71~86.
- OECD(2015),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 Parker, S. (1972).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 Paladin, London.
- Rojek, C. (1985). *Capitalism and Leisure Theory*. Tavistock.

토론내용

“일-여가의 변화와 행복”에 관한 토론

김기현 *

이 글은 일과 여가가, 그리고 일과 여가의 관계가 개인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화두인 두 가지 쟁점을 포괄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행복은 일을 통해서도, 여가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으며 혹은 둘 간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고의 완성도를 위해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과 본론에서 현재 취업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은퇴 이후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실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과 여가 그리고 행복의 관계는 보편적인 주제이므로 전체 연령별로 현재 상황을 제시하고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연령집단으로 청년층과 노년층을 다루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여가의 개념 등에서 부분적으로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여가와 행복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내용을 앞부분에 우선 제시해 주신다면 이번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조건이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루에도 여러 번 행복감과 불행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이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취업상태에 따른 행복감에서 30, 40대 남성들의 경우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성별로 일-여가와 행복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감의 차이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검토해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양적 분석과 FGD를 통한 질적 분석인데 두 가지를 혼합하여 양적 결과 제시 후에 면접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질적 분석 결과 전반을 읽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양적 분석과의 비교와 무관하게 의미 있는 질적 분석과 나왔을 때 이를 소개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어 보입니다. 양적 분석과 동일한 순서로 질적 분석 결과를 모아 제시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두 가지를 비교해 제시한다면 어떨까 합니다.